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외교학 석사 학위논문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정책 동인에 관한 비교 연구

2021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전공

조 대 현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정책 동인에 관한 비교 연구

지도교수 신 범 식

이 논문을 외교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외교학 전공
조 대 현 (성명)

조대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8월

위 원 장 _____

부위원장 _____

위 원 _____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안보 현안인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을 추진하는 중앙아시아 내 국가들의 정책 동인을 밝힘으로써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정치의 일면을 살펴보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내 장기적인 내전으로 발생한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정은 비단 아프가니스탄 내부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과 인접한 지역 국가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지역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위협이 자국으로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다양한 방식으로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정착에 기여함으로써 자국의 안보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위협 인식과 위신 추구 여부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정책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아프가니스탄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과거 종교적 극단주의로 역사적 트라우마를 지닌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커다란 위협으로 인식하였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성 안보적인 수단을 활용하였다. 반면 아프가니스탄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지 않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하더라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과 달리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지니지 않은 투르크메니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의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한 연성 안보 중심의 평화정착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신 추구 여부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정책을 결정하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을 통해 지역 내 강대국들과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자국의 위신을 인정받고자 했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주도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사회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였으

며, 서구, UN, OSCE 등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을 주도하는 행위자들로부터 주도적인 행위를 인정받았다. 한편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에서 위신을 추구하지 않는 국가들은 지역 내 강대국 혹은 지역 내 국제기구 등과 협력을 통하여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중앙아시아의 지역정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정치학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중앙아시아와 아프가니스탄을 둘러싼 강대국 간 영향력 확대 경쟁과 지역 내 국가들 간의 상호작용은 현실주의적인 면모를 보이며, 안보 제도도 유로-대서양과 달리 지역 전체를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안보 제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만 국제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유라시아 지역 내에서도 국제 규범과 국제제도가 작동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성주의 관점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지역 내 강대국들 모두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모두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EU와 같은 국가를 초월하는 메타 정체성(Meta-Identity)을 구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메타 정체성의 구성은 신생국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민국가 건설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 갈등이 지역적 맥락에서 형성되고 평화정착도 지역적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아프가니스탄 문제도 지역적 맥락에서 이해가 이루어지고 평화정착도 지역적 맥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개별 국가들의 수준에서 지역정치적 특징을 살펴보면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응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행동을 통해 강대국의 각축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는 점이다. 아프가니스탄의 위협을 비교적 크게 인식하는 국가들은 지역 내 안보 제공자인 러시아, 대테러 분야 협력을 위해 새롭게 손을 내민 중국과 군사 협력

을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한편 위협 인식이 비교적 낮고, 위신을 추구하는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을 지원 중인 서구와 서구 주도의 국제기구인 UN과 OSCE에서 자국의 기여를 과시하고 이를 인정받으려 하였다. 이는 강대국의 기조와 부합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을 완충지대로 만들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안보 제공자 역할을 유지하려는 러시아와 위협 인식이 높은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협력을 강화하려 하였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한편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사회경제적 지원은 아프가니스탄에 정치, 경제, 사회 분야 지원을 통하여 평화정착을 도모하였던 서구의 전략과 맞닿아있다.

둘째 중앙아시아 국가 간 위신 추구와 인정 행위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현안에서 위신을 추구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웃 국가가 아닌 지역 내 강대국 내지는 역외 행위자들로부터 자국의 행위를 인정받고자 하였다. 특히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 UN과 OSCE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자국의 기여를 강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무대였다.

셋째 강대국을 제외한 지역 국가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앙아시아 5개국은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모두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일관적이고 통일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도모하기보다 지역 내 강대국과의 양자, 다자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였다. 안보 문제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협력하지 못하는 상황은 강대국들이 중앙아시아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유지 혹은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1990년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집단안보조약 체결, 2000년대 테러와의 전쟁 속에서 미국의 진출, 2010년대 중국의 부상과 SCO를 통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이러

한 상황을 드러내는 사례이다. 과거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핵 무기와 핵 폐기물 문제에 대한 경각심과 피해 의식을 공유하며 협력을 추진한 중앙아시아 비핵지대가 중앙아시아 국가 간 협력의 성공 사례라면,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문제는 중앙아시아 국가 간 위협 인식을 공유함에도 협력에 실패한 사례인 셈이다.

본 연구는 외교정책으로써 평화정착 정책, 그리고 국제정치학 연구의 단위로서 지역을 상정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그동안 외교정책으로써 다루어져 왔던 평화정착 정책은 대테러 정책, 규범 외교 등으로 한정되었으며, 갈등으로 비롯되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평화정착 행위 전반을 살피기 위하여 갈등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위해 어떠한 평화정착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두 번째 평화정착 연구에서 그동안 위협 인식은 그 동인으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지구화 이후 대두된 비국가 행위자들에 대한 위협도 정책 결정의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이러한 위협이 초래되는 곳이 약한 국가라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협 인식과 평화정착 행위의 연관성을 규명함으로써 위협 인식과 평화정착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그동안 평화정착의 동인으로서 위신을 상정한 연구는 특정 국가의 선언적 관념과 행위를 연결시키는 것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필자는 위신의 형성을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구조적인 차원에서 위신의 형성을 기존 연구들보다 명징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현안을 특정함으로써 본 연구는 지역과 현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내 국가들의 행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지역 정치의 일면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국제정치학의 분석 단위로 지역을 상정하는 것은 지역 내 구도와 현안, 행위자들의 명확하게 설정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을 깊게 이해하는 강점을 지닌다.

**주요어 :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위신, 위협 인식, 지역정치**

**학 번 : 2018-23472**

본 연구는 2018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현지조사 지원사업 연구비를 받아서 수행되었음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문제제기 ····· 1
제 2 절 기존연구 검토 ····· 7
제 3 절 연구 방법 ····· 14
1. 연구 대상 및 시기 ····· 14
2. 연구 방법 ····· 17
3. 자료의 활용 ····· 19
제 4 절 논문의 구성 ····· 20

제 2 장 평화정착 정책의 동인으로 위협 인식과 위신 추구 ····· 21
제 1 절 평화정착의 이론적 배경과 행위 ····· 21
1. 평화정착의 이론적 배경 ····· 21
(1) 국제정치학에서 평화의 개념 ····· 21
(2) 평화정착의 이론적 배경과 개념 ····· 23
2. 평화정착 행위 ····· 28
제 2 절 위협 인식과 평화정착 정책 ····· 33
1. 위협 인식의 개념과 측정 ····· 33
2. 위협 인식과 평화정착 정책 ····· 34
제 3 절 위신 추구와 평화정착 정책 ····· 36
1. 위신의 정의와 인정을 통한 위신의 형성 ····· 36
2. 위신 추구와 평화정착 정책 ····· 39

제 3 장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아프간 인식과 정책 ····· 44
제 1 절 지역 안보 구도와 아프가니스탄 문제 ····· 44
1. 중앙유라시아 지역 안보의 주요 행위자와 구도 ····· 44
2. 아프가니스탄 내 평화정착의 진행 ····· 50
3. 지역 안보에서 아프가니스탄 문제 ····· 51
제 2 절 우즈베키스탄의 아프간 인식과 정책 ····· 56
1. 우즈베키스탄의 아프가니스탄 문제 인식 ····· 56
2. 우즈베키스탄의 아프간 정책 전개 ····· 59
제 3 절 카자흐스탄의 아프간 인식과 정책 ····· 63
1. 카자흐스탄의 아프가니스탄 문제 인식 ····· 63
2. 카자흐스탄의 아프간 정책 전개 ····· 65
제 4 절 키르기스스탄의 아프간 인식과 정책 ····· 68
1. 키르기스스탄의 아프가니스탄 문제 인식 ····· 68
2. 키르기스스탄의 아프간 정책 전개 ····· 69
제 5 절 타지키스탄 아프간 인식과 정책 ····· 73
1. 타지키스탄의 아프가니스탄 문제 인식 ····· 73
2. 타지키스탄의 아프간 정책 전개 ····· 75
제 6 절 투르크메니스탄의 아프간 인식과 정책 ····· 79
1. 투르크메니스탄의 아프가니스탄 문제 인식 ····· 79
2. 투르크메니스탄의 아프간 정책 전개 ····· 81

제 4 장 위협 인식과 위신, 그리고 아프간 정책 87
제 1 절 위협 인식의 평가와 아프간 정책 ····· 87
1. 위협 인식의 비교 ····· 87
2. 위협 인식과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정책 ····· 95
제 2 절 위신 추구와 아프간 정책 ····· 98

1. 위신 형성의 구조와 위신 추구 행위의 평가 ····· 98
2. 위신과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정책 ····· 101
제 5 장 결론 ····· 104
제 1 절 요약 ····· 104
제 2 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 109
제 3 절 정책적 시사점 ····· 111

참고문헌 ····· 112
Abstract ····· 130

# 표 목 차

[표 1-1]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체계, 경제, 사회적 지표, 아프가니스탄과 접경 여부 비교 ····· 19
[표 2-1] 바르넷 등이 제시한 평화정착을 위한 분야별 행위 구분과 그 설명 ····· 32
[표 2-2] 위협 인식 - 위협 인식의 평가와 평화정착 정책 36
[표 2-3] 베게너가 정리한 위신 이론의 유형 ····· 39
[표 2-4] 위신 추구 행위의 기준과 평화정착 정책 ····· 43
[표 3-1] 미국, 러시아, 중국의 유라시아/중앙아시아 지역정치에 대한 인식과 전략목표 ····· 49
[표 3-2] 중앙아시아 5개국의 주요 안보 문서와 엘리트들의 발언에서 나타난 아프간 인식 ····· 84
[표 3-3] 중앙아시아 5개국의 분야별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정책 ····· 86
[표 4-1] 베게너가 정리한 위신 이론의 유형 ····· 98
[표 4-2]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구도 내 행위자들의 인식과 전략 ····· 100
[표 5-1] 위협 인식-위신 추구와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정책 105

# 그 림 목 차

[그림 1-1] 중앙아시아와 아프가니스탄 지도 ····· 4
[그림 1-2]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통령 재임 기간(2020년 8월 현재) ····· 16
[그림 2-1] 그림 2-1. UN 다각 평화유지작전의 핵심 사업 28

[그림 3-1] 2010년, 2014년, 2016년 아프가니스탄 내 정부군과 탈레반 및 이슬람 군사 단체가 장악한 지역 ····· 53
[그림 3-2] 2019년 아프가니스탄 내 아편 재배 지역과 2015년 세계 헤로인 생산 및 유통 경로 ····· 54
[그림 3-3] 2015년 아프가니스탄 난민 이주 경로 ····· 55
[그림 3-4] 2018년 11월 27일 기준 CASA-1000 프로젝트 진행 현황 ····· 72

# 보존용 학위논문 정오표

| 페이지 | 정정 전 | 정정 후 |
|---|---|---|
| p.i | 과거 종교적 극단주의로 역사적 트라우마를 | 과거 종교적 극단주의로 인한 테러와 내전을 경험한 |
| p.ii | 한편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에서 | 한편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현안에서 |
| p.ii | 공유하고 있지만 EU와 같은 | 공유하고 있지만 NATO와 같은 |
| p.1 | 문제를 야기하였다, | 문제를 야기하였다. |
| p.1 | 규정하였따. | 규정하였다. |
| p.2 |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사이트, "우즈베키스탄 외교정책의 목적과 목표들(Цели и задач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курс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아카이빙: 2013년 10월 19일자) https://web.archive.org/web/20131019045817/http://mfa.uz/rus/mej_sotr/vneshnyaya_politika/ (검색일: 2021.03.30.): "영구 중립국 투르크메니스탄의 군사 독트린(ВОЕННАЯ ДОКТРИНА НЕЗАВИСИМОГО, ПОСТОЯННО НЕЙТРАЛЬНОГО ТУРКМЕНИСТАНА)"(2009년 1월 21일 승인) http://www.turkmenbusiness.org/node/126 (검색일: 2021.03.30.) "타지키스탄 공화국의 외교정책 개념(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2015년 1월 27일 승인) https://mfa.tj/ru/main/view/988/kontseptsiya-vneshnei-politiki-respubliki-tadzhikistan (검색일: 2021.03.30.) "2014-2020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외교정책 개념(Foreign Policy Concept for 2014 – 2020 Republic of Kazakhstan)" https://www.gov.kz/memleket/entities/mfa/documents/details/397?lang=en (검색일: 2021.03.30.) "키르기즈 공화국 외교정책 개념(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2007년 1월 10일 승인)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4569 (검색일: 2020.03.30.) "키르기즈 공화국 외교정책 개념(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2019년 3월 11일 승인)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430045 (검색일: 2021.03.30.) | Цели и задач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курс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우즈베키스탄 외교정책의 목적과 목표들) (아카이빙: 2013년 10월 19일자) https://web.archive.org/web/20131019045817/http://mfa.uz/rus/mej_sotr/vneshnyaya_politika/ (검색일: 2021.03.30.): ВОЕННАЯ ДОКТРИНА НЕЗАВИСИМОГО, ПОСТОЯННО НЕЙТРАЛЬНОГО ТУРКМЕНИСТАНА (영구 중립국 투르크메니스탄의 군사 독트린)(2009년 1월 21일 승인) http://www.turkmenbusiness.org/node/126 (검색일: 2021.03.30.)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 (2015년 1월 27일 승인) https://mfa.tj/ru/main/view/988/kontseptsiya-vneshnei-politiki-respubliki-tadzhikistan (검색일: 2021.03.30.) Foreign Policy Concept for 2014 – 2020 Republic of Kazakhstan https://www.gov.kz/memleket/entities/mfa/documents/details/397?lang=en (검색일: 2021.03.30.)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 (키르기즈 공화국 외교정책 개념) (2007년 1월 10일 승인)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4569 (검색일: 2020.03.30.)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

| | | |
|---|---|---|
| | | (키르기즈 공화국 외교정책 개념) (2019년 3월 11일 승인)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430045 (검색일: 2021.03.30.) |
| p.5 | 또한 정치 분야에서 | 정치 분야에서 |
| p.5 |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타지키스탄이 연결되는 철도 건설에 |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타지키스탄이 연결되는 TAT 철도 건설에 |
| p.9 | 위신보다 가시적인 물리적인 힘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 위신보다 가시적인 군사력, 경제력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
| p.10 | 간주한다. . | 간주한다. |
| p.10 | 높힐 수 있는 | 높일 수 있는 |
| p.10 | 주요 외교정책이 평화정착임을 강조하고 있다. | 주요 외교정책이 주로 평화정착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
| p.10 | 지위 추구(Status Seeking)라고 | 지위 추구(Status Seeking)로 |
| p.12 | 명제를 뒷받침하거나 | 명제를 지지 혹은 부정하거나 |
| p.13 | 절연국 | 분절국(Insulator) |
| p.13 | 분절국(Insulator) | 분절국 |
| p.14 | 아직 아프가니스탄 이를 둘러싼 | 아직 아프가니스탄과 이를 둘러싼 |
| p.15 | 사망하였다. | 사망하였으며, |
| p.20 | 방식을 정리한다. | 방식을 정리한 뒤 |
| p.24 | 비판주의자 | 비판론자 |
| p.24 | 도일 | 도일(Doyle) |
| p.27 | 종교적 극단주의의 억제 | 종교적 극단주의 |
| p.27 | p.88-89. | 88-89쪽. |
| p.29 | UN 회원국 팀과 공여자는 | UN 회원국, 특정 집단과 공여자는 |
| p.35 | 개념을 확대되어 | 개념이 확대되어 |
| p.35 | 평화 정책 행위 구분에 | 평화정착 행위 구분을 |
| p.37 | 분류에 따라 주권국가의 지위를 인정하고 | 분류에 따라 주권국가의 지위를 인정하는 |
| p.38 | 정량적인 평가로 형성된 위상은 | 정성적인 평가로 형성된 위상은 |
| p.45 | ISAF와 탈레반을 | ISAF와 함께 탈레반을 |
| p.49 | (서울: 진인진) 2018 | (서울: 진인진) 2017 |
| p.56 | 국제관계 구조의 변화로 긴장과 갈등이 등장하며 | 국제관계 구조의 변화로 긴장과 갈등이 야기되며 |
| p.56 | 힘의 우위에 인하여 | 힘의 우위로 |
| p.63 | 외부 위협으로 포함하였다. | 위협으로 포함된다. |
| p.70 | 연구 대상 시기인 2010~2016년 이전 키르기스스탄은 | 2010년 이전 키르기스스탄은 |

| | | |
|---|---|---|
| p.71 | 투입액은 약 11억 6,000만 달러가 투입되었다. | 약 11억 6,000만 달러가 투입되었다. |
| p.73 | 타지키스탄 중앙아시아 국가 중 아프가니스탄과 |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아프가니스탄과 |
| p.73 | 외교정책개념(2015)로 | 외교정책개념(2015)으로 |
| p.77 | 양자, 다자 모든 차원에서 | 양자, 다자 형식에서 |
| p.88 | 1885년 군사 독트린 | 1995년 군사 독트린 |
| p.90 | 카자흐스탄을 거쳐 러시아와 유럽으로 이동하는 이동로 중 하나로 알려졌다. | 카자흐스탄을 거쳐 러시아와 유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 p.92 | 바닥샨 | 바다흐샨 |
| p.93 | 내전을 세속주의자와 이슬람주의자 간 내전을 겪으면서 | 세속주의자와 이슬람주의자 간 내전을 겪으면서 |
| p.93 | 『슬라브학보』 제35권 (4)호, (1994), pp.247-279. | 『슬라브학보』 제35권 (4)호, (2020), pp.247-279. |
| p.94 | 부합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 부합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
| p.94 | 아프가니스탄 문제와 이에 따른 종교적 극단주의 | 아프가니스탄 문제와 종교적 극단주의 |
| p.95 | 국경 부근에서의 부장 갈등 | 국경 부근에서의 무장 갈등 |
| p.95 | 위협으로 거론되었다. | 위협으로 규정하였다. |
| p.95 | 탈퇴하는 하였으며, | 탈퇴하였으며, |
| p.96 | 아프가니스탄 문제로부터 가장 취약한 타지키스탄은 | 아프가니스탄 문제로부터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타지키스탄은 |
| p.98 |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 선행되어야만 한다. |
| p.98 | 중앙유라시아의 안보 구도를 계층화된 사회로 상정해보면 | 중앙유라시아의 안보 구도를 계층화된 사회로 상정할 수 있으며 |
| p.99 | 길라디의 전제 | 길라디의 주장 |
| p.99 | 유사한 점을 보이며 | 유사한 점을 보이나 |
| p.100 | 신범식, 2018 | 신범식, 2017 |
| p.112~ | 참고문헌 변경 전 | 참고문헌 변경 후 |

**참고문헌 변경 전**

# 참 고 문 헌

## – 저서

신범식 등. 『유라시아의 심장 다시 뛰다! : 중앙아시아 지역의 형성과 역동성』 서울: 진인진,

2017.
신범식 등. 『중국의 부상과 중앙아시아』 서울: 진인진, 2015.
소스타인 베블런 저. 박홍규 역. 『유한계급론』 서울: 문예출판사, 2019.
Allan, Pierre & Keller, Alexis. *What is a Just Pea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Baylis, J. and Smith, S.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Benjamin S. Day & Valerie M. Hudson. Foreign Policy Analysis – Classic and Contemporary Theory, Lanham: Rowman&Littlefield. 2020.
Buzan, Berry & Waever. Ole. Regions and Powers –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Security, New York, N. Y.: Cambridge. 2003.
Chandler, David. Peacebuilding – The Twenty Years' Crisis, 1997-2017. Springer, 2017.
Galtung, Johan, Fischer, Dietrich. *Pioneer of Peace Research.* Springer. 2013.
Gilady, Lilach. The Price of Presti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8
Ginty, Roger M. ed. Routledge Handbook of Peacebuilding. Routledge, 2013.
Ginty, Roger M. ed., International Peacebuilding and Local Resistance - Hybrid Forms of Peace. Palgrave Macmillan, 2011.
Hobbes, Thomas., Leviathan, ed. A. R. Waller Cambridge; Cmabrdige University Press, 1904.
Huddy, Leonie. Sears, David O. & Levy, Jack S. ed.,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Oxford, 2013.
Jean-Frédéric Morin & Janathan Paquin. Foreign Policy Analysis – A Toolbox, Palgrave Macmillan. 2018.
Jeong, Ho-Won. ed., Approches to Peacebuilding. Palgrave Macmillan, 2002.
Kaarbo, Juliet. Lantis, Jeffrey S. & Beasley, Ryan K. Foreign Policy in Comparative Perspective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fluences on State Behavior, SAGE. 2013.
Kassenova, Nargis. "Kazakhstan's Policy toward Afghanistan – Context, Drivers, and Outcomes," in Amin Saikal & Kirill Nourzhanov(ed.), Afghanistan and Its Neighbors After The Nato Withrawal, London; Lexington Books. 2016, pp.97-110.
Keohane, Robert & Nye, Joseph. Power and Interdependence, Longman, 2011, 4th ed.
Khalid, Adeeb. Islam after Commun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4.
Lee, Johnathan. Afghanistan – A History from 1260 To The Present. Glassgow; Reaktion Books, 2018.
Morgenthau, Hans & Thompson, Kenneth. "The Struggle for Power: Policy of Prestige," Politics Among Nations. Beijing: Peking University Press, 1997.
Resende, Erica. & Budryte, Dovile. Memory and Trauma in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Routledge, 2014.
Rousseau, David. Identifying Threats and Threatening Identities -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sm and Liberalism. Standford; Standford University Press, 2006.
Rubin, Barneet. Afghanistan from the Cold War through the War on Terror. Oxford; Oxford Press, 2013.
Rytovuori-Apunen, Helena ed., The Regional Security Puzzle around Afghanistan. Opladen: Babara Budrich Publishers, 2016.
Oliver, Richmond. ed. The Palgrave Handbook of Disciplinary and Regional Approaches to Peace. Palgrave Macmillan, 2016.
Weber, Max. Tribe, Keith trans. Economy and Socie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9.
Wendt, Alexander.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 논문

김석수, 「일본 정부개발원조 (ODA) 와 국익의 연계」, 『문화와 정치』 제3권 제1호, 2016, 83-108쪽.
Adler, Emanuel. "Imagined (Security) Communities: Cognitive Regions in Interna- tional Relations."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26-2, (1997), pp.249 - 277.
Allison, Lincoln. & & Monnington, Terry. "Sport, Prestig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Government and Opposition 37-1, Winter 2002, pp.106-134.
Aris, Stephen.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Tackling the Three Evils'. A Regional Response

to Non-Traditional Security Challenges or an Anti-Western Bloc?." Europe-Asia Studies, 61-3, May 2009, pp.457-482

Bachleitner, Kathrin. "Diplomacy with Memory: How the Past Is Employed for Future Foreign Policy." *Foreign Policy Analysis* 15-4, (2019), pp.492-508.

Baizakova, Kuralai.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s Role in Countering Threats and Challenges to Central Asian Regional Security," Russian Politics & Law, 51-1, 2013, pp.59-79.

Baldiwn, David. "Thinking about threat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15, (1971), pp.71-78.

Barnett, Michael, Kim, Hunjoon, O'Donnell, Madalene & Sitea Laura. "Peacebuilding: What is in a Name?," Global Governance 13-1 (January - March 2007), pp. 35-58.

Bartelson, Jens. "Three concepts of recognition." *International Theory*, 5-1, (2013), pp.107-129.

Billon, Philippe L. "Corrupting Peace? Peacebuilding and Post-conflict Corruption." International Peacekeeping, 15-3, 2008, pp.344-361

Claire Q. Smith, Lars Waldorf, Rajesh Venugopal & Gerard McCarthy. "Illiberal peace-building in Asia: a comparative overview." *Conflict, Security & Development*, 20-1, (2020), pp.1-14

Doyle, Michael. & Sambanis, Nicholas. "International Peacebuilding: A Theoretcial and Quantitive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4-4, (December, 2000), pp.779-801.

Doyle, Michael. "Kant, Liberal Legacies, and Foreign Affairs." Philosophy & Public Affairs, 12-3, (Summer, 1983), pp.205-235.

Dubovtsev, Georgy. & Galymzhanuly Erlan. "Forecast on the Military - Political Situation Emerging in the World and the Central Asian Region,"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12-1, 2011, pp.42 - 43.

Duque, Marina. "Recognizing International Status: A Relational Approach."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62, (2018), pp.577-592.

Fatic, Aleksandar. "Conventional and unconventional - 'hard' and 'soft' security: the distinction," Journal for Labour and Social Affairs in Eastern Europe, 5(3), (October, 2002), pp.93-94.

Jakobsen, Peter. Jakobsen, Viggo. Ringsmose, Jens. & Saxi, Hakon Lunde. "Prestinge-seeking small states: Danish and Norwegian military contributions to US-led operation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ecurity 3-2, pp.256-277.

John H. Herz, "Idealist Internationalism and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2-2 (Jan, 1950), pp.157-180

Jonathan Mercer. 2018. "The Illusion of International Prestige," International Security 41(4), pp.133-168.

Karlsrud, John. "From Liberal Peacebuilding to Stabilization and Counterterrorism." International Peacekeeping, 26-1, 2019. pp.1-21.

Keohane, Robert. "Twenty Years of Institutional Liberalism." International Relations 26-2, 2012, pp.125-138.

Kristian Stokke, "Peace-building as Small State Foreign Policy: Norway's Peace Engagement in a Changing International Context," International Studies, 49-3&4, 2012, pp.207-301.

Lee, Ji-Eun. "Foreign Policy Formation of Authoritarian States in Central Asia Since 1991 Non-Institutional Domestic Factors in Kazakhstan and Uzbekistan," 『국제정치논총』 제50집 (3)호, 2010, pp.33-71

Lewis. David, Heathershaw, John. and Megoran, Nick. "Illiberal peace? Authoritarian modes of conflict management," *Cooperation and Conflict*, 53-4, (2018), pp.486-506.

Maksut, Kuralay. "Central Asia, Afghanistan and International Order: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Journal of Global Policy and Governance, 1, 2013, pp.203-215.

Musioł, Marek. "Post-Soviet Central Asia as a Unique Regional Security Complex." The Polish Quarterly of International Affairs 4, 2015, pp.59-78.

Newman, Edward. "Peacebuilding as Security in 'Failing' and Conflict-Prone States." Journal of Intervention and Statebuilding, 4-3, pp.305-322.

Dafoe, Allan. Renshon, Jonathan. and Huth, Paul. "Reputation and Status as Motives for War."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7, (2014), p.371-393.

Roy, Sing. "Role of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in Afghanistan: Scope and Limitations," Strategic Analysis, 34-4, pp.545-561

Walt, Stephan. "Alliance Formation and the Balance of World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9-4, (Spring, 1985), pp.3-43.

Wegener, Bernd. “Concepts and Measurement of Prestige.” Annual Review of Sociology, 18, 1992, pp.253-280.
Wendt, Alexander.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2 (Spring, 1992), pp.391-425.
Young, Michael D. & Schafer, Mark, “Is There Method in Our Madness? Ways of Assessing Cogni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Mersho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42-1, (May 1998), pp. 63-96
Эргашев, Бахтияр. “Политика Узбекистана в отношении Афганистана в контексте обеспечения ре г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Россия и мусульманский мир, 2014 no.5, pp.90-96.

## - 인터넷 자료

“Tajik and Afghan officials inaugurate Vanj bridge built by AKDN as part of Cross-border Initiatives,” AKDN, 2011.08.16. (https://www.akdn.org/press-release/tajik-and-afghan-officials-inaugurate-vanj-bridge-built-akdn-part-cross-border) (검색일: 2021.05.08.)
The White House President Barrak Obama, National Security Strategy, May 2010.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sites/default/files/rss_viewer/national_security_strategy.pdf (검색일: 2021.05.04.)
카자흐스탄 정부 사이트. “2014-2020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외교정책 개념(Foreign Policy Concept for 2014 - 2020 Republic of Kazakhstan)”
““U.S. vacates base in Central Asia as Russia's clout rises,” Reuters, 2014.06.03. https://www.reuters.com/article/us-kyrgyzstan-usa-manas-idUSKBN0EE1LH20140603 (검색일: 2021.05.06.)
“2010 OSCE Summit in Astana,” OSCE, 2010.12.02. https://www.osce.org/event/summit_2010 (검색일: 2021.05.06.)
“2050 Strategy address,” Kazakhstan 2050 Strategy. https://kazakhstan2050.com/2050-address (검색일: 2021.05.05.)
“22nd Anniversary of the Uzbek Independence,” Seoul City, 2013.09.04. http://www.seoulcit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957 (검색일: 2021.05.04.)
“About the establishment of the Kazakhst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KazAID,” Embass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to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https://www.gov.kz/memleket/entities/mfa-islamabad/press/news/details/148436?lang=en) (검색일: 2021.05.06.)
“Address by the President of Turkmenistan at the 65th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Turmenistan.ru, 2010.09.22. http://www.turkmenistan.ru/en/node/14143 (검색일: 2021.05.10.)
“Advantage United States In This Year's Meeting With Turkmen Officials,” RadioFreeEurope/RadioLiberty, 2015.10.14. https://www.rferl.org/a/qishloq-ovozi-turkmenisan-us-meeting-everything-different/27306656.html (검색일: 2021.05.10.)
“Afghan Part of CASA-1000 Project 30% Completed,” TOLOnews, 2021.03.28. https://tolonews.com/business-171036 (검색일: 2021.05.09.)
“Afghan, Tajik, Turkmen Presidents Open New Railway Construction,” RadioFreeEurope/RadioLiberty, 2013.06.05. https://www.rferl.org/a/afghanistan-turkmenistan-tajikistan-railqay-construction/25007658.html (검색일: 2021.05.09.)
“Afghanistan and Turkmenistan open Lapis Lazuli railway,” Railway Gazette, 2016.11.28. https://www.railwaygazette.com/infrastructure/afghanistan-and-turkmenistan-open-lapis-lazuli-railway/43586.article (검색일: 2021.05.10.)
“Afghanistan earns $400M transit fee on TAPI gas pipeline,” The Khaama Press, 2012.04.18. https://www.khaama.com/afghanistan-earns-400m-transit-fee-on-tapi-gas-pipeline-747/ (검색일: 2021.05.10.)
“Afghanistan to profit $1 billion annually for transit from TAPI pipeline,” The Khaama Press, 2016.12.07. https://www.khaama.com/afghanistan-to-profit-1-billion-annually-for-transit-from-tapi-pipeline-02436/ (검색일: 2021.05.10.)
“Afghanistan, China, Pakistan, Tajikistan Deepen "Anti-Terror" Ties,” eurasiaent, 2016.08.04.

https://eurasianet.org/afghanistan-china-pakistan-tajikistan-deepen-anti-terror-ties (검색일: 2021.05.08.)
"Al-Qaeda training camp uncovered in Tajikistan," Telegraph, 2010.10.19. https://www.telegraph.co.uk/news/worldnews/asia/afghanistan/8073451/Al-Qaeda-training-camp-uncovered-in-Tajikistan.html (검색일: 2021.05.07.)
"CASA-1000 Power Project Inaugurated In Tajikistan," RadioFreeEurope/RadioLiberty, 2016.05.12. https://www.rferl.org/a/tajikistan-afghanistan-kygyzstan-pakistan-casa-power-project-inaugurated/27729921.html (검색일: 2021.05.09.)
"Central Asian countries cite instability in Afghanistan as serious threat," UN News, 2013.09.27. https://news.un.org/en/story/2013/09/451332 (검색일: 2021.05.06.)
"China Holds Anti-Terror Exercises on Afghanistan-Tajikistan Border," eurasianet, 2016.10.24. https://eurasianet.org/china-holds-anti-terror-exercises-afghanistan-tajikistan-border (검색일: 2021.05.09.)
"China joins Afghanistan, Pakistan, Tajikistan in security alliance," Reuters, 2016.08.04. https://www.reuters.com/article/us-china-security-idUSKCN10F1A6 (검색일: 2021.05.04.)
"China To Form SCO Contact Group For Afghan Peace," Tolo News, 2019.02.22.. (검색일: 2019.10.15.) (https://tolonews.com/afghanistan/china%C2%A0-form%C2%A0sco-contact-group%C2%A0-afghan-peace)
"CSTO Accepts Uzbekistan's Withdrawal," RadioFreeEurope/RadioLiberty, 2012.12.19. https://www.rferl.org/a/csto-russia-afghanistan/24802767.html (검색일: 2021.05.03.)
"CSTO Promises Support, But No Russian Troops, For Tajikistan's Border," eurasiaent, 2013.09.24. https://eurasianet.org/csto-promises-support-but-no-russian-troops-for-tajikistans-border (검색일: 2021.05.06.):
"CSTO Promises Support, But No Russian Troops, For Tajikistan's Border," eurasiaent, 2013.09.24. https://eurasianet.org/csto-promises-support-but-no-russian-troops-for-tajikistans-border (검색일: 2021.05.06.):
"CSTO Promises Support, But No Russian Troops, For Tajikistan's Border," eurasianet, 2013.09.24. https://eurasianet.org/csto-promises-support-but-no-russian-troops-for-tajikistans-border (검색일: 2021.05.08.)
"CSTO Troops Drill Against 700-Strong Taliban Invasion Of Tajikistan," eurasianet, https://eurasianet.org/csto-troops-drill-against-700-strong-taliban-invasion-of-tajikistan (검색일: 2021.05.08.)
"Fighting terrorism and drug trafficking are key priority's for Tajikistan, President tells UN Assembly," UN News, 2015.09.29. https://news.un.org/en/story/2015/09/510572-fighting-terrorism-and-drug-trafficking-are-key-prioritys-tajikistan-president (검색일: 2021.05.08.)
"Germany Formally Closes Uzbekistan Air Base," eurasianet, 2015.12.16. https://eurasianet.org/germany-formally-closes-uzbekistan-air-base (검색일: 2021.05.04.)
"Holding summit, protracted conflicts, transport and tolerance among priorities for Kazakh OSCE Chairmanship," OSCE, 2010.01.15. https://www.osce.org/cio/51821 (검색일: 2021.05.06.)
"Joint Tajik-Afghan Training on Humanitarian Border Management," IOM, 2013.09.27. https://weblog.iom.int/tajikistan/joint-tajik-afghan-training-humanitarian-border-management) (검색일: 2021.05.08.
"Karimov Calls For Russia's Role In Peace Process," TOLOnews, 2016.04.27. https://tolonews.com/afghanistan/karimov-calls-russias-role-peace-process (검색일: 2021.05.05.)
"Kazakhstan Offers Token Troop Presence For Afghanistan," RadioFreeEurope/RadioLiberty, 2011.05.24. https://www.rferl.org/a/kazakhstan_afghanistan_troops/24194820.html (검색일: 2021.05.06.)
"Kyrgyz government dispatches humanitarian aid to ethnic Kyrgyz living in Tajikistan, Afghanistan," AKIpress, 2020.06.22. https://akipress.com/news:643960:Kyrgyz_government_dispatches_humanitarian_aid_to_ethnic_Kyrgyz_living_in_Tajikistan,_Afghanistan/ (검색일: 2021.05.06.)
"Kyrgyz government to dispatch humanitarian aid to ethnic Kyrgyz in Afghanistan," AKIpress, 2013.10.29. (https://akipress.com/news:530122:Kyrgyz_government_to_dispatch_humanitarian_aid_to_ethnic_Kyrgyz_in_Afghanistan/) (검색일: 2021.05.08.)
"Kyrgyz official warns UN Assembly of international dangers from unstable Afghanistan," UN News, 2014.09.29. https://news.un.org/en/story/2014/09/479752-kyrgyz-official-warns-un-assembly-international-dangers-unstable-afghanistan (검색일: 2021.05.06.)
"OSCE trains Turkmenistan border guards in border management and threat assessment," OSCE, 2015.04.29. https://www.osce.org/ashgabat/154276 (검색일: 2021.05.10.)

"Russia And Allies Practice Fighting ISIS In Tajikistan," eurasiaent, 2016.04.25. https://eurasianet.org/russia-and-allies-practice-fighting-isis-in-tajikistan (검색일: 2016.05.06.)
"Russia And Allies Practice Fighting ISIS In Tajikistan," eurasiaent, 2016.04.25. https://eurasianet.org/russia-and-allies-practice-fighting-isis-in-tajikistan (검색일: 2016.05.06.)
"Russia And Allies Practice Fighting ISIS In Tajikistan," eurasianet, 2016.04.25. https://eurasianet.org/russia-and-allies-practice-fighting-isis-in-tajikistan (검색일: 2021.05.08.)
"Russia and Tajikistan Stage Large Antiterrorism Drills," The Diplomat, 2016.03.12. https://thediplomat.com/2016/03/russia-and-tajikistan-stage-large-antiterrorism-drills/ (검색일: 2021.05.09.)
"Russia, Tajikistan Hold Huge Military Drills Near Afghan Border," Military News, 2016.03.15. https://www.military.com/daily-news/2016/03/15/russia-tajikistan-hold-huge-military-drills-near-afghan-border.html (검색일: 2021.05.09.)
"Security Council: European security block details priorities for collaboration with UN," UN News, 2013.05.07. https://news.un.org/en/story/2013/05/439082-security-council-european-security-block-details-priorities-collaboration-un (검색일: 2021.05.03.)
"Tajik border guards and Afghan border police complete OSCE Patrol Management and Analysis training course," OSCE, 2014.10.14. https://www.osce.org/tajikistan/126208 (검색일: 2021.05.08.)
"Tajik Power Line To Afghanistan Inaugurated," RadioFreeEurope/RadioLiberty, 2011.10.27. https://www.rferl.org/a/afghanistan_tajikistan_power_line_inaugurated/24373587.html (검색일: 2021.05.09.)
"Tajikistan, Kyrgyzstan, Afghanistan, Pakistan inaugurated CASA-1000 project," The AsiaN, 2016.05.13. http://www.theasian.asia/archives/94555 (검색일: 2021.05.06.)
"TAP500 Transmits Electricity from Turkmenistan to Pakistan through Afghanistan," The Embassy of Afghanistan in Ashgabat, 2016.04.01. http://afghanembassyturkmenistan.com/tap500-transmits-electricity-from-turkmenistan-to-pakistan-through-afghanistan/ (검색일: 2021.05.09.)
"TAPI Pipeline Company established by member countries," Business Standard, 2014.11.15. (https://www.business-standard.com/content/b2b-manufacturing-industry/tapi-pipeline-company-established-by-member-countries-114111500634_1.html) (검색일: 2021.05.10.)
"The Implications of Tightening Russia-Uzbekistan Ties," The Diplomat, 2016.05.11. https://thediplomat.com/2016/05/the-implications-of-tightening-russia-uzbekistan-ties/ (검색일: 2021.05.05.)
"Thousands from Central Asia joining 'Islamic State." Deutsche Welle, 2015.01.21. https://www.dw.com/en/thousands-from-central-asia-joining-islamic-state-report/a-18203785 (검색일: 2021.04.30.):
"Turkmenistan Seeks Military Aid From Russia," eurasianet, 2016.06.09. https://eurasianet.org/turkmenistan-seeks-military-aid-russia (검색일: 2021.05.10.)
"Turkmenistan's New Afghan Border Policy," RadioFreeEurope/RadioLiberty, 2014.10.10. https://www.rferl.org/a/turkmenistan-afghanistan-border-policy/26631200.html (검색일: 2021.05.10.)
"Turkmenistan-Afghanistan-Tajikistan railway construction underway," Azernews, 2015.07.02. https://www.azernews.az/region/84846.html (검색일: 2021.05.09.)
"U.S. Suspends Ban On Military Assistance To Uzbekistan," RadioFreeEurope/RadioLiberty, 2012.02.01. https://www.rferl.org/a/uzbekistan_united_states_military_assistance/24470588.html (검색일: 2021.05.04.)
"UNDP, Kazakhstan and JICA to Jointly Assist Afghanistan," 2016.08.20. https://astanatimes.com/2016/08/undp-kazakhstan-and-jica-to-jointly-assist-afghanistan/ (검색일: 2021.05.06.)
"Uzbek president asks Putin to help fight radical Islam in Central Asia," Reuters, 2014.12.11. https://www.reuters.com/article/us-uzbekistan-russia-islamists-idUSKBN0JO1TW20141210 (검색일: 2021.05.05.)
"Uzbekistan Setting Up Checkpoints On New Silk Road," eurasianet, 2013.06.19. https://eurasianet.org/uzbekistan-setting-up-checkpoints-on-new-silk-road (검색일: 2021.05.04.)
"Uzbekistan starts building railroad to Mazar-e-Sharif," eurasianet, 2010.05.29. https://eurasianet.org/uzbekistan-starts-building-railroad-to-mazar-e-sharif (검색일: 2021.05.06.)
"Uzbekistan's new president closes Jaslyk prison camp," The Economist, 2019.08.08. https://www.economist.com/asia/2019/08/08/uzbekistans-new-president-closes-jaslyk-prison-camp (검색일: 2021.08.01.)
"Uzbekistan-Afghanistan Railway Starts Operations," eurasianet, 2011.08.24. https://eurasianet.org/uzbekistan-afghanistan-railway-starts-operations (검색일: 2021.05.06.)

"Узбекистан увеличил поставки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в Афганистан," regnum, 2015.12.11. https://regnum.ru/news/economy/2033520.html (검색일: 2021.05.06.)
About CASA-1000 https://www.casa-1000.org/about-casa-1000/ (검색일: 2021.05.06.)
About Us, Heart of Asia – Instanbul Process. https://www.hoa.gov.af/about-us/about-hoa-ip.html (검색일: 2021.05.04.)
Almohamad, Selman. Kirchschlager, Markus. & Kurtenbach, Sabine. Peacebuilding after War and Violence – Neighbourhood Matters, GiGa Working Papers, December 2020.
"Kyrgyzstan H.E. Mr. Ruslan Kazakbaev,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UN, 2010.09.27. https://www.un.org/en/ga/65/meetings/generaldebate/View/SpeechView/tabid/85/smid/411/ArticleID/237/reftab/233/t/Kyrgyzstan/Default.html (검색일: 2021.05.06.)
Andisha, Nasir. Neutrality in Afghanistan's Foreign Policy, Special Report 360,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March 2015.
Barry O'Neil, "Nuclear Weapons and National Prestige," Cowles Foundation Discussion Paper No. 1560, 2006.
Brattvoll, Joakim. Uzbekistan's Ambiguous polices on Afghanistan, Prio Policy Brief 01, 2016.
Dyner, Anna, Legieć, Arkadiusz. & Rękawek, Kacper. Ready to Go? ISIS and Its Presumed Expansion into Central Asia, PISM Policy Paper 19(212), June 2015. https://www.files.ethz.ch/isn/192428/PISM%20Policy%20Paper%20no%2019%20(121).pdf (검색일: 2021.04.30.)
Farooq, Umar & Khawaja, Asma S.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Geo-political Implications, Regional Constraints and Benefits of CPEC." South Asian Studies, 34-2, July-December, 2019, pp.599-610.
Gollob , Sam. & O'Hanlon, Michael E. Afghanistan Index – Tracking variables of reconstruction and security in post-9/11 Afghanistan. Foreign Policy at Brookings, August 2020.
https://web.archive.org/web/20131019045817/http://mfa.uz/rus/mej_sotr/vneshnyaya_politika/ (검색일: 2021.03.30.);
https://www.gov.kz/memleket/entities/mfa/documents/details/397?lang=en (검색일: 2021.03.30.)
Indeo, Fabio. Central Asia Beyond 2014: Building Regional Security Architecture, ISPI, 2014.
Kassenova, Nargis. Relations Between Afghanistan and Central Asian States After 2014,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14.
Marat, Erica. "Kyrgyzstan: A Parliamentary System Based on Inter-Elite Consensus," Demokratizatsiya 20-4, (Fall 2012), pp.325-344.
Markedonov, Sergey. "Uzbekistan: The End of a Multi-vector Foreign Policy?."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2012.09.10. https://www.csis.org/analysis/uzbekistan-end-multi-vector-foreign-policy (검색일: 2021.05.04.)
McDermott, Roger. Kazkahstan's 2011 Military Decotrine: Reassessing Reg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The Foreign Military Studies Office, 2012
n UN address, Kyrgyzstan pledges full commitment to combat terrorism," UN News, 2015.10.02. https://news.un.org/en/story/2015/10/511182-un-address-kyrgyzstan-pledges-full-commitment-combat-terrorism (검색일: 2021.05.06.)
On national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Law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dated January 6, 2012 No. 527-IV. Adilet ( https://adilet.zan.kz/eng/docs/Z1200000527) (검색일: 2021.05.06.)
OSCE 사이트, EU Strategy on Afghanistan, 2018.04.16. https://eeas.europa.eu/sites/default/files/eu_final_booklet_revised_4.pdf (검색일: 2021.05.03.)
Osman, Borhan. & Gopal, Anand. Taliban Views On A Future State, Center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2016.
Panda, Ankit. "Afghanistan: The Next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Member?," The Diplomat, 2015.10.10.(검색일: 2019.10.15.) ( https://thediplomat.com/2015/10/afghanistan-the-next-shanghai-cooperation-organization-member/)
Peyrouse, Sebastien, "Drug Trafficking in Tajikistan: A very deep but not incurable evil."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2018.03.01. ( https://www.georgetownjournalofinternationalaffairs.org/online-edition/2018/3/1/drug-trafficking-in-tajikistan-a-very-deep-but-not-incurable-evil)
Peyrouse, Sébastien, Battle on Top of the World: Rising Tensions in Tajikistan's Pamir Region, German Marshall Fund of the United States, 2012.
Pikulina, Maria. Uzbekistan in the Mirror of Military Security: A Historical Preface to Current Events, Conlict Studies Research Centre, November, 1999.
Sarukhanyan, Yuriy. "Afghan Traditions of the Uzbek Foreign Policy," Central Asian Bureau for

Analystical Reporting, 2019.07.01. https://cabar.asia/en/afghan-traditions-of-the-uzbek-foreign-policy (검색일: 2021.05.06.)
Shinn, James & Dobbins, James. Afghan Peace Talks - A Primer, Rand Cooperation, 2011.
Starr, Frederick. A 'Greater Cetnral Asia Partnership' for Afghanistan and Its Neighbors, Silk Road Paper, March 2005,
STATEMENT BY HIS EXCELLENCY NURSULTAN NAZARBAYEV,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AT THE 2010 OSCE SUMMIT, OSCE, 2010.12.01. https://www.osce.org/files/f/documents/8/7/73866.pdf (검색일: 2021.05.06.)
STATEMENT BY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HIS EXCELLENCY EMOMALI RAHMON AT THE OSCE SUMMIT, OSCE, 2010.12.02.
Strategic Planning in Mine Action Programmes Tajikistan, Geneva International Centre for Humanitarian Demining, 2013, pp.6-13: "Visit of Afghan demining experts to Tajikistan," ITF, 2012.11.07. https://www.itf.si/news/visit-of-afghan-demining-experts-to-tajikistan (검색일: 2021.05.09.)
Tajikistan to triple electricity export to Afghanistan," Afghan Voice Agency, 2013.04.04. https://avapress.com/en/59133/Tajikistan-to-triple-electricity-export-to-Afghanistan) (검색일: 2021.05.09.)
Tajikistan, Afghanistan Pamiri Villages Joined by Power Line," eurasianet, 2016.05.31. https://eurasianet.org/tajikistan-afghanistan-pamiri-villages-joined-power-line (검색일: 2021.05.09.)
The Institute of Internatinoal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2017.
The White House, "Joint Statement by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Karzai," 2013.01.11.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13/01/11/joint-statement-president-obama-and-president-karzai (검색일: 2021.05.03.)
Tolipov, Farkhod, "Pluses and minuses of the C5+1 format," The Central Asia-Caucasus Analyst, 2015.11.13. https://www.cacianalyst.org/publications/analytical-articles/item/13300-pluses-and-minuses-of-the-c5%201-format.html (검색일: 2021.05.03.)
Turkmenbusiness, 「영구 중립국 투르크메니스탄의 군사 독트린(ВОЕННАЯ ДОКТРИНА НЕЗАВИСИМОГО, ПОСТОЯННО НЕЙТРАЛЬНОГО ТУРКМЕНИСТАНА)」(2009년 1월 21일 승인) http://www.turkmenbusiness.org/node/126 (검색일: 2021.03.30.)
Turkmenistan has started work on a natural gas pipeline to Afghanistan, Pakistan and India," Insider, 2015.12.16. https://www.businessinsider.com/turkmenistan-has-started-work-on-a-natural-gas-pipeline-to-afghanistan-pakistan-and-india-2015-12 (검색일: 2021.05.10.)
Tynan, Deirdre. "Islamic State Threatens Central Asia." International Crisis Group, 2015.06.08. https://www.crisisgroup.org/europe-central-asia/central-asia/islamic-state-threatens-central-asia (검색일: 2021.04.30.)
UNDOC Reaerch, *Afghanistan opium survey 2019*, 2019.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Afghanistan opium survey 2019 - Socio-economic survey report: Drivers, causes and consequences of opium poppy cultivation, February 2021.
Weitz, Richard "Global Insights: Uzbekistan's CSTO Withdrawal Highlights Russia's Dilemma," World Political Review, 2012.07.10. https://www.worldpoliticsreview.com/articles/12145/global-insights-uzbekistans-csto-withdrawal-highlights-russias-dilemma (검색일: 2021.05.04.)
Weitz, Richard. "Almaty Hosts 'Heart of Asia' Conference," The Jamestown Foundation, 2013.05.03. ( https://jamestown.org/program/almaty-hosts-heart-of-asia-conference/) (검색일: 2021.05.06.)
Weitz, Richard. "TERRORISM IN UZBEKISTAN: THE IMU REMAINS ALIVE BUT NOT WELL," The Central Asia-Caucasus ANALYST, 2024.05.05. https://www.cacianalyst.org/publications/analytical-articles/item/8975-analytical-articles-caci-analyst-2004-5-5-art-8975.html (검색일: 2021.05.10.): "Uzbekistan: Effect Of Tashkent Explosions Still Felt Two Years Later," RadioFeeEurope/RadioLiberty, 2006.03.27. https://www.rferl.org/a/1067140.html (검색일: 2021.05.10.)
Zhao Huasheng, China and Afghanistan - China's Interests, Stance, and Perpective,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itonal Studies, March, 2012.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объяснил, зачем России перевалочный пункт НАТО в Ульяновске,"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012.08.03. ( https://rg.ru/2012/08/02/putin.html) (검색일: 2021.04.30.)
ВОЕННАЯ ДОКТРИНА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2013.07.15.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900232 (검색일: 2021.05.06.)

ВОЕННАЯ ДОКТРИН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군사 독트린) (https://lex.uz/acts/134026) (검색일: 2021.05.03.)
Декларация о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м курсе Туркменистана в XXI веке от 27.12.1999 (http://wiki-tm.com/index.php/%D0%94%D0%B5%D0%BA%D0%BB%D0%B0%D1%80%D0%B0%D1%86%D0%B8%D1%8F_%D0%BE_%D0%B2%D0%BD%D0%B5%D1%88%D0%BD%D0%B5%D0%BF%D0%BE%D0%BB%D0%B8%D1%82%D0%B8%D1%87%D0%B5%D1%81%D0%BA%D0%BE%D0%BC_%D0%BA%D1%83%D1%80%D1%81%D0%B5_%D0%A2%D1%83%D1%80%D0%BA%D0%BC%D0%B5%D0%BD%D0%B8%D1%81%D1%82%D0%B0%D0%BD%D0%B0_%D0%B2_XXI_%D0%B2%D0%B5%D0%BA%D0%B5_%D0%BE%D1%82_27.12.1999) (검색일: 2021.05.10.)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на 2014 - 2020 годы, Adliet. https://adilet.zan.kz/rus/docs/U1400000741 (검색일: 2021.05.06.)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 2015.01.27. (https://mfa.tj/ru/main/view/988/kontseptsiya-vneshnei-politiki-respubliki-tadzhikistan) (검색일: 2021.05.08.)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т декабря 1995 (http://wiki-tm.com/index.php/%D0%9A%D0%BE%D0%BD%D1%86%D0%B5%D0%BF%D1%86%D0%B8%D1%8F_%D0%B2%D0%BD%D0%B5%D1%88%D0%BD%D0%B5%D0%B9_%D0%BF%D0%BE%D0%BB%D0%B8%D1%82%D0%B8%D0%BA%D0%B8_%D0%A2%D1%83%D1%80%D0%BA%D0%BC%D0%B5%D0%BD%D0%B8%D1%81%D1%82%D0%B0%D0%BD%D0%B0_%D0%BE%D1%82_%D0%B4%D0%B5%D0%BA%D0%B0%D0%B1%D1%80%D1%8F_1995) (검색일: 2021.05.10.)
Концепц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VESTI.kg, 2012.06.12. (https://vesti.kg/component/k2/item/13270-kontseptsiya-natsionalnoy-bezopasnosti-kyirgyizskoy-respubliki.html) (검색일: 2021.05.06.)
О Стратег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5, Russia Matters, https://russiamatters.org/node/21421 (검색일: 2021.04.30.)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Н.Назарбаева народу Казахстана. 14 декабря 2012 г. (https://www.akorda.kz/ru/addresses/addresses_of_president/poslanie-prezidenta-respubliki-kazahstan-nnazarbaeva-narodu-kazahstana-14-dekabrya-2012-g (검색일: 2021.05.06.)
ПОСТАНОВЛЕНИЕ МАДЖЛИСИ НАМОЯНДАГОН МАДЖЛИСИ ОЛИ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 от 3 октября 2005 года №103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Военной доктрины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 3 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СТРАН СНГ http://base.spinform.ru/show_doc.fwx?rgn=12243 (검색일: 2021.05.08.)
러시아 외교부,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тверждена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В.Путиным 30 ноября 2016 г.) https://www.mid.ru/foreign_policy/official_documents/-/asset_publisher/CptICkB6BZ29/content/id/2542248 (검색일: 2021.04.30.)
러시아 외교부,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утверждена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В. Путиным 12 февраля 2013 г.) https://www.mid.ru/foreign_policy/official_documents/-/asset_publisher/CptICkB6BZ29/content/id/122186 (검색일: 2021.04.30.)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사이트, Цели и задач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курса Узбекистана(우즈베키스탄 외교정책의 목표와 목적) (https://web.archive.org/web/20120112030511/http://mfa.uz:80/rus/mej_sotr/vneshnyaya_politika) (검색일: 2021.05.03.)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사이트, Цели и задач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курса Узбекистана(우즈베키스탄 외교정책의 목표와 목적), 2010.02.16. https://web.archive.org/web/20100216214229/http://mfa.uz/rus/mej_sotr/vneshnyaya_politika/ (검색일: 2021.05.03.):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사이트, Цели и задач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курса Узбекистана(우즈베키스탄 외교정책의 목표와 목적), 2010.04.11. https://web.archive.org/web/20110411045859/http://mfa.uz:80/rus/mej_sotr/vneshnyaya_politika/ (검색일: 2021.05.03.)
키르기스스탄 정부 사이트, "키르기즈 공화국 외교정책 개념(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2007년 1월 10일 승인)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4569 (검색일: 2020.03.30.)
키르기스스탄 정부 사이트, "키르기즈 공화국 외교정책 개념(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2019년 3월 11일 승인)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430045 (검색일: 2021.03.30.)

타지키스탄 외교부,「타지키스탄 공화국의 외교정책 개념(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2015년 1월 27일 승인) https://mfa.tj/ru/main/view/988/kontseptsiya-vneshnei-politiki-respubliki-tadzhikistan (검색일: 2021.03.30.)

카자흐스탄 통계청
세계은행
Pew Research Center
Pax et Bellum
표준국어대사전
Political Geography Now
UN 마약범죄사무소 사이트

---

## 참고문헌 변경 후

# 참 고 문 헌

## 1차 자료

### ○ 러시아어 자료

ВОЕННАЯ ДОКТРИНА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키르기즈 공화국 군사 독트린), 2013.07.15.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900232 (검색일: 2021.05.06.)

ВОЕННАЯ ДОКТРИНА НЕЗАВИСИМОГО, ПОСТОЯННО НЕЙТРАЛЬНОГО ТУРКМЕНИСТАНА(영구 중립국 투르크메니스탄의 군사 독트린) (2009년 1월 21일 승인) http://www.turkmenbusiness.org/node/126 (검색일: 2021.03.30.)

ВОЕННАЯ ДОКТРИН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군사 독트린) (https://lex.uz/acts/134026) (검색일: 2021.05.03.)

Декларация о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м курсе Туркменистана в XXI веке от 27.12.1999(21세기 투르크메니스탄 외교정책 노선 선언) http://wiki-tm.com/index.php/%D0%94%D0%B5%D0%BA%D0%BB%D0%B0%D1%80%D0%B0%D1%86%D0%B8%D1%8F_%D0%BE_%D0%B2%D0%BD%D0%B5%D1%88%D0%BD%D0%B5%D0%BF%D0%BE%D0%BB%D0%B8%D1%82%D0%B8%D1%87%D0%B5%D1%81%D0%BA%D0%BE%D0%BC_%D0%BA%D1%83%D1%80%D1%81%D0%B5_%D0%A2%D1%83%D1%80%D0%BA%D0%BC%D0%B5%D0%BD%D0%B8%D1%81%D1%82%D0%B0%D0%BD%D0%B0_%D0%B2_XXI_%D0%B2%D0%B5%D0%BA%D0%B5_%D0%BE%D1%82_27.12.1999 (검색일: 2021.05.10.)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키르기즈 공화국 외교정책 개념) (2007년 1월 10일 승인)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4569 (검색일: 2020.03.30.)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키르기즈 공화국의 외교정책개념) (2019년 3월 11일 승인)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430045 (검색일: 2021.03.30.)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на 2014-2020 годы (2014~2020카자흐스탄 공화국 외교정책 개념), Adliet.

https://adilet.zan.kz/rus/docs/U1400000741 (검색일: 2021.05.06.)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타지키스탄 공화국의 외교정책 개념) (2015년 1월 27일 승인) https://mfa.tj/ru/main/view/988/kontseptsiya-vneshnei-politiki-respubliki-tadzhikistan (검색일: 2021.03.30.)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타지키스탄 공화국의 외교정책 개념), 2015.01.27. https://mfa.tj/ru/main/view/988/kontseptsiya-vneshnei-politiki-respubliki-tadzhikistan (검색일: 2021.05.08.)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тверждена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В.Путиным 30 ноября 2016 г.) (2016년 11월 30일 푸틴 러시아연방 대통령에 의해 승인된 러시아 연방의 외교정책 개념) https://www.mid.ru/foreign_policy/official_documents/-/asset_publisher/CptICkB6BZ29/content/id/2542248 (검색일: 2021.04.30.)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утверждена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В. Путиным 12 февраля 2013 г.) (2013년 2월 12일 푸틴 러시아연방 대통령에 의해 승인된 러시아 연방의 외교정책 개념) https://www.mid.ru/foreign_policy/official_documents/-/asset_publisher/CptICkB6BZ29/content/id/122186 (검색일: 2021.04.30.)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т декабря 1995(1995년 12월 이후 투르크메니스탄의 외교정책 개념) http://wiki-tm.com/index.php/%D0%9A%D0%BE%D0%BD%D1%86%D0%B5%D0%BF%D1%86%D0%B8%D1%8F_%D0%B2%D0%BD%D0%B5%D1%88%D0%BD%D0%B5%D0%B9_%D0%BF%D0%BE%D0%BB%D0%B8%D1%82%D0%B8%D0%BA%D0%B8_%D0%A2%D1%83%D1%80%D0%BA%D0%BC%D0%B5%D0%BD%D0%B8%D1%81%D1%82%D0%B0%D0%BD%D0%B0_%D0%BE%D1%82_%D0%B4%D0%B5%D0%BA%D0%B0%D0%B1%D1%80%D1%8F_1995 (검색일: 2021.05.10.)
Концепц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의 국가안보개념), VESTI.kg, 2012.06.12. (https://vesti.kg/component/k2/item/13270-kontseptsiya-natsionalnoy-bezopasnosti-kyirgyizskoy-respubliki.html) (검색일: 2021.05.06.)
О Стратег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5(2015년 러시아 국가안보전략), Russia Matters, https://russiamatters.org/node/21421 (검색일: 2021.04.30.)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Н.Назарбаева народу Казахстана. 14 декабря 2012 г. (2012년 12월 14일 N.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https://www.akorda.kz/ru/addresses/addresses_of_president/poslanie-prezidenta-respubliki-kazahstan-nnazarbaeva-narodu-kazahstana-14-dekabrya-2012-g (검색일: 2021.05.06.)
ПОСТАНОВЛЕНИЕ МАДЖЛИСИ НАМОЯНДАГОН МАДЖЛИСИ ОЛИ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 от 3 октября 2005 года №103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Военной доктрины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СТРАН СНГ (2005년 10월 3일 타지키스탄 상원의 타지키스탄 군사 독트린 승인) http://base.spinform.ru/show_doc.fwx?rgn=12243 (검색일: 2021.05.08.)
Цели и задач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курса Узбекистана(우즈베키스탄 외교정책의

목표와 목적), 2010.02.16. https://web.archive.org/web/20100216214229/http://mfa.uz/rus/mej_sotr/vneshnyaya_politika/ (검색일: 2021.05.03.):
Цели и задач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курса Узбекистана(우즈베키스탄 외교정책의 목표와 목적), 2010.04.11. https://web.archive.org/web/20110411045859/http://mfa.uz:80/rus/mej_sotr/vneshnyaya_politika/ (검색일: 2021.05.03.)
Цели и задач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курса Узбекистана(우즈베키스탄 외교정책의 목표와 목적), 2012.01.12 ( https://web.archive.org/web/20120112030511/http://mfa.uz:80/rus/mej_sotr/vneshnyaya_politika) (검색일: 2021.05.03.)

○ 영어 자료

Kazakhstan 2050 Strategy, *2050 Strategy address*, https://kazakhstan2050.com/2050-address (검색일: 2021.05.05.)
On National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Law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dated January 6, 2012 No. 527-IV. *Adilet* ( https://adilet.zan.kz/eng/docs/Z1200000527) (검색일: 2021.05.06.)
OSCE. 2010. Statement by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His Excellency Emomali Rahmon at The OSCE Summit. (December 02, 2010)
OSCE. 2018. *EU Strategy on Afghanistan.* (April 16, 2018) https://eeas.europa.eu/sites/default/files/eu_final_booklet_revised_4.pdf (검색일: 2021.05.03.)
Statement by His Excellency Nursultan Nazarbayev,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at The 2010 OSCE Summit, 2010.12.01. https://www.osce.org/files/f/documents/8/7/73866.pdf (검색일: 2021.05.06.)
The White House President Barrak Obama. *National Security Strategy.* May 2010.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sites/default/files/rss_viewer/national_security_strategy.pdf (검색일: 2021.05.04.)
The White House. "Joint Statement by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Karzai." (January 11, 2013)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13/01/11/joint-statement-president-obama-and-president-karzai (검색일: 2021.05.03.)
Turmenistan.ru. 2010. "Address by the President of Turkmenistan at the 65th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September 22, 2010) http://www.turkmenistan.ru/en/node/14143 (검색일: 2021.05.10.)
Embass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to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About the establishment of the Kazakhst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KazAID." ( https://www.gov.kz/memleket/entities/mfa-islamabad/press/news/details/148436?lang=en) (검색일: 2021.05.06.)

## 2차 자료

## – 저서


신범식 등. 『유라시아의 심장 다시 뛰다! : 중앙아시아 지역의 형성과 역동성』 서울: 진인진, 2017.

신범식 등. 『중국의 부상과 중앙아시아』 서울: 진인진, 2015.

소스타인 베블런 저. 박홍규 역. 『유한계급론』 서울: 문예출판사, 2019.

Allan, Pierre & Keller, Alexis. *What is a Just Pea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Baylis, J. and Smith, S.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Benjamin S. Day & Valerie M. Hudson. *Foreign Policy Analysis – Classic and Contemporary Theory*, Lanham: Rowman&Littlefield. 2020.

Buzan, Berry & Waever. Ole. *Regions and Powers –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Security*, New York, N. Y.: Cambridge. 2003.

Chandler, David. *Peacebuilding – The Twenty Years' Crisis, 1997–2017.* Springer, 2017.

Galtung, Johan, Fischer, Dietrich. *Pioneer of Peace Research.* Springer. 2013.

Gilady, Lilach. *The Price of Presti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8

Ginty, Roger M. ed. *Routledge Handbook of Peacebuilding.* Routledge, 2013.

Ginty, Roger M. ed., *International Peacebuilding and Local Resistance – Hybrid Forms of Peace.* Palgrave Macmillan, 2011.

Hobbes, Thomas., Leviathan, ed. A. R. Waller Cambridge; Cmabrdige University Press, 1904.

Huddy, Leonie. Sears, David O. & Levy, Jack S. ed.,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Oxford, 2013.

Jean–Frédéric Morin & Janathan Paquin. *Foreign Policy Analysis – A Toolbox*, Palgrave Macmillan. 2018.

Jeong, Ho–Won. ed., *Approches to Peacebuilding.* Palgrave Macmillan, 2002.

Kaarbo, Juliet. Lantis, Jeffrey S. & Beasley, Ryan K. *Foreign Policy in Comparative Perspective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fluences on State Behavior*, SAGE. 2013.

Kassenova, Nargis. "Kazakhstan's Policy toward Afghanistan – Context, Drivers, and Outcomes," in Amin Saikal & Kirill Nourzhanov(ed.), *Afghanistan and Its Neighbors After The Nato Withrawal*, London; Lexington Books. 2016.

Keohane, Robert & Nye, Joseph. Power and Interdependence, Longman, 2011, 4th ed.

Khalid, Adeeb. Islam after Commun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4.

Lee, Johnathan. *Afghanistan – A History from 1260 To The Present.* Glassgow; Reaktion Books, 2018.

Morgenthau, Hans & Thompson, Kenneth. "The Struggle for Power: Policy of Prestige," *Politics Among Nations.* Beijing: Peking University Press, 1997.

Resende, Erica. & Budryte, Dovile. *Memory and Trauma in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Routledge, 2014.

Rousseau, David. Identifying Threats and Threatening Identities –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sm and Liberalism. Standford: Standford University Press,

2006.
Rubin, Barneet. Afghanistan from the Cold War through the War on Terror. Oxford: Oxford Press, 2013.
Rytovuori-Apunen, Helena ed., The Regional Security Puzzle around Afghanistan. Opladen: Babara Budrich Publishers, 2016.
Oliver, Richmond. ed. The Palgrave Handbook of Disciplinary and Regional Approaches to Peace. Palgrave Macmillan, 2016.
Weber, Max. Tribe, Keith trans. Economy and Socie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9.
Wendt, Alexander.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 논문

김석수, 「일본 정부개발원조 (ODA) 와 국익의 연계」, 『문화와 정치』 제3권 제1호, 2016, 83-108쪽.
정세진, 「타지키스탄 이슬람 부흥당 (IRPT)의 형성, 활동, 그리고 소멸」, 『슬라브학보』 제35권 4호, 2020, 247-279쪽.
Adler, Emanuel. "Imagined (Security) Communities: Cognitive Regions in International Relations."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26-2, (1997), pp.249-277.
Allison, Lincoln. & & Monnington, Terry. "Sport, Prestig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Government and Opposition 37-1, Winter 2002, pp.106-134.
Aris, Stephen.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Tackling the Three Evils'. A Regional Response to Non-Traditional Security Challenges or an Anti-Western Bloc?." Europe-Asia Studies, 61-3, May 2009, pp.457-482
Bachleitner, Kathrin. "Diplomacy with Memory: How the Past Is Employed for Future Foreign Policy." *Foreign Policy Analysis* 15-4, (2019), pp.492-508.
Baizakova, Kuralai.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s Role in Countering Threats and Challenges to Central Asian Regional Security." Russian Politics & Law, 51-1, 2013, pp.59-79.
Baldiwn, David. "Thinking about threat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15, (1971), pp.71-78.
Barnett, Michael, Kim, Hunjoon, O'Donnell, Madalene & Sitea Laura. "Peacebuilding: What is in a Name?." Global Governance 13-1 (January-March 2007), pp. 35-58.
Bartelson, Jens. "Three concepts of recognition." *International Theory*, 5-1, (2013), pp.107-129.
Billon, Philippe L. "Corrupting Peace? Peacebuilding and Post-conflict Corruption." International Peacekeeping, 15-3, 2008, pp.344-361
Claire Q. Smith, Lars Waldorf, Rajesh Venugopal & Gerard McCarthy. "Illiberal peace-building in Asia: a comparative overview." *Conflict, Security & Development*, 20-1, (2020), pp.1-14
Dafoe, Allan. Renshon, Jonathan and Huth, Paul. "Reputation and Status as Motives for War."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7, (2014), p.371-393.
Doyle, Michael. & Sambanis, Nicholas. "International Peacebuilding: A Theoretcial and Quantitive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4-4, (December, 2000), pp.779-801.
Doyle, Michael. "Kant, Liberal Legacies, and Foreign Affairs." Philosophy & Public

Affairs, 12-3, (Summer, 1983), pp.205-235.
Dubovtsev, Georgy. & Galymzhanuly Erlan. "Forecast on the Military-Political Situation Emerging in the World and the Central Asian Region."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12-1, 2011, pp.42-43.
Duque, Marina. "Recognizing International Status: A Relational Approach."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62, (2018), pp.577-592.
Farooq, Umar & Khawaja, Asma S.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Geo-political Implications, Regional Constraints and Benefits of CPEC." South Asian Studies, 34-2, July-December, 2019, pp.599-610.
Fatic, Aleksandar. "Conventional and unconventional - 'hard' and 'soft' security: the distinction." Journal for Labour and Social Affairs in Eastern Europe, 5(3), (October, 2002), pp.93-94.
Jakobsen, Peter. Jakobsen, Viggo. Ringsmose, Jens. & Saxi, Hakon Lunde. "Prestinge-seeking small states: Danish and Norwegian military contributions to US-led operation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ecurity 3-2, pp.256-277.
John H. Herz, "Idealist Internationalism and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2-2 (Jan, 1950), pp.157-180
Jonathan Mercer. 2018. "The Illusion of International Prestige." International Security 41(4), pp.133-168.
Karlsrud, John. "From Liberal Peacebuilding to Stabilization and Counterterrorism." International Peacekeeping, 26-1, 2019. pp.1-21.
Keohane, Robert. "Twenty Years of Institutional Liberalism." International Relations 26-2, 2012, pp.125-138.
Kristian Stokke, "Peace-building as Small State Foreign Policy: Norway's Peace Engagement in a Changing International Context." International Studies, 49-3&4, 2012, pp.207-301.
Lee, Ji-Eun. "Foreign Policy Formation of Authoritarian States in Central Asia Since 1991 Non-Institutional Domestic Factors in Kazakhstan and Uzbekistan." 『국제정치논총』 제50집 3호, 2010, pp.33-71
Lewis. David, Heathershaw, John. and Megoran, Nick. "Illiberal peace? Authoritarian modes of conflict management." *Cooperation and Conflict*, 53-4, (2018), pp.486-506.
Maksut, Kuralay. "Central Asia, Afghanistan and International Order: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Journal of Global Policy and Governance, 1, 2013, pp.203-215.
Marat, Erica. "Kyrgyzstan: A Parliamentary System Based on Inter-Elite Consensus." Demokratizatsiya 20-4, Fall 2012, pp.325-344.
Musioł, Marek. "Post-Soviet Central Asia as a Unique Regional Security Complex." The Polish Quarterly of International Affairs 4, 2015, pp.59-78.
Newman, Edward. "Peacebuilding as Security in 'Failing' and Conflict-Prone States." Journal of Intervention and Statebuilding, 4-3, pp.305-322.
Roy, Sing. "Role of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in Afghanistan: Scope and Limitations." Strategic Analysis, 34-4, 2010, pp.545-561
Walt, Stephan. "Alliance Formation and the Balance of World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9-4, Spring, 1985, pp.3-43.
Wegener, Bernd. "Concepts and Measurement of Prestige." Annual Review of Sociology, 18, 1992, pp.253-280.
Wendt, Alexander.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2 (Spring, 1992), pp.391-425.

Young, Michael D. & Schafer, Mark. "Is There Method in Our Madness? Ways of Assessing Cogni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Mersho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42-1, (May 1998), pp. 63-96

Эргашев, Бахтияр. "Политика Узбекистана в отношении Афганистана в конте ксте обеспече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Россия и мусульманский мир, 2014 no.5, pp.90-96.

## - 인터넷 자료

### ○ 웹 간행물

Almohamad, Selman. Kirchschlager, Markus. & Kurtenbach, Sabine. Peacebuilding after War and Violence - Neighbourhood Matters, GiGa Working Papers, December 2020.

Andisha, Nasir. Neutrality in Afghanistan's Foreign Policy, Special Report 360,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March 2015.

Barry O'Neil, "Nuclear Weapons and National Prestige," Cowles Foundation Discussion Paper No. 1560, 2006.

Brattvoll, Joakim. Uzbekistan's Ambiguous polices on Afghanistan, Prio Policy Brief 01, 2016.

Dyner, Anna, Legieć, Arkadiusz. & Rękawek, Kacper. Ready to Go? ISIS and Its Presumed Expansion into Central Asia, PISM Policy Paper 19(212), June 2015. https://www.files.ethz.ch/isn/192428/PISM%20Policy%20Paper%20no%2019%20(121).pdf (검색일: 2021.04.30.)

Geneva International Centre for Humanitarian Demining. 2013. Strategic Planning in Mine Action Programmes Tajikistan.

Gollob, Sam. & O'Hanlon, Michael E. Afghanistan Index - Tracking variables of reconstruction and security in post-9/11 Afghanistan. Foreign Policy at Brookings, August 2020. https://web.archive.org/web/20131019045817/http://mfa.uz/rus/mej_sotr/vneshnyaya_politika/ (검색일: 2021.03.30.)

Indeo, Fabio. 2014. Central Asia Beyond 2014: Building Regional Security Architecture, ISPI.

Kassenova, Nargis. 2014. Relations Between Afghanistan and Central Asian States After 2014,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Markedonov, Sergey. "Uzbekistan: The End of a Multi-vector Foreign Policy?."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2012.09.10. https://www.csis.org/analysis/uzbekistan-end-multi-vector-foreign-policy (검색일: 2021.05.04.)

McDermott, Roger. Kazkahstan's 2011 Military Decotrine: Reassessing Reg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The Foreign Military Studies Office, 2012.

Osman, Borhan. & Gopal, Anand. 2016. Taliban Views On A Future State, Center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Peyrouse, Sebastien. 2012. Battle on Top of the World: Rising Tensions in

Tajikistan's Pamir Region, German Marshall Fund of the United States.
_____. 2018. "Drug Trafficking in Tajikistan: A very deep but not incurable evil."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March 01, 2018) https://www.georgetownjournalofinternationalaffairs.org/online-edition/2018/3/1/drug-trafficking-in-tajikistan-a-very-deep-but-not-incurable-evil
Pikulina, Maria. 1999. Uzbekistan in the Mirror of Military Security: A Historical Preface to Current Events, Conflict Studies Research Centre, November, 1999.
Sarukhanyan, Yuriy. 2019. "Afghan Traditions of the Uzbek Foreign Policy." Central Asian Bureau for Analystical Reporting. (July 01, 2019) https://cabar.asia/en/afghan-traditions-of-the-uzbek-foreign-policy (검색일: 2021.05.06.)
Shinn, James & Dobbins, James. Afghan Peace Talks – A Primer, Rand Cooperation, 2011.
Starr, Frederick. A 'Greater Cetnral Asia Partnership' for Afghanistan and Its Neighbors, Silk Road Paper, March 2005,
The Institute of Internatinoal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2017.
Tolipov, Farkhod. 2015. "Pluses and minuses of the C5+1 format," The Central Asia-Caucasus Analyst, 2015.11.13. https://www.cacianalyst.org/publications/analytical-articles/item/13300-pluses-and-minuses-of-the-c5%201-format.html (검색일: 2021.05.03.)
Tynan, Deirdre. 2015. "Islamic State Threatens Central Asia." International Crisis Group (June 08, 2015) https://www.crisisgroup.org/europe-central-asia/central-asia/islamic-state-threatens-central-asia (검색일: 2021.04.30.)
UNDOC Reaerch. 2019. *Afghanistan opium survey 2019.*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2019. Afghanistan opium survey 2019 – Socio-economic survey report: Drivers, causes and consequences of opium poppy cultivation, February 2021.
Weitz, Richard. 2012. "Global Insights: Uzbekistan's CSTO Withdrawal Highlights Russia's Dilemma." World Political Review. (July 10, 2012) https://www.worldpoliticsreview.com/articles/12145/global-insights-uzbekistans-csto-withdrawal-highlights-russias-dilemma (검색일: 2021.05.04.)
_____. 2013. "Almaty Hosts 'Heart of Asia' Conference," The Jamestown Foundation. (May 03, 2013) https://jamestown.org/program/almaty-hosts-heart-of-asia-conference/) (검색일: 2021.05.06.)
_____. 2014. "Terrorism in Uzbekistan: The IMU Remains Alive But Not Well." The Central Asia-Caucasus ANALYST. (May 05, 2014) https://www.cacianalyst.org/publications/analytical-articles/item/8975-analytical-articles-caci-analyst-2004-5-5-art-8975.html (검색일: 2021.05.10.)
Zhao, Huasheng. 2012. China and Afghanistan – China's Interests, Stance, and Perpective,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itonal Studies, March.

○ 웹 사이트

AKDN. “Tajik and Afghan officials inaugurate Vanj bridge built by AKDN as part of Cross-border Initiatives,” 2011.08.16. (https://www.akdn.org/press-release/tajik-and-afghan-officials-inaugurate-vanj-bridge-built-akdn-part-cross-border) (검색일: 2021.05.08.)
Heart of Asia – Instanbul Process. About Us. https://www.hoa.gov.af/about-us/about-hoa-ip.html (검색일: 2021.05.04.)
OSCE. 2010. “2010 OSCE Summit in Astana.” OSCE. (December 02, 2010) https://www.osce.org/event/summit_2010 (검색일: 2021.05.06.)
CASA-100. About https://www.casa-1000.org/about-casa-1000/ (검색일: 2021.05.06.)

○ 신문 및 잡지

Panda, Ankit. 2015. “Afghanistan: The Next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Member?.” The Diplomat. (October 10, 2015) https://thediplomat.com/2015/10/afghanistan-the-next-shanghai-cooperation-organization-member/ (검색일: 2019.10.15.)
Afghan Voice Agency. 2013. “Tajikistan to triple electricity export to Afghanistan.” (April 04, 2013) https://avapress.com/en/59133/Tajikistan-to-triple-electricity-export-to-Afghanistan) (검색일: 2021.05.09.)
AKIpress. 2013. “Kyrgyz government to dispatch humanitarian aid to ethnic Kyrgyz in Afghanistan.” (October 29, 2013) https://akipress.com/news:530122:Kyrgyz_government_to_dispatch_humanitarian_aid_to_ethnic_Kyrgyz_in_Afghanistan/ (검색일: 2021.05.08.)
_____. 2015. “Turkmenistan-Afghanistan-Tajikistan railway construction underway.” (July 02, 2015) https://www.azernews.az/region/84846.html (검색일: 2021.05.09.)
_____. 2020. “Kyrgyz government dispatches humanitarian aid to ethnic Kyrgyz living in Tajikistan, Afghanistan.” (June 22, 2020) https://akipress.com/news:643960:Kyrgyz_government_dispatches_humanitarian_aid_to_ethnic_Kyrgyz_living_in_Tajikistan,_Afghanistan/ (검색일: 2021.05.06.)
Business Standard. 2014. “TAPI Pipeline Company established by member countries.” (November 15, 2014) https://www.business-standard.com/content/b2b-manufacturing-industry/tapi-pipeline-company-established-by-member-countries-114111500634_1.html (검색일: 2021.05.10.)
Deutsche Welle. 2015. “Thousands from Central Asia joining ‘Islamic State.” (January 21, 2015) https://www.dw.com/en/thousands-from-central-asia-joining-islamic-state-report/a-18203785 (검색일: 2021.04.30.):
eurasianet. 2010. “Uzbekistan starts building railroad to Mazar-e-Sharif.” (May 29, 2010) https://eurasianet.org/uzbekistan-starts-building-railroad-to-mazar-e-sharif (검색일: 2021.05.06.)
_____. 2011. “Uzbekistan-Afghanistan Railway Starts Operations.” (August 24, 2011) https://eurasianet.org/uzbekistan-afghanistan-railway-starts-operations (검색일: 2021.05.06.)

_____. 2013. “Uzbekistan Setting Up Checkpoints On New Silk Road.” (June 19, 2013) https://eurasianet.org/uzbekistan-setting-up-checkpoints-on-new-silk-road (검색일: 2021.05.04.)
_____. 2013. “CSTO Promises Support, But No Russian Troops, For Tajikistan's Border.” (September 24, 2013)https://eurasianet.org/csto-promises-support-but-no-russian-troops-for-tajikistans-border (검색일: 2021.05.06.)
_____. 2015. “CSTO Troops Drill Against 700-Strong Taliban Invasion Of Tajikistan.” (May 08, 2015) https://eurasianet.org/csto-troops-drill-against-700-strong-taliban-invasion-of-tajikistan (검색일: 2021.05.08.)
_____. 2015. “Germany Formally Closes Uzbekistan Air Base.”(December 16, 2015) https://eurasianet.org/germany-formally-closes-uzbekistan-air-base (검색일: 2021.05.04.)
_____. 2016. “Russia And Allies Practice Fighting ISIS In Tajikistan.” (April 25, 2016) https://eurasianet.org/russia-and-allies-practice-fighting-isis-in-tajikistan (검색일: 2016.05.06.)
_____. 2016. “Tajikistan, Afghanistan Pamiri Villages Joined by Power Line.” (May 31, 2016) https://eurasianet.org/tajikistan-afghanistan-pamiri-villages-joined-power-line (검색일: 2021.05.09.)
_____. 2016. “Turkmenistan Seeks Military Aid From Russia.” (June 09, 2016) https://eurasianet.org/turkmenistan-seeks-military-aid-russia (검색일: 2021.05.10.)
_____. 2016. “Afghanistan, China, Pakistan, Tajikistan Deepen "Anti-Terror" Ties.” (August 04, 2016) https://eurasianet.org/afghanistan-china-pakistan-tajikistan-deepen-anti-terror-ties (검색일: 2021.05.08.)
_____. 2016. “China Holds Anti-Terror Exercises on Afghanistan-Tajikistan Border.” (October 24, 2016) https://eurasianet.org/china-holds-anti-terror-exercises-afghanistan-tajikistan-border (검색일: 2021.05.09.)
Insider. 2015. “Turkmenistan has started work on a natural gas pipeline to Afghanistan, Pakistan and India.” (December 16, 2015) https://www.businessinsider.com/turkmenistan-has-started-work-on-a-natural-gas-pipeline-to-afghanistan-pakistan-and-india-2015-12 (검색일: 2021.05.10.)
IOM. 2013. “Joint Tajik-Afghan Training on Humanitarian Border Management.” (September 27, 2013) https://weblog.iom.int/tajikistan/joint-tajik-afghan-training-humanitarian-border-management) (검색일: 2021.05.08.
Military News. 2016. “Russia, Tajikistan Hold Huge Military Drills Near Afghan Border.” (March 15, 2016) https://www.military.com/daily-news/2016/03/15/russia-tajikistan-hold-huge-military-drills-near-afghan-border.html (검색일: 2021.05.09.)
OSCE. 2010. “Holding summit, protracted conflicts, transport and tolerance among priorities for Kazakh OSCE Chairmanship.” (January 15, 2010) https://www.osce.org/cio/51821 (검색일: 2021.05.06.)

OSCE. 2014. “Tajik border guards and Afghan border police complete OSCE Patrol Management and Analysis training course.” (October 14, 2014) https://www.osce.org/tajikistan/126208 (검색일: 2021.05.08.)
OSCE. 2015. “OSCE trains Turkmenistan border guards in border management and threat assessment.” (April 29, 2015) https://www.osce.org/ashgabat/154276 (검색일: 2021.05.10.)
RadioFeeEurope/RadioLiberty. 2006. “Uzbekistan: Effect Of Tashkent Explosions Still Felt Two Years Later.” (March 27, 2006) https://www.rferl.org/a/1067140.html (검색일: 2021.05.10.)
_____. 2011. “Kazakhstan Offers Token Troop Presence For Afghanistan.” (May 24, 2011) https://www.rferl.org/a/kazakhstan_afghanistan_troops/24194820.html (검색일: 2021.05.06.)
_____. 2011. “Tajik Power Line To Afghanistan Inaugurated.” (October 27, 2011) https://www.rferl.org/a/afghanistan_tajikistan_power_line_inaugurated/24373587.html (검색일: 2021.05.09.)
_____. 2012. “CSTO Accepts Uzbekistan's Withdrawal.” (December 19, 2012) https://www.rferl.org/a/csto-russia-afghanistan/24802767.html (검색일: 2021.05.03.)
_____. 2012. “U.S. Suspends Ban On Military Assistance To Uzbekistan.” (Febrary 01, 2012) https://www.rferl.org/a/uzbekistan_united_states_military_assistance/24470588.html (검색일: 2021.05.04.)
_____. 2013. “Afghan, Tajik, Turkmen Presidents Open New Railway Construction.” (June 05, 2013) https://www.rferl.org/a/afghanistan-turkmenistan-tajikistan-railqay-construction/25007658.html (검색일: 2021.05.09.)
_____. 2015. “Advantage United States In This Year's Meeting With Turkmen Officials.” (October, 14, 2015) https://www.rferl.org/a/qishloq-ovozi-turkmenisan-us-meeting-everything-different/27306656.html (검색일: 2021.05.10.)
_____. 2014. “Turkmenistan’s New Afghan Border Policy.” (October 10, 2014) https://www.rferl.org/a/turkmenistan-afghanistan-border-policy/26631200.html (검색일: 2021.05.10.)
_____. 2016. “CASA-1000 Power Project Inaugurated In Tajikistan.” (May 12, 2016) https://www.rferl.org/a/tajikistan-afghanistan-kygyzstan-pakistan-casa-power-project-inaugurated/27729921.html (검색일: 2021.05.09.)
Railway Gazette. 2016. “Afghanistan and Turkmenistan open Lapis Lazuli railway.” (November 28, 2016) https://www.railwaygazette.com/infrastructure/afghanistan-and-turkmenistan-open-lapis-lazuli-railway/43586.article (검색일: 2021.05.10.)
regnum. 2015. “Узбекистан увеличил поставки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в Афганистан.” (December 12, 2015) https://regnum.ru/news/economy/2033520.html (검색일: 2021.05.06.)
Reuters. 2014. “U.S. vacates base in Central Asia as Russia's clout rises.” (June, 03, 2014) https://www.reuters.com/article/us-kyrgyzstan-usa-manas-idUSKBN0EE1LH20140603 (검색일: 2021.05.06.)

_____. 2014. “Uzbek president asks Putin to help fight radical Islam in Central Asia.” (December 11, 2014) https://www.reuters.com/article/us-uzbekistan-russia-islamists-idUSKBN0JO1TW20141210 (검색일: 2021.05.05.)
_____. 2016. “China joins Afghanistan, Pakistan, Tajikistan in security alliance.” (August 04, 2016) https://www.reuters.com/article/us-china-security-idUSKCN10F1A6 (검색일: 2021.05.04.)
Seoul City. 2013. “22nd Anniversary of the Uzbek Independence.” (September 04, 2013), http://www.seoulcit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957 (검색일: 2021.05.04.)
Telegraph. 2010. “Al-Qaeda training camp uncovered in Tajikistan.” (October 19, 2010) https://www.telegraph.co.uk/news/worldnews/asia/afghanistan/8073451/Al-Qaeda-training-camp-uncovered-in-Tajikistan.html (검색일: 2021.05.07.)
The AsiaN, “Tajikistan, Kyrgyzstan, Afghanistan, Pakistan inaugurated CASA-1000 project.” (May 13, 2016) http://www.theasian.asia/archives/94555 (검색일: 2021.05.06.)
The Astana Times, “UNDP, Kazakhstan and JICA to Jointly Assist Afghanistan.” (August 20, 2016) https://astanatimes.com/2016/08/undp-kazakhstan-and-jica-to-jointly-assist-afghanistan/ (검색일: 2021.05.06.)
The Diplomat. 2016. “The Implications of Tightening Russia-Uzbekistan Ties.” (May 11, 2016) https://thediplomat.com/2016/05/the-implications-of-tightening-russia-uzbekistan-ties/ (검색일: 2021.05.05.)
_____. 2016. “Russia and Tajikistan Stage Large Antiterrorism Drills.” (March 12, 2016) https://thediplomat.com/2016/03/russia-and-tajikistan-stage-large-antiterrorism-drills/ (검색일: 2021.05.09.)
The Economist. 2019. “Uzbekistan’s new president closes Jaslyk prison camp.” (August 08, 2019) https://www.economist.com/asia/2019/08/08/uzbekistans-new-president-closes-jaslyk-prison-camp (검색일: 2021.08.01.)
The Embassy of Afghanistan in Ashgabat. 2016. “TAP500 Transmits Electricity from Turkmenistan to Pakistan through Afghanistan.” (April 01, 2016) http://afghanembassyturkmenistan.com/tap500-transmits-electricity-from-turkmenistan-to-pakistan-through-afghanistan/ (검색일: 2021.05.09.)
The Khaama Press. 2012. “Afghanistan earns $400M transit fee on TAPI gas pipeline.” (April 18, 2012) https://www.khaama.com/afghanistan-earns-400m-transit-fee-on-tapi-gas-pipeline-747/ (검색일: 2021.05.10.)
_____. 2016. “Afghanistan to profit $1 billion annually for transit from TAPI pipeline.” (December 07, 2016) https://www.khaama.com/afghanistan-to-profit-1-billion-annually-for-transit-from-tapi-pipeline-02436/ (검색일: 2021.05.10.)
Tolo News. 2016. “Karimov Calls For Russia's Role In Peace Process.” (April 27, 2016)

https://tolonews.com/afghanistan/karimov-calls-russias-role-peace-process (검색일: 2021.05.05.)
_____. 2019. "China To Form SCO Contact Group For Afghan Peace." (Febrary 22, 2019) https://tolonews.com/afghanistan/china%C2%A0-form%C2%A0sco-contact-group%C2%A0-afghan-peace (검색일: 2019.10.15.)
Tolo News. 2021. "Afghan Part of CASA-1000 Project 30% Completed." (March 28, 2021) https://tolonews.com/business-171036 (검색일: 2021.05.09.)
UN News, "Security Council: European security block details priorities for collaboration with UN." (May 07, 2013) https://news.un.org/en/story/2013/05/439082-security-council-european-security-block-details-priorities-collaboration-un (검색일: 2021.05.03.)
UN News. 2013. "Central Asian countries cite instability in Afghanistan as serious threat." (September 29, 2013) https://news.un.org/en/story/2013/09/451332 (검색일: 2021.05.06.)
_____. 2014. "Kyrgyz official warns UN Assembly of international dangers from unstable Afghanistan," (September 29, 2014) https://news.un.org/en/story/2014/09/479752-kyrgyz-official-warns-un-assembly-international-dangers-unstable-afghanistan (검색일: 2021.05.06.)
_____. 2015. "Fighting terrorism and drug trafficking are key priority's for Tajikistan, President tells UN Assembly." (September 29, 2015) https://news.un.org/en/story/2015/09/510572-fighting-terrorism-and-drug-trafficking-are-key-prioritys-tajikistan-president (검색일: 2021.05.08.)
_____. 2015. UN address, Kyrgyzstan pledges full commitment to combat terrorism." (October 02, 2015) https://news.un.org/en/story/2015/10/511182-un-address-kyrgyzstan-pledges-full-commitment-combat-terrorism (검색일: 2021.05.06.)
UN. 2010. "Kyrgyzstan H.E. Mr. Ruslan Kazakbaev,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September 27, 2010) https://www.un.org/en/ga/65/meetings/generaldebate/View/SpeechView/tabid/85/smid/411/ArticleID/237/reftab/233/t/Kyrgyzstan/Default.html (검색일: 2021.05.06.)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012.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объяснил, зачем России перевалочный пункт НАТО в Ульяновске." (August 03, 2012) https://rg.ru/2012/08/02/putin.html) (검색일: 2021.04.30.)

카자흐스탄 통계청
세계은행
Pew Research Center
Pax et Bellum
표준국어대사전
Political Geography Now
UN 마약범죄사무소 사이트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문제제기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안보 현안인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을 추진하는 중앙아시아[1] 지역 내 국가들의 정책 동인을 밝힘으로써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정치의 일면을 살펴보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문제"는 아프가니스탄 내부의 정치적, 종교적 갈등이 무장 갈등의 형태로 비화되면서, 빈부 격차, 사회 인프라 파괴, 무기 및 마약 밀매, 인신매매 등 아프가니스탄 내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비롯된 종교적 극단주의자들과 테러리스트들의 활동, 무기와 마약 밀매, 인신매매 등이 국경을 넘나들며 발생하면서, 이들 문제가 주변 국가로 파급(spill-over)되었다.

지역 안보 구도를 주도하는 러시아, 미국, 유럽은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타국으로 파급되어 지역 내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2001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Global War on Terrorism)>을 선포하여 동맹국들과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정치, 사회, 종교적 영향력이 있는 탈레반(Taliban)을 축출하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부를 내세웠으나, 점조직화된 탈레반이 저항을 계속하고, 이식된 정부 체계가 미완성에 그치면서 아프가니스탄 내 평화정착은 요원해 보였다. 아프가니스탄 주변 국가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도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자국으로 파급되는 것을 위협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지역 내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여겼다.[2]

---

1) 본고에서 중앙아시아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키르기스 공화국),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5개국을 지칭한다.

2) 각국의 외교정책 원칙을 명시한 「외교정책 개념(Concept of Foreign Policy)」, 외교부 사이트의 외교정책 부분 등을 살펴보면,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을 위협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2009년 발표한 「군사 독트린」에서 테러, 분리주의, 종교적 극단주의, 조직 범죄, 마약과 무기의 불법 유통이 자국 안보의 위협으로 규정하였따. 키르기스스탄도 「외교정책 개념」에서 아프가니스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 내 테러,

다른 지역과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정착과 다르게 테러와의 전쟁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루어진 평화정착은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이 주도하지 않고, 개별 국가들과 다자기구의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테러와의 전쟁 이후 지역 안보에서 주축으로 등장한 미국, EU, 기존 지역 안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아프가니스탄과 인접한 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에 기여하였다. 또한 집단안보조약기구(Collective Security Treaty Oganization, CSTO),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등 지역 안보 기구, 신뢰 구축 이니셔티브인 이스탄불 프로세스(Istanbul Process) 등 다자 협력을 통하여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가 이루어졌다. 이는 다른 지역,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정착 과정과는 다른 특징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정책이 주목받기

---

마약 밀매, 인신매매에 대응하고 평화유지 작전에 참여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을 참고.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사이트, "우즈베키스탄 외교정책의 목적과 목표들(Цели и задач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курс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아카이빙: 2013년 10월 19일자)
https://web.archive.org/web/20131019045817/http://mfa.uz/rus/mej_sotr/vneshnyaya_politika/ (검색일: 2021.03.30.):

"영구 중립국 투르크메니스탄의 군사 독트린(ВОЕННАЯ ДОКТРИНА НЕЗАВИСИМОГО, ПОСТОЯННО НЕЙТРАЛЬНОГО ТУРКМЕНИСТАНА)"(2009년 1월 21일 승인) http://www.turkmenbusiness.org/node/126 (검색일: 2021.03.30.)

"타지키스탄 공화국의 외교정책 개념(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2015년 1월 27일 승인) https://mfa.tj/ru/main/view/988/kontseptsiya-vneshnei-politiki-respubliki-tadzhikistan (검색일: 2021.03.30.)

"2014-2020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외교정책 개념(Foreign Policy Concept for 2014 - 2020 Republic of Kazakhstan)"
https://www.gov.kz/memleket/entities/mfa/documents/details/397?lang=en (검색일: 2021.03.30.)

"키르기즈 공화국 외교정책 개념(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2007년 1월 10일 승인)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4569 (검색일: 2020.03.30.)

"키르기즈 공화국 외교정책 개념(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2019년 3월 11일 승인)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430045 (검색일: 2021.03.30.)

시작한 것은 지역 안보의 구조적인 변화가 예고되었던 2010년 이후부터였다. 당시 미국과 북태평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이하 NATO) 회원국을 중심으로 구성한 국제안보지원군(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이하 ISAF)이 2014년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것을 선언하였다. 한편, 과거부터 안보 제공자 역할을 해오던 러시아의 경우 2014년 크림반도 합병으로 서구로부터 비판을 받으면서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근외지역(Near Abroad)에서 군사적 입지를 확장하기 어렵게 되었다.[3] 중앙아시아 지역 안보에서 서구와 러시아의 입지와 역할이 제한되는 가운데, 중국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4], 이는 현실로 이어지지 않았다.[5] 이러한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역할이 강조되는 지정학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

---

3) Fabio Indeo. *Central Asia Beyond 2014: Building Regional Security Architecture*, ISPI, 2014.

4) Sing Roy. "Role of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in Afghanistan: Scope and Limitations," *Strategic Analysis*, 34-4, pp.545-561: Kuralai Baizakova,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s Role in Countering Threats and Challenges to Central Asian Regional Security," *Russian Politics & Law*, 51-1, 2013, pp.59-79.

5)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은 2015년 SCO 가입을 정식으로 문의하였으나, 이러한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2014년 이후 SCO는 아프가니스탄 내 경제 지원 등에 관심을 보였으나, 본격적으로 평화 협상을 위한 SCO 차원의 연락단(Contact Group)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2019년 2월이었다. 위와 관련하여서는 Ankit Panda. 2015. "Afghanistan: The Next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Member?," *The Diplomat*, Oct. 10, 2015.(검색일: 2019.10.15.) (https://thediplomat.com/2015/10/afghanistan-the-next-shanghai-cooperation-organization-member/): "China To Form SCO Contact Group For Afghan Peace," Tolo News, Feb. 22, 2019. (검색일: 2019.10.15.) (https://tolonews.com/afghanistan/china%C2%A0-form%C2%A0sco-contact-group%C2%A0-afghan-peace) 참고

[그림 2-1] 중앙아시아와 아프가니스탄 지도
출처: Starfor 사이트
(https://worldview.stratfor.com/article/central-asia-and-afghanistan-tumultuous-history)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비롯된 위협이 자국으로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위협 요인의 근원인 아프가니스탄 내 무력 갈등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 안보, △ 사회, 경제, 개발, 인도주의, △ 정치 분야에서 아프가니스탄 내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아프가니스탄발 위협을 막아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아프가니스탄 내 정치, 지역, 종교적 갈등의 안정화를

위한 평화정착 정책을 추진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안보, 사회경제, 정치 분야에서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을 도모하였다. 안보 분야에서 우즈베키스탄은 CSTO에 탈퇴하기 전까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여 대테러 훈련, 마약 밀매 대응 등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 러시아와의 국방 외교를 통하여 아프가니스탄 내 평화를 정착에 기여하고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사회경제 분야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에 인프라 건설, 전력 지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또한 정치 분야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을 위하여 우즈베키스탄, 이란, 중국,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과 러시아, 미국, NATO가 참여하는 6+3 연락그룹을 창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타지키스탄도 접경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비롯된 위협의 파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보, 사회경제, 정치 분야에서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을 지원하였다. 타지키스탄은 안보 분야에서 OSCE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뢰 제거, 소형 무기 폐기, 갈등의 평가와 조기 경고, 국방 외교를 추진하였다. 또한 타지키스탄의 경우, 안보적인 차원에서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며, 국제안보기구인 OSCE, CSTO, 중국과 협력하여 국경 통제 훈련 및 테러에 대한 신속 대응 훈련에 참가하였다. 사회, 경제, 인도주의적 지원 분야에서 타지키스탄은 낮은 가격으로 전력을 제공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전력 공급 프로젝트인 CASA-1000에 참가하여 아프가니스탄에 전력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또한 타지키스탄은 국제금융기구, 민간 재단의 지원을 받아 타직-아프간 국경에 교량을 건설하고,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타지키스탄이 연결되는 철도 건설에 참여하였다.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한 투르크메니스탄도 안보, 사회경제, 정치 분야에서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영세 중립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은 안보 분야에서는 동맹이나 집단안보보다 자국의 역량, 국가 간 협력을 통하여 접경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위협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사회경제 분야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에너지, 교통 인프라 지원

을 제공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아프가니스탄에 전력과 가스를 지원하는 한편, 아프가니스탄의 채무를 변제한 바 있다. 또한 투크르메니스탄은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인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 천연가스관(Turkmenistan-Afghanistan-Pakistan-India Pipeline, 이하 TAPI)에 참여하였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은 타지키스탄과 함께 TAT 철도 건설에 참여하여 가장 먼저 투르크메니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을 연결하는 노선에 착공하였다. 정치 분야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은 UN에서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에 기여 중인 국가의 고위 엘리트들이 모여 신뢰를 구축하는 다자협력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하지 않아 위협의 파급 정도가 위 3개국보다 적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도 안보 차원에서는 러시아, CSTO, CSO와의 협력을 통하여 아프가니스탄발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카자흐스탄은 사회경제적인 분야에서 교육 및 보건 지원, 인프라 건설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정부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기관인 카즈에이드(KAZAID)를 설립하여 UNDP, JICA와 아프가니스탄 지원 협력에 합의하였다. 이외에도 카자흐스탄은 OSCE에서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활발히 제기하면서 주요 의제로 설정하며 지역 내외의 국가들에 아프가니스탄 문제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키르기스스탄은 안보 측면에서 아프가니스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CSTO, SCO와 협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사회, 경제 분야에서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를 연결하는 CASA-1000 프로젝트 참여를 아프가니스탄에 전기를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키르기스스탄은 OSCE, 이스탄불 프로세스에 참가함으로써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중앙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 모두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지역과 자국 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투입한 자원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 **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일관적이고 통일된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정책을 시행하며 협력하지 않는가?**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정책을 결정짓는 동인은 무엇인가?**
- **이러한 정책들이 만들어내는 결과와 지역 정치적 특징은 무엇인가?**

## 제 2 절 기존연구 검토

필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정책을 결정짓는 동인으로 (1) 위협 인식의 차이와 (2) 위신 추구 여부를 상정하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지역 정치에서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행위에 관한 지 역정치적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위협 인식은 국제적인 위기에 대한 행동과 대응을 설명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여겨져 왔다.[6] 골돈과 아리안(Goldon & Arian)의 연구에 따르면, 위협 인식 정도가 정책이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돈과 아리안은 아랍-유대인, 유대인 간 성속 갈등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통하여 위협의 정도가 정책 결정 과정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들은 연구를 통하여 위협 인식이 높은 경우, 집단 간 갈등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정책이 결정되었으며, 위협 인식이 낮은 경우 비교적 온건한 정책이 결정된다고 밝혔다.[7]

위 연구는 위협 인식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밝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식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강점이 있지만, 본 연구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위 연구와 필자의 연구는 위협의 원천과 유형이 다르다는 점이다. 아랍-이스라엘

---

6) Raymond Cohen, “Threat Perception in International Crisis,” Political Science Quaterly, 93-1, (Spring 1978), pp.93-107.
7) Carol Gordon & Asher Arian, “Threat and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nflict* 45-2, (April 2001), pp.196-215.

갈등, 유대인 간 성속 갈등에서 이스라엘인들은 갈등의 당사자이며, 집단 간 직접적인 갈등으로 위협을 느낀다. 한편 필자의 연구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 내부 갈등의 당사자가 아니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하는 위협의 형태도 직접적인 갈등으로부터 오는 위협이 아닌 아프가니스탄 내부 갈등으로 인한 불안정이 파급되는 형태이다.

두 번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외교정책 결정 과정이 이스라엘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책 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대통령과 일부 엘리트들의 영향력이 크다.[8] 키르기스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4개국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여왔으며, 외교정책 결정 과정 역시 이에 따른다. 키르기스스탄은 다른 중앙아시아 4개국과 달리 색깔혁명(Colour Revolution)을 통한 대통령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긴 하였지만, 위 4개국과 같이 외교정책 결정은 대통령과 엘리트들의 결정에 따른다.[9] 따라서 이러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특성을 설명하기에는 여론조사 의외의 다른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위 연구는 위협 인식이 갈등과 관련된 정책에 영향을 끼친다고 밝히고 있지만, 갈등의 강화 혹은 완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필자는 평화정착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분류한 제시한 바르넷, 김, 오도넬, 시테아(Barnett, Kim, O'Donnell & Sitea)의 틀을 바탕으로 위협 인식의 차이가 어떠한 평화정착 정책으로 이어지는지 밝히고자 한다.[10] 위의 비판을 바탕으로 필자는 제시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

8) Ji-Eun Lee, "Foreign Policy Formation of Authoritarian States in Central Asia Since 1991 Non-Institutional Domestic Factors in Kazakhstan and Uzbekistan," 『국제정치논총』 제50집 (3)호, 2010, pp.33-71

9) 2010년 6월 27일 발효된 키르기스스탄 헌법에 따르면, 국내 정책과 외교정책은 정부가 전권을 지니고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키르기스스탄도 정치 전반은 엘리트들이 독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Erica Marat, "Kyrgyzstan: A Parliamentary System Based on Inter-Elite Consensus," Demokratizatsiya 20-4, (Fall 2012), pp.325-344.

*10)* Michael Barnett, Hunjoon Kim, Madalene O'Donnell & Laura Sitea, "Peacebuilding: What is in a Name?," *Global Governance* 13(1) January - March 2007, pp. 35-58.

- **위협 인식이 높을수록, 폭력을 없애기 위한 경성 안보 분야의 평화정착 정책을 우선시할 것이다.**
- **위협 인식이 낮을수록,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한 연성 안보 분야 중심의 평화정착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위신은 개인과 국가의 행동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개념으로, 모겐소(Morgenthau)는 각국이 권력 투쟁 과정에서 사회적인 명성(Reputation)인 위신을 얻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모겐소 스스로가 인정한 것처럼, 당시 학자들은 위신보다 가시적인 물리적인 힘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11] 이후 위신은 경제학, 정치심리학적인 접근을 통하여 연성 권력(Soft Power), 신흥국(Rising Power)의 행태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연구되었다. 이러한 연구에서 위신은 자국의 위상을 높여 타국의 자발적인 경의(Voluntary Deference)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다. 또한 위신은 명성이라는 관념에 근거하기 때문에 상대적이고(Relative), 간주관적인(Intersubjective) 성격을 지닌다. 또한 위신은 기존 국제정치학 이론들이 무정부상태에서 국가들이 수평적인 위치에 있다고 전제한 것과 다르게 국가 간의 위계(位階)를 상정한다. 개인이 위신을 추구하는 경우, 개인의 위신 추구 행위는 사회 구성원, 혹은 현안의 관계자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행위로, 이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위신을 인정받게 되면 사회 혹은 현안 내에서 존중(Esteem)이나 영향력(Influence)을 갖게 된다. 이는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국가 행위자는 모두 위신을 추구하며, 위신 추구의 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12]

길라디(Gilady)는 베블런(Veblen)이 제시한 유한계급(有閑階級)의 과시적 소비(Conspicuous Consumption) 개념을 국가 차원으로 확대하여 합리적 선택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국가의 행위들에 대한 설명을 시

---

11) Hans Morgenthau & Kenneth Thompson, “The Struggle for Power: Policy of Prestige,” *Politics Among Nations*, (Beijing: Peking University Press, 1997), pp.86-100.

12) Jonathan Mercer. 2018. “The Illusion of International Prestige,” *International Security* 41(4), pp.135-139: Lilach Gilady, *The Price of Presti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8), pp.4-13.

도한다. 그는 사치품을 위신으로, 사치품을 구매하는 과시적 소비 행위를 위신 추구를 위한 정책 결정으로 간주한다. .[13] 메르체르는 전통적인 위신 개념에 도전하며 정치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부끄러움(Shame)과 자부심(Pride) 등 정책결정자들의 감정(feeling)이 국가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향후 국가들이 위신이라는 허상(Illusion)을 좇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4] 이러한 그의 주장은 강대국들의 행동을 위신으로 설명할 때 효용성을 지니지만, 위신을 추구하는 신흥국, 중견국, 신생국의 행동을 설명하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왜냐하면 기존 강대국이 아닌 국가의 입장에서 인정 추구를 통하여 위신을 획득하는 것은 계서화 된 국제체제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높힐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모겐소가 언급한 것처럼, 국제정치에서 위신은 투쟁의 대상이며, 국가는 자원을 투입하여 위신을 획득하고자 한다.[15]

위신은 중소국의 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개념으로 활용되어 왔다. 스토케(Stokke)는 약소국으로서 노르웨이의 주요 외교정책이 평화정착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스리랑카나 미얀마, 이스라엘-팔레스타인과 같이 먼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노르웨이의 평화정착 행위가 노르웨이의 평화,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가치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설명한다.[16] 야콥센, 링스무스와 색시(Jakobsen, Ringsmose & Saxi)는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 작전에 참여하는 이유를 소국의 위신 추구 행위로 설명한다. 이들은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미국 주도의 군사 작전에

---

13) Lilach Gilady (2018), pp.4-13.

14) Jonathan Mercer (2018), pp.135-139

15) 이는 비단 길라디만의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국가들은 위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대형 스포츠 경기 개최, 규범 외교, 동맹에 대한 기여, 공적 원조를 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화정착도 위신 추구의 방법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을 참고. Lincoln Allison & Terry Monnington, "Sport, Prestig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Government and Opposition* 37-1, Winter 2002, pp.106-134: Barry O'Neil, "Nuclear Weapons and National Prestige," *Cowles Foundation Discussion Paper* No. 1560, 2006: 김석수, 「일본 정부개발원조(ODA) 와 국익의 연계」, 『문화와 정치』 제3권 제1호, 2016, 83-108쪽.

16) Kristian Stokke, "Peace-building as Small State Foreign Policy: Norway's Peace Engagement in a Changing International Context," International Studies, 49-3&4, 2012, pp.207-301.

참여함으로써 위신을 얻고, 이렇게 얻어진 위신을 통하여 향후 미국에 영향을 끼치거나 미국의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7] 직접적으로 위신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카쎄노바(Kassenova)는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카자흐스탄의 행위의 동인 중 하나를 지위 추구(Status Seeking)라고 설명한다. 카쎄노바는 라르손과 셰브첸코(Larson & Schevchenko)가 제시한 지위와 지위 추구 행위를 수용하여 카자흐스탄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아프가니스탄에 인도주의, 개발 지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18] 이러한 주장은 현실주의에서 약소국의 행동을 균형과 편승, 헤징으로만 설명했던 것에서 벗어나 중소국의 입장에서 군사 작전과 평화정착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는 장점이 있으나, 본 연구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다음과 한계를 지닌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위 연구들이 평화정착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신과 평화정착 행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평화정착 연구에서는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외부 행위자들의 행위가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각 행위마다 어떠한 자원이 투입되었는지, 그로 인하여 어떠한 효과가 나타났는지 추적한다. 하지만 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다루기보다는 위신 추구와 관련된 문구를 찾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에 그친다. 스토케의 연구는 노르웨이 규범 외교의 원칙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카쎄노바의 경우에도 평화정착 행위의 일부인 인도주의적 지원, 개발 지원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자는 평화정착에 관한 행위 전반을 살피고,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행위를 분류, 비교하고자 한다.

---

17) Peter Viggo Jakobsen, Jens Ringsmose & Hakon Lunde Saxi, “Prestinge-seeking small states: Danish and Norwegian military contributions to US-led operation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ecurity*, 3-2, pp.256-277.

18) Nargis Kassenova, “Kazakhstan’s Policy toward Afghanistan - Context, Drivers, and Outcomes,” Amin Saikal & Kirill Nourzhanov(ed.), *Afghanistan and Its Neighbors After The Nato Withrawal*, (Lexington Books: London, 2016), pp.104-105.

두 번째 위신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파악하여야만 한다. 모겐소가 지적한 것처럼 위신은 인정을 통해 획득될 수 있는 투쟁적인 개념이다. 위에서 길라디의 주장은 위신을 얻기 위한 국가의 행위를 설명하고 있지만, 주변 국가들로부터 인정(Recognition)을 받았는지와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인정의 개념을 도입하여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정책에서 위신을 추구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행위를 평가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위신은 동인으로, 평화정착 정책의 실행과 주변 관찰자의 위신 인정은 그 결과로 보아야만 한다.

세 번째 위 연구들은 위신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기 쉬운 사례들로 연구를 설계하고 있으며,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모든 국가는 위신을 추구한다."라는 명제를 뒷받침하거나, "위신은 포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신을 추구하는 국가와 위신을 추구하지 않는 국가의 행동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위신 추구 여부가 국가 행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 볼 것이다. 위의 비판을 통하여 필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 **위신을 추구할수록, 과시적인 형태로 자국의 자원을 투입하는 평화정착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 **위신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 다른 행위자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실리적인 평화정착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지역안보복합체(Regional Security Complex)와 지역 단위의 평화정착에 관한 접근을 참고하여 지역 정치적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부잔과 웨버(Buzan and Waever)가 제시한 지역안보복합체는 지역 안보를 중심으로 글로벌 강대국, 지역 강대국, 지역국가 간 관계를 드러내는 접근 방식이다. 부잔과 웨버는 1991~2002년 중앙아시아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하부 지역(Subregion)으로 분류하였으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지닌 안보상 취약점과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비롯되는 위협,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라이벌 관계, 지역 내 강대국인

터키와 이란, 글로벌 강대국인 미국의 역할 등을 언급하였다.[19] 무시오(Musioł)는 부잔과 웨버의 개념을 확대하여 중앙아시아를 하나의 지역안보복합체로 규정하였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이 다른 지역과 중앙아시아를 구분하는 절연국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안보복합체에 아프가니스탄이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안보화 과정(Securitisation Process)의 중심에 있다고 본다.[20] 지역안보복합체 분석은 중앙아시아를 하나의 지역으로 묶어 지역 내 국가의 특징과 관계, 지역 외 국가, 글로벌 강대국 간의 관계를 통하여 안보를 지역 수준으로 개념화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안보복합체 개념은 안보 제공자로서 강대국의 영향권(Sphere of Influence)에 기반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아프가니스탄 문제와 같은 특정 현안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지역안보복합체 접근의 이러한 한계는 아프가니스탄을 특정 지역안보복합체에 포함되지 않는 분절국(Insulator)으로 분류하였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한계는 무시오가 시도한 것처럼 지역안보복합체의 범위를 넓히고, 다루는 현안을 추가하는 정도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알모하마드, 키르츠슬라게르, 그리고 쿠르텐바흐(Almohamad, Kirchschlager & Kurtenbach)가 주장한 것처럼 지역적인 맥락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알모하마드 등은 중남미와 중동, 사하라 이남(Sub Saharan) 지역의 갈등이 지역적인 맥락에서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평화정착도 지역적 접근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21] 이들의 주장은 지역적 맥락과 현안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접근법으로, 필자가 앞서 언급한 평화정착 현안을 살펴봄으

---

19) Berry Buzan & Ole Waever, *Regions and Powers -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Security*, (New York, N. Y.: Cambridge), pp.423-429.

20) Marek Musioł. "Post-Soviet Central Asia as a Unique Regional Security Complex," The Polish Quarterly of International Affairs, 4, 2015, pp.59-78.

21) Selman Almohamad, Markus Kirchschlager, & Sabine Kurtenbach, *Peacebuilding after War and Violence - Neighbourhood Matters*, GiGa Working Papers, December 2020.

로써 지역 정치적 함의를 이끌어내는 시도와 부합한다. 이들의 접근은 아직 아프가니스탄 이를 둘러싼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지역 내 갈등과 평화정착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고 있으며,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하여 지역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정착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리해보면 필자는 기존 연구를 통하여 위협 인식의 차이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과 위신 추구가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행위로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 연구들은 모두 갈등과 평화를 종속 변수로 다루고 있지만, 기존에 진행된 평화정착 연구의 구체적인 성과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하여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위협 인식의 차이와 위신이 어떠한 평화정착의 행위로 귀결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평화정착 정책 행위가 지역 정치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밝히고자 한다.

## 제 3 절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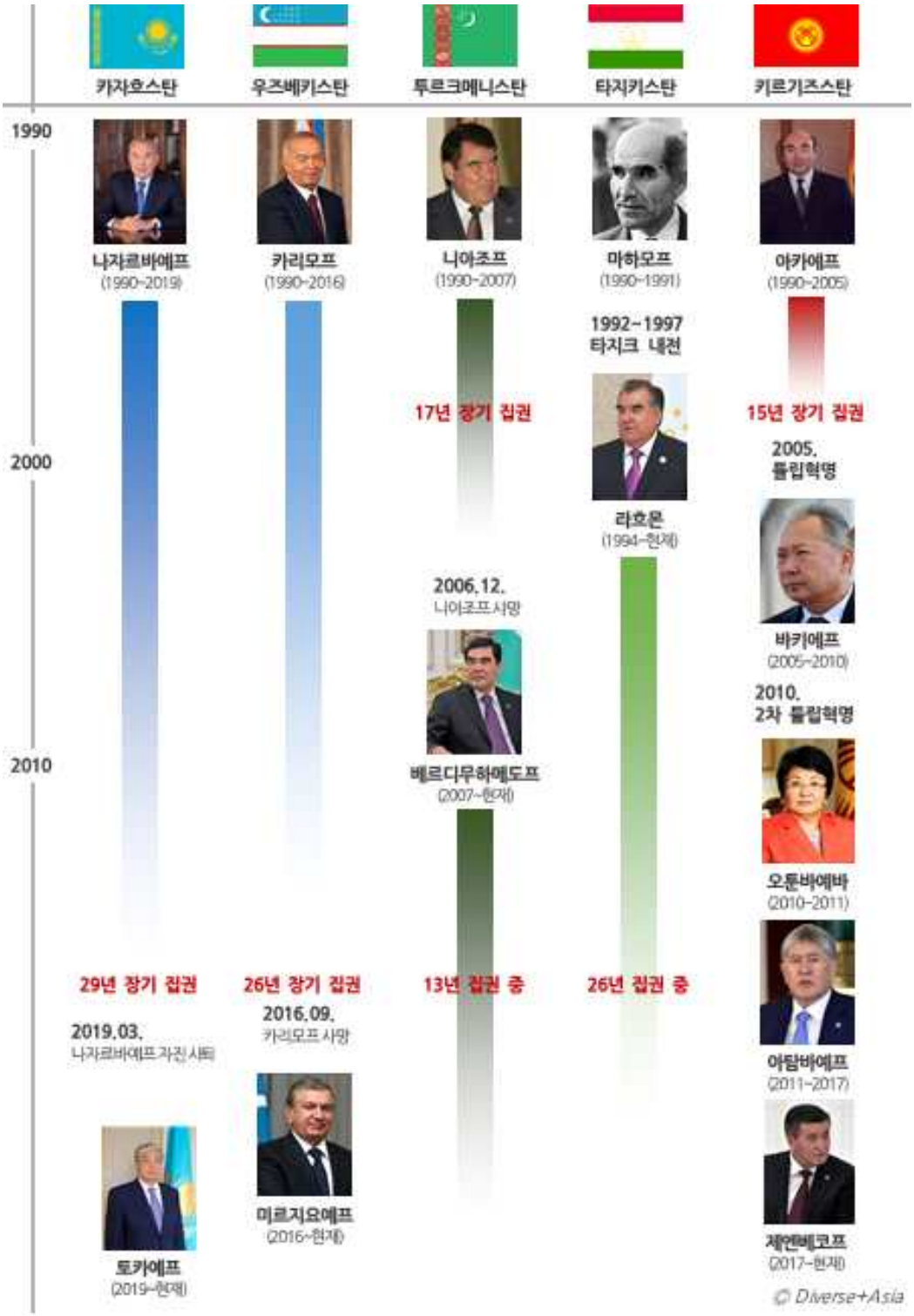
### 1. 연구대상 및 시기

위협 인식과 위신 추구와 같은 관념적인 개념으로 특정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현안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2010년에서 2016년까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추진하였던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정책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해당 시기는 신거대게임(New Great Game)이라고 불리는 강대국 간 정치인 상층부 정치의 변화가 나타났지만, 하층부 정치인 각국 국내 정치는 키르기스스탄을 제외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상층부 정치를 살펴보면 미국은 2011년부터 미군과 NATO 군으로 구성된 ISAF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시작하여, 2014년 마무리하였다. 2014년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합병하며 서구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으면서

중앙아시아 내에서 군사적 입지를 확대하지 못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대안으로 중국이 지역 내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기대는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시기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적 역할이 크게 강조되는 시기였다. 2010년 카자흐스탄이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의장국에 선출되었고, 2011년에는 아프가니스탄을 둘러싼 지역 국가 간의 내 신뢰 구축 기구인 이스탄불 프로세스(Istanbul Process)가 발족하였다. 양자적인 차원에서도 이 시기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모두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탈레반 간 평화 협상을 제안하였으며, 5개국 모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을 지원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시기 하층부 정치인 국내 정치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대통령들의 장기 집권 체제가 유지 중이었으며, 키르기스스탄은 2010년 4월 6일~12월 14일간 진행된 혁명 이후 알마즈벡 아탐바예프(Almazbek Atambaye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취임하여 2017년 11월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2016년 9월 25년간 장기 집권 해오던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대통령이 사망하였다. 뒤를 이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개방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카리모프 대통령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비교적 국내 정치의 변화 폭이 작았던 2010~2016년을 연구 시기로 설정하여 국내 정치 요인을 통제하고자 한다.




[그림 1-3]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통령 재임 기간(2020년 8월 현재)

출처: 고재남, 「중앙아시아의 장기집권 권위주의 정치」, 『다양성+아시아』 10호, 2020.

주: 각국 독립 이전 대통령들은 각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서기장을 역임하였으며, 위의 재임 기간에는 서기장을 역임한 기간도 포함되어 있다.

##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5개국의 외교정책을 비교를 진행하면서,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정책의 차이를 형성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비교외교정책 분석(Comparative Foreign Policy Analysis)은 체제 수준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는 거대이론과는 달리 행위자의 행위에 집중하며, 행위자의 정체성, 이익, 의도, 위협 인식, 지리적 위치, 역량, 국내 정치체계, 국가 구조, 경제, 종교 등의 요인들이 외교정책에 끼치는 영향을 밝히는 방법이다.[22]

비교외교정책 분석은 비교의 관점에서 국가들의 외교정책 행동을 유형화하고 이를 분석하여 국가 행동에 끼치는 요인들을 드러내고, 이를 일반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연구 방법이다.[23] 비교외교정책 분석은 전통적으로 방대한 사건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을 진행하여 왔으나[24], 일부 학자들은 지도자나 의사결정자들의 인식을 살피기 위한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를 진행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영과 셰퍼(Young & Schafer)는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이 국제체제 내 국가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이익과 국가 역량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25] 이러한 이들의 주장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외교정책 행동을 이해하는 데 긴요하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비교외교정책 분석은 주로 양적 방법을 통하여 진행되었으나, 특정 사안과 국가들의 행동, 비교 가능한 국가들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면 결국 소수 연구(Small-N Study)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두 번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앙아시아는 외교정책 결

---

22) Juliet Kaarbo, Jeffrey S. Lantis, and Ryan K. Beasley. “The Analysis of Foreign Policy in Comparative Perspective,” *Foreign Policy in Comparative Perspective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fluences on State Behavior*, (SAGE, 2013), pp.4-26.

23) Jean-Frédéric Morin & Janathan Paquin, *Foreign Policy Analysis - A Toolbox*, (Palgrave Macmillan, 2018), p.9.

24) Benjamin S. Day & Valerie M. Hudson, *Foreign Policy Analysis - Classic and Contemporary Theory*, (Lanham: Rowman&Littlefield, 2020), pp.19-20.

25) Michael D. Young & Mark Schafer, “Is There Method in Our Madness? Ways of Assessing Cogni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Mersho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42-1, May 1998, pp. 63-96

정 과정에서 대통령과 엘리트들의 권한과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앙아시아 5개국은 대통령과 엘리트들이 외교정책을 결정한다. 세 번째 비교를 통하여 관념적인 개념도 높고 낮음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앞서 언급한 위신 연구의 한계인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필자는 영과 셰퍼의 방법을 수용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정책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중앙아시아 5개국은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로, 유사한 역사적 경험과 대통령제 국가 구조, 행정 체계를 지녔으며, 각국의 무슬림 인구 비중이 70% 이상이라는 것과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에서 야기된 문제들을 모두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하지만 이러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대외 환경에 대한 반응과 대내적 요구에 따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정책에서 차이를 보인다. 접경한 국가들인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은 종교적 극단주의, 테러, 마약 등 위협의 확산을 관리하고, 정권의 생존과 사회적 안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은 조속히 아프가니스탄 내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고자 한다. 한편 비접경 국가인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위 3개국보다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따라서 즉각적인 안보를 위한 수단을 동원하기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공동점과 차이점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 | 카자흐스탄 | | 키르기스스탄 | | 타지키스탄 | | 우즈베키스탄 | | 투르크메니스탄 | |
|---|---|---|---|---|---|---|---|---|---|---|
| 정치체제 | 대통령제 권위주의 | | 대통령제 민주주의 | | 대통령제 권위주의 | | 대통령제 권위주의 | | 대통령제 권위주의 | |
| GDP (억 달러) | 2010 | 2016 | 2010 | 2016 | 2010 | 2016 | 2010 | 2016 | 2010 | 2016 |
| | 1,480 | 1,373 | 47.94 | 68.13 | 56.42 | 69.53 | 466.8 | 817.8 | 225.8 | 361.8 |
| 인구 (만 명) | 2010 | 2016 | 2010 | 2016 | 2010 | 2016 | 2010 | 2016 | 2010 | 2016 |
| | 1,632 | 1,779 | 544.8 | 608 | 752.7 | 866.4 | 2,856 | 3,185 | 508.7 | 566.2 |
| 무슬림 비중 (2010년, %) | 70.2 | | 86.4 | | 99 | | 96.5 | | 93.3 | |
| 아프간과의 접경 여부 | X | | X | | O | | O | | O | |
| 아프간 문제 위협 인식 | O | | O | | O | | O | | O | |
| 외교정책 지향 | 개방적 다자주의 | | 개방적 다자주의 | | 러시아 의존적 | | 자주 노선 | | 영세 중립 | |

**[표 1-1]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체계, 경제, 사회적 지표, 아프가니스탄과 접경 여부 비교**

**출처: 세계은행, 각국 외교부 사이트, 카자흐스탄 통계청, Pew Research Center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

http://www.eng.stat.kz/news/Pages/n1_12_11_10.aspx

https://www.pewforum.org/2011/01/27/table-muslim-population-by-country/

## 3. 자료의 활용

중앙아시아 5개국의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전략을 비교하기 위하여 필자는 먼저 각국이 발표한 외교, 안보 정책과 관련된 주요 문서를 활용할 것이다. 각국의 <국가전략>, <국가안보개념>, <국사 독트린>,

<외교정책 개념>은 외교, 안보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이자 정책 결정의 원칙이다. 이러한 문서를 통하여 각국이 지닌 상황 및 위협 인식, 이익, 위신, 외교정책 지향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5개국은 모두 대통령과 엘리트들이 외교정책 결정에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통령들과 주요 관료들의 연설문, 회담 등 공식 행사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진 내용을 참고할 것이다. 또한 위의 외교정책과 관련된 기초 문헌 이외에도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정책과 관련된 각국 정부의 발표 자료, 신문 기사, 통계 자료 등을 참고할 것이다.

또한 위신 추구 행위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타국의 인정도 함께 고려되어야만 한다. 필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정책에 대한 인정의 주체로 당사자인 아프가니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 중인 미국, 러시아, 중국을 선정하여 중앙아시아 국가에 대한 이들의 입장을 살펴볼 것이다.

## 제 4 절 논문의 구성

본고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평화와 평화정착의 개념과 이론적인 배경을 검토하고 위협 인식과 위신 추구 행위의 개념과 측정 방식을 정리한다. 위협 인식과 위신 추구을 중심으로 평화정착 정책을 규정하는 설명의 틀을 제시한다. 그 다음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아프가니스탄 문제 인식과 평화정착 정책 전개를 정리하고, 위협 인식과 위신 평화정착 정책의 틀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정책을 분석하여 유형화를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응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행위를 검토함으로써 살펴볼 수 있는 지역 정치적 특징을 제시하고 그 함의와 시사점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제 2 장 평화정착 정책의 동인으로 위협 인식과 위신 추구

## 제 1 절 평화정착의 이론적 배경과 행위

### 1. 평화정착의 이론적 배경

#### (1) 국제정치학에서 평화의 개념

평화정착 정책의 동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평화의 개념과 평화정착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요한 갈퉁(Johan Galtung)이 제시한 폭력(Violence)과 평화(Peace)의 개념은 평화정착을 위한 연구의 기반이 되었다. 갈퉁은 먼저 폭력의 형태를 고의적인 위해가 가해지는 폭력을 직접적인 폭력으로, 구조에 의하여 의도하지 않은 폭력이 가해지는 것을 구조적인 폭력으로,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을 문화적 폭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그는 어떠한 종류의 폭력이 사라진 상태를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로, 협력과 평등으로 나아가는 것을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로 규정하였으며, 평화를 소극적 평화에서 더 나아가 경제, 평등,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를 건설할 수 있는 협력을 구축하고,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6] 갈퉁이 주장한 이러한 평화의 개념은 국제정치학에서도 수용되어 발전되었다.

국제정치이론에서 평화는 각 이론이 기반한 전제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먼저 현실주의는 자기 이익을 지닌 국가가 세력 균형을 통하여 평화를 이루는 엘리트 중심의 부정적 평화를 지향한다. 현실주의에서 개인은 폭력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본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

26) Johan Galtung, "Postive and Negative Peace," *Pioneer of Peace Research*, (Springer, 2013), pp.173-178.

강력한 국가를 형성한다.[27] 현실주의에서는 이렇게 형성된 국가들을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단일 행위자로 상정하며, 무정부상태(Anarchy)인 국제체제에서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는 주체로 본다. 이들 국가는 국가 간 세력 균형을 통하여 폭력이 부재한 상황인 조성할 수 있지만,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군비 확충 등의 자조 행위는 타국에 위협으로 비추어지며, 이러한 외부적 불확실성은 안보 딜레마를 야기한다.[28]

신자유주의는 신현실주의와 전제를 공유하고 있지만, 신현실주의가 규정하는 부정적인 평화에서 더 나아가 협력과 번영으로 이어지는 상태 혹은 이를 추구하는 태도로 확장된다. 무정부상태 신현실주의의 인간관과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단일 행위자로서의 국가, 무정부상태인 국제체제라는 전제를 공유하지만,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평화의 구축 가능성을 제시한다. 코헤인과 나이(Keohane & Nye)는 국가 간 상호의존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국가 간 관계의 현안은 다층적으로 형성되며, 이러한 복합적인 상호의존이 이루어지게 되면 더이상 국가 간 분쟁을 군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29] 코헤인은 제도적 자유주의가 인류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협력적인 제도를 구축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이를 위하여 정진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30] 또한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와 개인이 위협받지 않는 보편 평화(Universal Peace)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제주의, 상호의존, 전쟁 없는 평화, 무기 감축, 시민과 국가의 자기 결정권, 세계정부, 세계연방 등 다양한 평화 구축의 방안을 내놓았다. 자유주의자들은 평화로운 상태 그 자체와 더불어 이를 추구하는 과정도 평화로 여긴다.[31]

---

27) Thomas Hobbes, Leviathan, ed. A. R. Waller (Cambridge: Cmabrdige University Press, 1904), pp..81-86.

28) John H. Herz, "Idealist Internationalism and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2-2 (Jan, 1950), pp.157-180: Baylis, J. and Smith, S.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3rd ed. pp.10-20.

29) Robert Keohane & Joseph Nye, *Power and Interdependence*, (Longman, 2011), 4th ed. pp.20-21.

30) Robert Keohane, "Twenty Years of Institutional Liberalism," *International Relations* 26-2, 2012, pp.125-126.

31) Oliver Richmond, "Pea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he Palgrave*

구성주의는 단일 행위자로 이성적인 국가를 상정하지만, 무정부 상태를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으로 보는 현실주의와 이러한 상황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는 자유주의와는 다른 관점을 취한다. 웬트(Wendt)는 무정부상태를 문화(Culture)로 보고, 국가들의 인식과 행동에 따라 갈등적 문화, 갈등과 협력이 병존하는 문화, 협력적 문화가 생겨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구성주의는 개별 국가의 정체성이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과 관념(Idea)도 변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32] 이러한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아들러(Adler)는 국가들이 공동으로 직면한 안보 현안에서 '메타-정체성(Meta-Identity)'을 형성하여 상상의 안보 공동체(Imagined Security Communities)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33]

### (2) 평화정착의 이론적 배경과 행위

평화정착(Peacebuilding)은 갈등을 통해 발생한 폭력을 제거하고 갈등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구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갈등은 개인, 사회 집단, 인종, 종교, 국가 등 모든 층위에서 발생하며, 갈등의 당사자 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경우 다양한 층위(Level)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특정 국가 내에서 발생한 갈등이 국가 내에서 해소되지 않고 주변국, 주변 지역, 지구적으로 영향을 끼칠 경우, 제3국이나 국제기구가 관여하여 갈등 당사자들 간의 폭력을 제거하고 협상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낸다. 갈등으로 파괴된 공동체와 국가,

---

*Handbook of Disciplinary and Regional Approaches to Peace*, (Palgrave Macmillan, 2016), p.59.

32) Alexander Wendt,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2 (Spring, 1992), pp.391-425: Alexander Wendt, "Three Cultures of Anarchy,"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dige University Press, 1999), pp.246-312.

33) Emanuel Adler, 'Imagined (Security) Communities: Cognitive Regions in Interna- tional Relations',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26-2, (1997), pp.249 - 277.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복원하여 갈등의 재발을 방지하고,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 평화정착의 목적이다.[34]

평화정착 행위는 행위자에 따라 하향식(Top-Down)과 상향식(Bottom-Up)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향식 평화정착은 제3국과 국제기구, NGO 단체 등 외부로부터의 개입과 주도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국가 수준에서 정치, 경제, 사회 제도적 복원과 전환, 정치 지도자 간의 중재와 평화 협상·합의, 사회경제적 지원 등이 포함된다. 한편 비판주의자들은 이러한 하향식 평화정착을 현지의 전통과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서구의 정치, 경제 체제를 이식한다며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로 평가하였다. 상향식 평화정착은 비판론자들의 비판을 수용하여, 현지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일상에서의 평화(Peace in Everyday Lives)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인과 사회적인 수준에서 사회운동가와 NGO의 밀접한 접근을 통하여 이루어진다.[35]

앞서 국제정치이론들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평화정착에 관한 연구를 주도해온 것은 자유주의자들이었다. 자유주의자들이 제창한 자유적 평화정착(Liberal Peacebuilding)은 갈퉁의 적극적 평화 개념과 민주주의 국가가 늘어날수록,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도일의 민주평화론에 기반한다.[36] 따라서 자유적 평화정착의 목표는 갈등 상황에서 폭력이 부재한 상황을 조성하는 부정적 평화에서 더 나아가 갈등의 재방을 방지하고 자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의 이식, 국제적 협력 관계 및 제도의 구축으로 완성되는 긍정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들은

---

34) Ho-Won Jeong, "Introduction," Ho-Won Jeong ed., *Approches to Peacebuilding*, (Palgrave Macmillan, 2002), pp.3-10: Barnett 등 (2017), p..37.: David Chandler, *Peacebuilding - The Twenty Years' Crisis, 1997-2017*, (Springer, 2017), pp.62-63: Edward Newman, "The International architecture of peacebuilding," *Routledge Handbook of Peacebuilding*, (Routledge, 2013), pp.312-313.

35) Michael Pugh, "The Problem-Solving and Critical Paradigms," *Routledge Handbook of Peacebuilding*, (Routledge, 2013), pp.12-14.

36) Michael Doyle (1983): Michael Doyle & Nicholas Sambanis, "International Peacebuilding: A Theoretcial and Quantitive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4-4, (December, 2000), pp.779-781.

평화를 정착하는 방법과 그 방법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시기를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유주의적 가치를 강조하는 서구 국가들, 국제기구, 비정부기구들은 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정착 과정에 개입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이러한 화합을 뿌리내릴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환경들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먼저 정치적인 분야에서는 국가 건설(State Building), 자유 정부 수립, 선거제 도입, 다당제 체계 확립, 정치적 자유의 보장 등이 포함된다. 자유롭고 개방된 시장 경제 체제의 수립,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한 인프라 건설, 고용 안정화, 금융기관의 재건과 역량 강화 등이 평화정착 과정 경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조치들이다. 사회적인 분야에서는 시민사회 정착을 위한 교육, 인권 보장, 인도주의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안보 분야에서는 갈등 집단 간의 화해, 무장해제와 전투원의 사회 복귀 지원, 갈등으로 파괴된 안보 체계 수립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37] 하지만 이러한 자유주의적 평화정착이 서구 국가의 일방적인 조치와 현지인들의 반발이 발생하면서 평화정착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자유적 평화정책에 대한 비판하는 학자들은 자유적 평화정착이 현지의 권력 및 사회관계, 문화, 제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현지인들에게 서구의 가치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례로 색깔혁명(Color Revolution) 이후 중동에서는 각 독재정권의 붕괴 이후 서구 국가들과 자유주의적 가치를 지향하는 국제기구가 자유적 평화정착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자유적 평화정착은 과정에서 제공된 지원금들은 엘리트들의 부패로 이어졌으며,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회, 경제적으로 혼란한 상황이 야기되었다.[38] 또한 자유주의적 접근은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의 평화정착 행위를 분석하는 데 강점을 지니고 있으나 소위 권위주의 정부로 분류되는 국가들의 행위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자유주의 국가와 같이 권위주의 국가도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안보에 위협 요인으로

37) Michael Barnett 등 (2007), p.37.

38) Philippe Le Billon, "Corrupting Peace? Peacebuilding and Post-conflict Corruption," *International Peacekeeping*, 15-3, 2008, pp.344-361: Roger Mac Ginty ed., *International Peacebuilding and Local Resistance - Hybrid Forms of Peace*, (Palgrave Macmillan, 2011)

작용할 수 있는 약한 국가의 거버넌스, 무장 갈등을 방지하거나 특정 지역 혹은 국가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39]

한편 현실주의에 입장에서 평화정착은 초창기 세력 균형을 통하여 폭력이 부재한 상황을 조성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신흥 안보적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연구되었다. 뉴만(Newman)은 위협과 안보의 차원에서 평화정착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그는 갈등으로 야기된 안보, 경제, 사회적 불안정이 주변국이나 체제적인 차원에서 불안을 야기하며 평화정착은 이러한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책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40] 여기서 더 나아가 카를수르드(Karlsrud)는 자유적 평화정착에 대한 회의를 표명하면서 서구 민주주의의 쇠퇴로 인하여 평화정착이 자유주의 가치의 이식보다 안정화(Stabilization)와 대테러(Counterterrorism) 정책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평화정착이 서구가 주장하는 자유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의 이식보다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안보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지적하였다.[41] 이외에도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평화정착은 폭력의 제거인 부정적 평화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국의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일례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의 안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미국을 공격한 알카에다와 협력하는 테러 단체를 박멸하는 것과 더불어 테러 집단의 온상으로 여겨졌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내에 친미 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현실주

39) 최근 이러한 권위주의 국가의 평화정착 행위는 권위주의적 갈등 관리(Authoritarian Conflict Management, ACM), 비자유적 평화정착(Illiberal Peacebuilding) 등으로 개념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자국 내에서의 평화정착과 갈등 관리만을 다루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제3국으로서 타국의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행위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위의 개념을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위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을 참고. Claire Smith et al, "Illiberal peace-building in Asia: a comparative overview," *Conflict, Security & Development*, 20-1, 2020, pp.1-14.; David Lewis et al, "Illiberal peace? Authoritarian modes of conflict management," *Cooperation and Conflict*, 53-4, 2018, pp.486-506.

40) Edward Newman, "Peacebuilding as Security in 'Failing' and Conflict-Prone States," *Journal of Intervention and Statebuilding*, 4-3, 2010, pp.305-322.

41) John Karlsrud, "From Liberal Peacebuilding to Stabilization and Counterterrorism," I*nternational Peacekeeping*, 26-1, 2019, pp.1-21.

의자들의 입장에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평화정착을 수행한다는 미국의 행위는 영향력 확대를 정당화하는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물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현실주의, 자유주의와 달리 구성주의는 관념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행위를 설명한다. 구성주의자들은 국가가 물질적인 이익,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느끼지 않음에도 제3국의 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 공적 원조 지원을 제공하는 동인을 국제규범에서 찾는다.[42] 또한 구성주의자들은 안보에서도 국가의 물리력 증가와 관련하여 물리력의 의도와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한국이 중국이 지닌 핵전력보다 북한이 지닌 핵전력을 위협으로 판단하는 원인을 구성주의자들은 분단의 상황에서 북한이 지닌 한국에 대한 공격 의도가 중국에 비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43] 이러한 구성주의의 접근은 개별 국가가 처한 상황과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국가들의 행위, 그리고 그 동인으로서의 인식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며 특정 국가의 행동을 설명하는 강점이 있다.

구성주의는 자유주의와 현실주의를 통해 설명될 수 없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행위를 설명하는 다음과 같은 강점을 지닌다. 첫째, 구성주의적 접근은 자유주의에서 제시하는 자유적 평화정착으로는 설명되지 않았던 권위주의 국가인 중앙아시아의 평화정착 기여 행위를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지역 안보의 위협 요소인 테러와 종교적 극단주의의 억제, 불법 이민 등 지역 내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지원 등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중앙아시아 국가의 행위는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행위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규범뿐만 아니라 종교적 극단주의, 테러로 인한 역사적 트라우마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위협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됨으로 구성주의적 접근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행위를 설명하는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

42) Ethan A. Nadelman, “Global Prohibition Regimes: the Evolution of Norms in International Socie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3, (December 1990), pp.479- 526.

43) 최종건, 「안보학과 구성주의: 인식론적 공헌도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9집 5호, 2009, p.88-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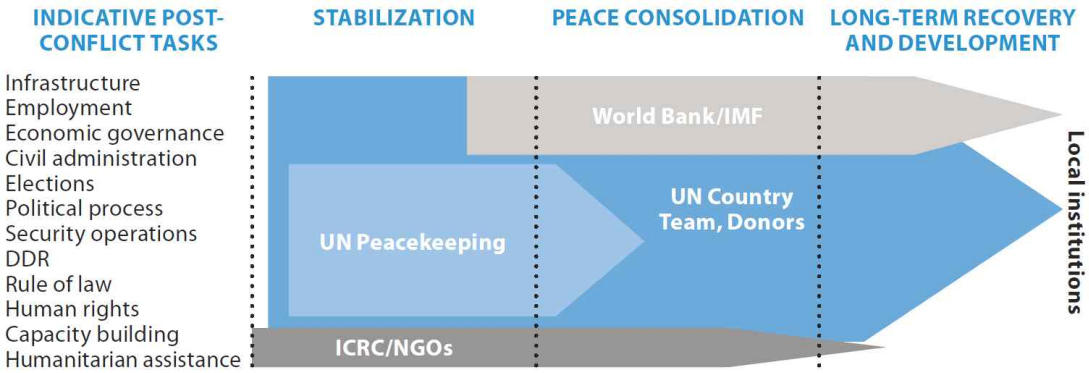
둘째, 본고가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2010~2016년 간 중앙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행위를 살펴보면, 타국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제공을 곧 타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 행위로 여기는 현실주의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만약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면 사회경제적 지원에 조건을 제시하거나,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자국의 영향력이 축소될 경우 지원을 중단하는 등 아프가니스탄 내 입지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연구 대상이 되는 기간 내 그러한 행동을 살펴볼 수 없었으며,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소재로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구성주의적 접근은 개별 국가의 행위를 분석하는 외교정책 분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구성주의는 관념적 요인인 개별 국가의 위협 인식의 차이, 규범에 대한 존중 여부, 역사적 경험, 문화를 통해 개별 국가의 행위를 설명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러한 구성주의적 접근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정책에 대한 동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 2. 평화정착의 행위

평화정착은 개인, 지방, 인종, 국가, 지역, 지구적 차원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를 망라하는 다층적, 복합적인 절차이다. 평화정착의 다층적, 복합적 성격으로 인하여 평화정착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단기, 중기, 장기적인 목표들로 세분화되어 진행된다. 평화유지 작전을 진행하는 UN은 안정적으로 평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단계와 행위를 구분하여 국가, 국제기구, NGO,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다음 [그림 3]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아래 [그림 3]은 UN의 평화유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첫 번째, UN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만

큼, UN과 국제기구, NGO 등의 역할과 행위를 보여줄 뿐, 개별 국가들이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 평화 유지와 정착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행위와 시기와 관련하여서도 UN 회원국 팀과 공여자는 아래 그림에서 구분된 모든 시기, 모든 행동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평화정착에 참여하는 개별 국가의 특수한 행위를 특정하고 그 동인을 밝혀내기 어렵다. 따라서 개별 국가가 특정 평화정착 사안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그 동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림 2-1] UN 다각 평화유지작전의 핵심 사업

주1: DDR은 전투병력의 무장해제 및 사회적응(Disarmament, demobilization, reinsertion and reintegration)의 약칭임.

주2: ICRC는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의 줄임말임.

출처: Pax et Bellum (http://www.paxetbellum.org/2018/01/21/civil-military-coordination-insights-united-nations-stabilization-mission-haiti/) (검색일: 2021.04.30.)

따라서 필자는 바르넷 등(Barnett et al.)이 규정한 평화정착의 행위 구분을 차용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바르넷 등은 평화정착을 위한 행위를 분야별로 안보 및 군사 분야, 사회, 경제, 발전, 인도주의 분야, 정치 및 외교 분야, 정의 및 화해 4분야로 구분하였다. 바르넷의 구분을 옮기면 다음 [표 2-1]과 같다. 또한 바르넷 등은 평화정착을 3가지 차원으로 나누었다. 바르넷 등은 자신들이 제시한 구분에 따라 다자기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의 정부 기관과 국제기구의 평화정착 행위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유형화는 위의 UN이 제시한 평화 유지 작전에서의 개별 행위자가 행하는 평화정착 행위의 특징을 명징하게 드러내는 강점을 지닌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바르넷 등이 제시한 위 행위 유형을 그대로 수용하여 논지를 전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위 행위들은 국제체제 수준에서 서구의 강대국들과 그들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평화정착 행위라는 점이다. 바르넷 등은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행위자들의 행동을 분류할 때 특정 지역, 혹은 특정 현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결론에서 그들도 밝히고 있듯이, 평화정착의 행위는 현실에서 다양하게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률적으로 유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44] 따라서 위의 정의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바르넷 등은 평화정착 행위를 유형화하는 데 그쳤을 뿐 특정 평화정착 행위를 추동하는 동인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다. 결론에서 그들은 평화정착의 제도화가 실증적인 분석이 아닌 관료들의 권력과 정치적 경쟁(Political Infighting)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추정하지만, 평화정착과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행위자들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필자는 행위자들이 처한 특정 지역과 현안을 특정하여 바르넷 등이 직면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지역과 현안을 고려하여 평화정착 행위를 접근하면 행위자들이 처한 구조적 환경과 그 행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접근을 통하여 바르넷 등이 유형화에 그쳤던 평화정착의 행위들과 개별 국가들의 동인의 인과관계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44) Michael Barnett 등 (2007), p.52-53.

| 분야와 행위 | 설명 및 예 |
|---|---|
| **안보 분야** | |
| 지뢰 제거 | 지뢰를 제거함. |
| 전투 병력의 무장해제 및 사회적응 | 전투 병력의 무장 해제 및 사회 적응 |
| 안보 부문 개혁 | 민주적 개혁, 안보군·경찰의 재훈련, 효율과 윤리를 강조하는 부문 개혁 |
| 소형 무기 제거 | 소형 및 경무기 제거 |
| 안보 안정화 | 갈등 이후 위협 및 테러 배제(clearance) |
| 갈등 평가 및 조기 경고 | 갈등 평가 체계/연구 및 조기 경보 체계 개발 |
| 국방 외교 | 무기 통제 합의, 선박·비행기·기타 군사 부대와 더불어 각 수준의 군·개인 인사 방문, 관계자 회담 |
| **사회, 경제, 개발, 인도주의** | |
| 재건 | 건물, 공공시설, 건축물 등의 물적 재건 지원 |
| 인프라 | 경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원 |
| 경제 회복 | 주요 생산 분야에 대한 투자 및 교역, 저축, 국내외 투자 재개 조건(거시경제 안정화, 재정기관 복구 등) 조성 |
| 재정 지원 | 효율적인 안정화를 위한 재정 지원 |
| 정책 및 기술 지원 | 재정, 통화, 환율 정책을 수립·실행할 수 있는 주요 경제 기관의 역량을 복원하기 위한 지원 |
| 보건 및 교육 | 재발(recurrent) 방지 비용을 포함하여 교육·보건 인프라 재건 및 유지 |
| 식품 및 농업 지원 | 갈등 이후 식량 확보 및 농업 정책(농업 용지 해제 releasing land for agricultural purpose 등)에 대한 지원, 자문 제공 |
| 미디어 지원 | 자유 독립 언론의 개발 및 지원 |
| 난민의 본국 송환 지원 | 난민의 귀환 지원 |
| NGO 역량 강화 지원 | 갈등 해소 활동을 위하여 자원을 투입하고 지리적으로 더 넓은 지역을 포괄하는 비정부 기구 및 지역사회 기반 기구 네트워크 구축 |
| 트라우마 상담 | 정신적 상담, 트라우마 상담 제공 |

| 정치 분야 | |
|---|---|
| 정치 외교적 평화 합의 및 중재 | 평화 합의의 협상 및 진행 |
| 민주화 | 민주적 제도와 민주적 의도를 포괄하는 교육, 문화 분야 활동을 지원 |
| 탈중앙집권화 | 정치적 권위의 탈중앙집권화 지원 |
| 선정 (Good Governance) | 정부의 윤리, 투명성, 책임감 강조 |
| 법치 | 법과 정의, 사법 체계 수립 및 사법 개혁 |
| 제도 확립 | 정부의 지방 기관 복원 등 민주 제도 및 절차 개발 지원 |
| 인권 | 국제 인권 표준, 학대 감시 및 보고에 관한 인식 확산 |
| 선거 지원 | 선거 지원 및 감시 |
| **정의 및 화해** | |
| 지도자 대화 | 지도자 간 대화 기회 마련 |
| 지역사회 대화 | 지역사회 내 반감을 지닌 집단 간 대화 기회 마련 |
| 가교 놓기 | 인종 간 신뢰, 관 및 국가 기관의 신뢰 강화 |
| 진실 규명 및 화해 | 과거, 현재의 폭력 사태에 관한 조사위원회 등을 조직하여 화해 추진 |

**[표 2-1] 바르넷 등이 제시한 평화정착을 위한 분야별 행위 구분과 그 설명**

출처: Barnett 등 2007, pp.46-47.

## 제 2 절 위협 인식과 평화정착 정책

### 1. 위협 인식의 정의와 측정

위협은 가해지는 위험이나 위해에 관한 예측으로, 특정 행위자에 의하여 언어적인 형태와 물리적인 형태로 가해진다. 정책결정자가 위협을 인식한다는 것은 위협을 관찰하여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이며, 이 평가에 따라 정책결정자는 위협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 결정하게 된다.[45]

위협의 인식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는 접근 방법과 여론조사를 통하여 개인의 위협 인식이 집단의식으로 구성되어 정책으로 연결되는 것을 규명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먼저 코헨은 사례 연구를 통하여 국가 단위에서 지리적인 요인, 행위자 간의 관계, 관측자(정책결정자)가 느끼는 취약성을 기준으로 제시한다.[46] 이러한 방법은 개별 국가의 정책결정자 입장에서 위협을 평가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닌다. 한편 이러한 접근 방식은 내부 국가 구성원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없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여론조사를 통한 개인의 위협 인식을 파악하는 방법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연구는 국가 내부 구성원들의 인식이 정치화, 안보화 과정을 거쳐 사회 및 국가의 집단의식으로 구성되고, 정책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로소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과 일본인들의 인식 조사와 집단의식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살폈다.[47] 이러한 접근 방식은 민주주의 국가 내 개인들이

---

45) Cohen (1968), p.95: 발드윈은 위협에 관하여 게임이론, 사회심리학,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정의를 시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David Baldiwn, “Thinking about threat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15, (1971), pp.71-72를 참고: Janice Stein, “Threat Percep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Oxford, 2013), pp.364-365.

46) Cohen (1968), pp.95-98.

47) David Rousseau, Identifying Threats and Threatening Identities -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sm and Liberalism*, (Standford: Standford University Press, 2006), pp.10-20.

지닌 위협 인식이 정책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강점을 지니고 있으나, 국민 각 개인의 인식이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는 권위주의 국가의 행동을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필자는 코헨의 접근법 중 일부와 구성주의의 설명의 틀을 일부 차용하여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필자는 코헨이 제시한 위협 인식을 파악하는 요인으로 지리적 요인과 더불어 구성주의에서 위협을 규정하는 요인으로 다루어지는 역사적인 경험, 그리고 외교, 안보 정책과 관련된 문서와 발언을 통하여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위협 인식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위협 인식의 높고 낮음을 구분할 수 있다.

- **위협 요인으로부터 지리적으로 가깝고, 위협 요인이 역사적 트라우마를 자극하며, 지도자들이 위협으로부터 취약하다고 느끼는 경우, 위협 인식이 높다.**
- **위협 요인으로부터 지리적으로 멀고, 위협 요인이 역사적 트라우마를 자극하지 않으며, 지도자들이 위협으로부터 취약하다고 느끼지 않는 경우, 위협 인식이 낮다.**

## 2. 위협 인식과 평화정착 정책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화정착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카를수르드는 2012년대 이후 서구가 기존 자유적 평화정착에서 성과를 보지 못하자 안정화와 테러 대응을 위한 방편으로 평화정착을 추진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말리(Mali)에서 이루어지는 UN 평화유지작전에서 보이는 서구의 태도가 과거 자유적 평화정착을 위한 민주주의 정부의 수립과 자유롭고 개방된 시장 경제의 도입을 최선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48] 실제로 말리에서 활동 중인 UN 말리 다각적 통합 안정화 임무(United Nations Multidimensional Integrated Stabilization Mission in Mali, MINUSMA)

48) Karlsurd (2019), pp.10-11.

는 △ 안보 확립, △ 시민 보호, △ 국내 정치 담화 및 화해 지원, △ 국가 기관 재수립을 위한 지원, △ 안보 분야 재건, △ 인권 증진 및 보호를 목표로 활동 중이며, UN 다각 평화유지작전의 주요 사업을 명시한 [그림 2-1]보다 사업의 내용이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말리에서 MINUSMA의 사업 분야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바르넷 등이 제시한 평화정착 활동([표 2-1])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안보, 사회경제, 정치 세 가지 분야에서 평화정착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평화정착 행위는 안보를 확립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

카를스루드의 주장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위협 인식과 평화정착 정책을 명징하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보를 중심으로 평화정착 정책의 유형을 구분하고 특정 항목들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경성 안보(Hard Security)와 연성 안보(Soft Security)의 개념을 차용하여 바르넷 등이 제시한 평화정착 행위를 안보의 관점에서 경성 안보적 행위와 연성 안보적 행위로 구분해보고자 한다. 먼저 경성 안보는 군사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응하거나 제거하는 방식을 취한다. 경성 안보의 특징은 주로 위협이 외부 혹은 국가 간 관계에서 발생하며, 지리적, 군사 전략적인 면이 강조된다.[49] 한편 연성 안보의 특징은 위협이 국가 간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 혹은 초국경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군사력이 아닌 사회경제적인 지원이 활용되며, 지리적인 문제보다 현안의 문제가 강조된다. 또한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인간 안보), 사회적 차원으로 안보의 개념을 확대되어 적용된다.[50] 이러한 경성 안보와 연성 안보의 특징을 바르넷 등이 제시한 평화 정책 행위 구분에 적용해 안보 분야의 평화정착 행위를 경성 안보를 위한 행위로, 사회, 경제, 개발, 인도적 지원을 연성 안보를 위한 행위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필자는 위협 인식의 높고 낮음과 경성

---

49) Aleksandar Fatic, “Conventional and unconventional - 'hard' and 'soft' security: the distinction,” *Journal for Labour and Social Affairs in Eastern Europe*, 5-3, (October, 2002), pp.93-94.

50) Fatic (2002), pp.95-96.

안보적 평화정착 정책, 연성 안보적 평화정착 정책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자 한다.

- **정책결정자들의 위협 인식이 큰 경우, 즉각적으로 위협을 해소할 필요성을 느껴 경성 안보 확립을 위한 수단을 우선시하는 평화정착 정책을 선택할 것이다.**
- **정책결정자들의 위협 인식이 작은 경우, 즉각적으로 위협을 해소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며 연성 안보 확립을 위한 수단을 우선시하는 평화정착 정책을 선택할 것이다.**

| 위협 인식 | | 위협 인식의 평가와 평화정착 정책 |
|---|---|---|
| 외교, 안보 관련 공문서 | → | 높음: 경성 안보 중심의 평화정착 정책 |
| 정책결정자들의 발언 | | 낮음: 연성 안보 중심의 평화정착 정책 |

[표 2-2] 위협 인식 - 위협 인식의 평가와 평화정착 정책

# 제 3 절 위신 추구와 평화정착 정책

## 1. 위신의 정의와 인정을 통한 위신의 형성

위신(威信, Prestige)은 위엄(威嚴)과 신망(信望)을 아우르는 단어[51]로, 영광(Glory), 명예(Hornor), 존경(Esteem) 등과 혼용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위신 추구(Prestige-Seeking) 행위는 위상 추구(Status-Seeking), 인정 추구(Recognition-Seeking) 행위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었다. 위신을 투쟁의 대상이라고 보았던 모겐소도 위신의 측정이 용이하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일부 사례를 제시하며 국제 관계에서 위신이 드러나거나 의전에서 위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만을 묘사하는 데 그쳤다.[52]

51) 표준국어대사전 중 “위신”

국제정치학에서 한 국가에 대한 지위(Position)에 관한 연구는 위신을 비롯하여 위상(位相, Status), 인정(認定, Recognition), 평판(評判, Reputation) 등이 대동소이한 개념으로 사용되어왔다. 먼저 국가와의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지니는 위치를 나타내는 위상은 정량적 정의와 정성적 정의를 통하여 개념화가 이루어졌다. 국가의 위상을 정량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핵무기 등 물질적인 힘과 능력을 산출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정치체제나 이데올로기, 문화, 규범적 우위 등은 정성적으로 국제사회 내 위상을 규정하는 데 활용되었다.[53] 특히 약소국의 입장에서 위상을 추구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갈등의 중재, 평화정착에 대한 기여, 사회경제적 지원 제공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행위가 거론되며 국제사회의 구성원들로부터 위상을 인정받는다.[54]

두 번째 국제정치학에서 인정은 국가로서의 자격과 행위, 위상, 위신 등을 확인하는 사회적인 행위이다. 인정은 법적으로 국가의 자격을 인정하는 행위, 인정 투쟁(Struggle for recognition)을 통한 인정의 획득, 규범적 행위의 인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55] 또한 분류에 따라 주권국가의 지위를 인정하고 '얕은 인정(Thin Recognition)'과 국제사회 내에서의 성취와 위상을 인정하는 '두터운 인정(Thick Recognition)'으로 구분되기도 한다.[56] 위와 같은 인정 개념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인정은 국제사회 내에서 규범적인 행동, 성취를 통하여 획득될 수 있으며, 위상, 위신, 지위는 인정을 통해 형성된다. 따라서 위신 추구와 형성을 고려할 때 인정의 행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52) Mogenthau, 위의 책, p.86.

53) Marina Duque, "Recognizing International Status: A Relational Approach,"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62, 2018, 577-592.

54) Phill Baxter et al, "How small states acquire status: A social network analysis,"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21-3, 2018, pp.191-213.;

55) Jens Bartelson, "Three concepts of recognition," International Theory, 5-1, 2013, pp.107-129.

56) Pierre Allan & Alexis Keller, "The Concept of a Just Peace, or Achieving Peace Through Recognition, Renouncement, and Rule," in Pierre Allan & Alexis Keller, *What is a Just Pea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p.197-201.

셋째 평판은 특정 행위자의 과거 행동에 기반한 행동 경향에 관한 믿음으로, 전통적인 국제정치학의 연구 대상이었다. 투키디데스(Thucydides)의 『펠로폰데소스 전쟁사』에서 평판과 위상은 전쟁의 동인으로 묘사되었으며, 냉전(Cold War) 시기 평판은 상대국 전력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상대국의 성향을 판단하여 전쟁을 억제하는 수단의 일환으로 연구되기도 하였다.[57] 또한 위상, 위신과 더불어 명예(名譽, Honor), 영광(榮光, Glory) 등도 평판의 일종으로 여겨졌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신, 위상, 인정, 평판은 세부적인 차이가 존재하나 동시에 개념적으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위신, 위상, 평판은 모두 인정을 통해 형성되며, 평판은 위신과 위상을 반영한다. 또한 위상은 정성적인 평가에서 구체성을 지니는 강점을 지니지만, 평판으로 대표되는 정량적인 평가로 형성된 위상은 위신과 큰 구분을 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필자가 위신을 강조하고자 하는 이유는 위신이 구체적인 측정이 어려운 단점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위상과 인정, 평판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량적으로 규정된 위상이 인정과 평판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위신이 지닌 개념적 유용성이 드러난다. 따라서 필자는 위신을 활용하여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위신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학에서 진행된 위신에 관한 연구를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사회학에서 위신 연구는 사회가 계층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위신은 계층화된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요소 중에 하나이다.[58] 사회학자인 베게너(Wegener)는 위신에 관한 사회학 연구성과를 검토하여 사회적 행위의 지향(Orientations of social action)과 계층화의 기원(Sources of stratification)을 중심으로 위신의 기반(Foundation)을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59]

---

57) Allan Dafoe et al, “Reputation and Status as Motives for War,”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7, 2014, p.372.

58) Max Weber, Keith Tribe(trans.), *Economy and Socie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9), p.250.

59) Bernd Wegener, “Concepts and Measurement of Prestige,” *Annual Review of Sociology*, 18, 1992, pp.253-258.

| | 사회적 행위의 지향 | |
|---|---|---|
| 계층화의 기원 | 규범적(주관적) | 이성적(객관적) |
| 질서(계급) | 위신의 기반: 카리스마 | 위신의 기반: 성취 |
| 갈등(사회적 폐쇄) | 위신의 기반: 영광 | 위신의 기반: 존경(Esteem) |

[표 2-3] 베게너가 정리한 위신 이론의 유형
출처: Wegener, 1992, p.256.

베게너가 정리한 위신을 차례로 살펴보면, 첫 번째, 계층화가 질서에서 기원하고, 사회적 행위의 지향이 규범적인 경우, 위신은 카리스마의 표출을 통하여 획득되며, 특정 개인이 사회의 핵심과 가까울수록 위신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두 번째, 계층화가 질서에서 기원하고, 사회적 행위의 지향이 이성적인 경우, 행위자는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이성적인 동기를 지니고 있으며, 사회는 의무를 이행하였을 때 행위자에게 보상을 제공하여 행위자는 사회적 요구를 성취함으로써 위신을 획득하게 된다. 세 번째, 계층화가 갈등에서 기원하고, 사회적 행위의 지향이 규범적인 경우, 위신은 사회적 명예를 지닌 신분 집단 내에서 규범적인 행동을 하였을 때 주어진다. 마지막으로, 계층화가 갈등에서 기원하고, 사회적 행위의 지향이 이성적인 경우, 위신은 교환이 가능한 물품(Commodity)으로 인식되며, 사회집단 내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게되면 비대칭적인 교환의 결과물로써 위신이 만들어진다.

## 2. 위신 추구와 평화정착 정책

길라디는 사회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의 연구를 수용하여 평화 유지(Peacekeeping)에 기여하는 중견국(Middle Power)의 행동을 합리적 선택 이론과 베블런의 과시적 소비 개념에 기반하여 논지를 전개한다.

길라디는 위신이 갈등적 사회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비대칭적 교환의 결과물로 위신이 얻어진다고 전제하고 있다. 또한 길라디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전통인 포틀래치(Potlatch)를 친사회적(Prosocial)이며, 동시에 과시적인 행위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중견국이 평화 유지에 참여하는 것도 이와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국제평화유지작전 참여가 중견국들이 위신을 얻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위신을 추구하기 위한 상징성이 줄어들었으며, 따라서 평화 유지에서 위신을 추구하고자 하는 국가는 국제평화유지작전에 참여하는 것보다 원조(Aid)를 제공하는 것이 원조공여국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 위신을 추구하는 중견국인 캐나다와 일본은 원조의 방식을 보다 선호한다.[60]

길라디의 설명은 계층화된 국제체제 내에서 위신을 얻기 위해 투쟁하는 국가들의 행위를 합리적으로 파악하는 데 강점을 지니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길라디가 설명은 국제체제 내에서 개별 국가 행위의 일부를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한 단순한 논거로만 활용하고 있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정치심리학적인 입장에서 길라디의 주장을 반박한 메르체르는 2차 보어 전쟁(Boer War, 1899-1902)에 관한 영국과 동맹국의 입장을 분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실증하고자 하였다.[61] 두 번째, 길라디의 설명에 따르면, 평화 유지에 대한 기여는 과시적인 소비를 설명하는 유용한 사례이다. 베블렌이 하층계급도 평판을 얻기 위하여 과시적인 소비에 동참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길라디의 설명은 중간국, 개발도상국들의 평화 유지에 대한 기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베블렌의 과시적 소비로서 평화 유지 기여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과시적 소비와 함께 필수적인 소비도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위에서 지적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자는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현안과 중앙아시아 지역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설정이 갖는 강점은 먼저 위신이 형성되는 “사회”의 구조를 국제체제가 아닌 현안과 지역으로 한정함으로써, 위신의 형성

60) Lilach Gilady (2018), pp.90-120.
61) Mercer (2018),, pp.145-166.

과 위신 추구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제정치학에서도 현안과 지역에 따라 “사회”적 구성원들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다. 먼저 코헤인과 나이는 다양한 현안에 따라 다른 정치적 구조가 존재한다고 보고(Issue Structure), 현안에 따라 권력의 분배가 다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슈별로 레짐이 만들어지며 변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62] 또한 부잔과 웨버는 지역안보복합체 이론에서 지역에 따라 안보를 중심으로 국가 간 관계가 복합적으로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지역안보복합체 이론에서 지역안보복합체는 세계적인 강대국, 지역 강대국, 지역 내 국가들로 구성되며, 안보 현안과 지역 내 국가 간 관계를 통하여 형성된다.[63] 지역안보복합체 이론은 강대국과 약소국으로 계층적인 구분을 전제하고 있으며, 지역 안보를 중심으로 국가 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기술하고 있으므로, 사회학의 위신 이론이 기반하는 “계층화된 사회”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국제정치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필자는 현안과 지역을 특정하여 위신을 추구하는 국가들의 행위와 지역 내 국가들의 위신 인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 필자는 베블런의 소비에 안보적인 관점을 더하여 평화정착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들의 행위를 설명하고자 한다. 베블렌은 기본적으로 소비가 필수적인 유용성과 과시적인 낭비성을 모두 가질 수 있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특정 상품과 서비스를 과시적으로 소비한다고 하더라도 유용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64] 이러한 베블렌의 설명에 기반하여 길라디가 말하는 평화 유지에 대한 중견국의 기여를 살펴보면, 이러한 행위는 위신을 얻기 위한 과시적인 소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유용성을 지니는 실리적 행위라는 점이다. 필자가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유용성이란 국제체제의 안보를 의미한다. 국제정치이론에서 안보는 생존, 번영과 더불어 국가의 정체성과 이익에서 핵심을 차지한다. 따라서 평화 유지 혹은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행위는 자국과 국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유용성을 지닌 실리적 행위

62) Keohane & Nye, (2012) pp.42-46.
63) Buzan & Waever, (2003), pp.3-83.
64) 소스타인 베블런 저, 박홍규 역, 『유한계급론』, 문예출판사, 2019, 97쪽.

며, 동시에 친사회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위신을 획득할 수 있는 과시적인 행위이다.

이러한 양가적인 성격을 갖는 행위로 평화정착 정책의 결정과 이행을 이해한다면, 위신 추구의 행위로써 평화정착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양가적인 성격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필자가 과시적인 평화정착 정책과 실리적 평화정착 정책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 직접 지원의 여부와 그 규모, △ 다자 이니셔티브나 아젠다의 제안과 이행, 그리고 그 기여의 정도, △ 국내 사안보다 평화정착 관련 사안을 중시하는 정책결정자의 결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직접 지원은 길라디가 제시한 주장을 차용한 것으로, 개별 국가의 행동을 과시적으로 드러내어 위신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다. 만약 특정 국가가 직접 지원보다 다자 협력에 참가하는 것을 선호한다면, 이는 과시적인 것보다 실리적인 차원에서 평화정착 현안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두 번째 다자 이니셔티브나 아젠다의 제안과 이행, 그리고 그 기여의 정도를 통해 평화정착 현안에서 국가들이 자신의 역할을 얼마나 과시하고 싶은지 그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만약 특정 국가가 평화정착 현안에서 과시적인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을 내놓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을 투입할 것이다. 반면 안보 확립을 위하여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지만, 실리적인 측면에서 자국의 자원 투입을 최소화하려는 경우, 문제 해결을 주도하기보다 실리적인 차원에서 관련국이나 국제기구 등의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화정착을 위해 과시적으로 행동하는 국가들의 정책결정자들은 평화정착 관련 사안을 국내 사안보다 더욱 중시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다시 말해, 평화정착 현안에서 위신을 추구하는 국가들의 정책 결정자는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적 합의 이행과 국내 문제 혹은 국내적 불만이 충돌하는 경우, 국제적 합의의 이행을 우선시할 것이다. 반면 평화정착 현안에서 위신을 추구하지 않는 국가의 정책결정자들은 국제 합의와 국내 문제가 충돌할 경우, 국내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

| 평화정착에서 위신 추구 행위 기준 | | 위신 추구와 평화정착 정책 | |
|---|---|---|---|
| 직접 지원 여부 | → | 높음 | • 직접 지원<br>• 다자 이니셔티브 주도<br>• 국제 사안 우선시하는 평화정착 정책 추진 |
| 다자 이니셔티브 주도 여부 | | | |
| 국내보다 국제 사안 우선시 여부 | | 낮음 | • 직접 지원보다 다자 협력 참여<br>• 타국과 국제기구 지원 유도<br>• 국내 사안 중시하는 평화정착 정책 추진 |

[표 2-4] 위신 추구 행위의 기준과 평화정착 정책

필자는 위협 인식과 위신을 통한 평화정착 행위에 대한 접근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학술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첫째 평화정착에서 동인으로 위협 인식은 충분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위협 인식 간 연관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평화정착 연구의 지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평화정착 연구에서 위신은 평화정착 정책을 펼치는 중견국의 동인으로 빈번히 거론되었으나, 타국으로부터 위신을 인정받았는지 밝히고 있지 않다.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해 위신의 위신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 실질적인 행위, 타국의 인정을 통한 위신의 형성을 살펴봄으로써 위신 연구의 고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국제체제 수준에서 모호하게 논의되었던 국제정치를 현안과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특정 현안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국가들의 행위가 지닌 특징과 그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 제 3 장 중앙아시아 국가의 아프간 인식과 정책

## 제 1 절 지역 안보 구도와 아프가니스탄 문제

### 1. 중앙유라시아 지역 안보의 주요 행위자와 구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정책의 동인을 확인하기 이전에 지역 안보 구도와 이러한 구도를 구성하는 행위자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에서 지역 내 강대국과 국제기구는 위협 요인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동반자임과 동시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위신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인정을 해주는 주체이다. 따라서 각 행위자들이 지닌 중앙유라시아 지역 안보 전략,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 미국을 비롯한 서구, 중국은 중앙유라시아에서 자국 중심의 지역 질서를 구축하고자 각축 벌이고 있으며, 이는 신거대게임(New Great Game)으로 표현되어왔다.[65] 러시아, 미국, 중국은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지역 내 국가들과의 관계를 증진하고자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다른 강대국과 협력하거나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지역 내 안보 제공자의 역할을 맡아왔으나, 시리아 내전 개입과 달리 아프가니스탄 내 진행되는 테러와의 전쟁 참전에는 유보적인 모습을 보이며 미국의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 진출을 지지해왔다.[66] 또한 러시아의 입장에서 아프가니스탄 문제는 위험과 기회의 양면성을 지닌 문제로 비추어진다.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이 자국

---

65) 신거대게임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을 참고. Alexander Cooley, Great Game, Local Rule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p.3-29; 신범식, 「중국의 부상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응 신범식」, 신범식 등, 『중국의 부상과 중앙아시아』, (서울: 진인진, 2015), pp.10-40. : 신범식, 「강대국 영향력과 중앙아시아 지역 정치 변동」, 신범식 등, 『유라시아의 심장 다시 뛰다! : 중앙아시아 지역의 형성과 역동성』, (서울: 진인진, 2017), pp.345-360.

66)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объяснил, зачем России перевалочный пункт НАТО в Ульяновске,”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012.08.03. (https://rg.ru/2012/08/02/putin.html) (검색일: 2021.04.30.)

내에서도 문제가 되는 종교적 극단주의, 마약, 불법 무기가 유출되는 불안정 국가로 보고 있으며,[67] 주요 외교, 안보 문서와 정치 엘리트들의 발언을 통하여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68] 이와 더불어 아프가니스탄 문제는 러시아가 자국의 근외지역(Near Abroad) 중 하나인 중앙아시아에 지속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회이다.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한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양자적인 차원에서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CSTO를 통한 지역 안보를 확립하고자 한다.

미국과 유럽은 테러와의 전쟁 이후 중앙유라시아 내에서 테러단체를 배제하고 민주화, 시장 자유화를 확산하며, 친서구 성향의 국가 수를 늘리는 것을 전략 목표로 삼았다. 2010년 미국은 <국가안보전략>에서 △ ISAF와 탈레반을 공격하여 주요 거점을 확보, △ 아프간 군의 훈련, △ UN 및 아프간 정부와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 △ 아프간 문제 해결을 위한 파키스탄과 호혜적인 관계 구축을 목표로 제시하였다.[69] 또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에너지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아시아와 아프가니스탄을 연결하는 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으며,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를 연결하는 TAPI 천연가스관, 키르기즈스탄-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을 연결하는 대

---

67) James Shinn, James Dobbins, *Afghan Peace Talks - A Primer,* Rand Cooperation, 2011, PP.59-60.

68) 러시아 외교부,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тверждена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В. Путиным 12 февраля 2013 г.) (https://www.mid.ru/foreign_policy/official_documents/-/asset_publisher/CptICkB6BZ29/content/id/122186) (검색일: 2021.04.30.): 러시아 외교부,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тверждена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В.Путиным 30 ноября 2016 г.) (https://www.mid.ru/foreign_policy/official_documents/-/asset_publisher/CptICkB6BZ29/content/id/2542248) (검색일: 2021.04.30.): О Стратег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5, Russia Matters, (https://russiamatters.org/node/21421) (검색일: 2021.04.30.)

69) The White House President Barrak Obama, *National Security Strategy*, May 2010.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sites/default/files/rss_viewer/national_security_strategy.pdf) (검색일: 2021.05.04.)

규모 전력망인 CASA-1000 프로젝트가 이에 해당된다. EU는 OSCE를 통하여 국경경비대 훈련, 지뢰 제거 및 경성 안보 부분과 교육, 여성 인권, 인프라 건설 등 연성 안보 부분, 선거 지원 및 참관 등 다방면으로 아프가니스탄 내 평화정착을 지원하여 왔다.[70] 또한 서구는 아프가니스탄과의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맺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미국은 전략적으로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과 평화정착 및 유지를 위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71]

중국은 2000년대 초 안보상 3대 악(惡)으로 규정한 테러, 분리주의, 종교적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접근하였으며, 국경 구획 문제 해결과 비전통안보 분야 협력을 위해 설립되었던 SCO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를 통하여 안보 분야에서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테러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합동군사훈련, 극단주의 대응을 정보 공유, 합동테러대응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사회경제,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협력을 강화하였다.[72] 2010년대 중국은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안보, 경

---

70) "Security Council: European security block details priorities for collaboration with UN," *UN News*, 2013.05.07. ( https://news.un.org/en/story/2013/05/439082-security-council-european-security-block-details-priorities-collaboration-un) (검색일: 2021.05.03.): OSCE 사이트, *EU Strategy on Afghanistan*, 2018.04.16. ( https://eeas.europa.eu/sites/default/files/eu_final_booklet_revised_4.pdf) (검색일: 2021.05.03.)

71) Frederick Starr, *A 'Greater Cetnral Asia Partnership' for Afghanistan and Its Neighbors*, Silk Road Paper, March 2005, pp.16-26: Farkhod Tolipov, "Pluses and minuses of the C5+1 format," *The Central Asia-Caucasus Analyst*, 2015.11.13. ( https://www.cacianalyst.org/publications/analytical-articles/item/13300-pluses-and-minuses-of-the-c5%201-format.html) (검색일: 2021.05.03.)

72) Stephen Aris,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Tackling the Three Evils'. A Regional Response to Non-Traditional Security Challenges or an Anti-Western Bloc?," *Europe-Asia Studies*, 61-3, May 2009, pp.457-482: Zhao Huasheng, *China and Afghanistan - China's Interests, Stance, and Perpective*,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itonal Studies, March, 2012, p.3.

제 협력을 넓혔다. 또한 2013년 일대일로가 시작된 이후 일대일로의 주요 노선인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hina-Paikistan Economic Corridor, CPEC)의 건설과 아프가니스탄 방면으로의 확대를 위하여 중국은 파키스탄의 주변국인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과의 안보, 경제 분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기도 하였다.[73] 지역 내 강대국인 위 3개국의 인식과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1]과 같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 탈레반과의 전쟁을 마무리하여 평화를 구축하고, △ 자국 영토 내에서 거버넌스를 확립, △ 사회경제적 발전 기반 마련과 번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74] 또한 외교적인 측면에서 아프가니스탄 엘리트들은 전통적으로 취해왔던 중립 노선을 취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75]

한편 탈레반은 과거부터 영토 내에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에 기반한 칼리파트(Caliphate) 건설을 천명하였으며, 이러한 탈레반의 시도는 연구 대상인 2010~2016년간 유지되었다. 또한 탈레반 측은 외국 군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여야 할 것과 평화협상의 당사자로 자신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그 결과 탈레반은 카타르 도하(Doha)에 대표 사무실을 개소하고 2013년부터 도하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이어나갔다.[76]

아프가니스탄 신뢰 구축을 위한 다자 협력의 노력과 성과는 지역안보기구를 통한 협력과 지역 국가 간 신뢰 구축을 위하여 마련된 플

---

73) "China joins Afghanistan, Pakistan, Tajikistan in security alliance," Reuters, 2016.08.04. (https://www.reuters.com/article/us-china-security-idUSKCN10F1A6) (검색일: 2021.05.04.): Umar Farooq & Asma Shakir Khawaja,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Geo-political Implications, Regional Constraints and Benefits of CPEC," *South Asian Studies*, 34(2), July-December, 2019, p.594.

74) The White House, "Joint Statement by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Karzai," 2013.01.11.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13/01/11/joint-statement-president-obama-and-president-karzai) (검색일: 2021.05.03.)

75) Nasir Andisha, *Neutrality in Afghanistan's Foreign Policy*, Special Report 360,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March 2015, pp.6-12.

76) Borhan Osman & Anand Gopal, *Taliban Views On A Future State*, Center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2016, pp.16-19.

랫폼인 이스탄불 프로세스(Instanbul Process)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지역 내 안보 기구인 CSTO, SCO, OSCE 모두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에서 야기된 문제들이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것과 평화정착을 통하여 지역 안보와 안정화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 이스탄불 프로세스에는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중국, 인도, 이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이 참여하여 유라시아 내 국가들간 정상회담, 장관급 회담 등을 통해 신뢰 구축과 향후 협력 확대 가능성을 모색한다.[77]

정리해보면 중앙유라시아 내에서 러시아, 미국, 중국은 각기 다른 분야와 수단을 사용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며, 아프가니스탄과 탈레반 모두 전쟁 이후 나름의 청사진을 지니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지역 안보의 구도 속에서 강대국들과 협력과 균형을 모색하고, 아프가니스탄에 지원을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탈레반과 대화하며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에 기여한다. 위와 같은 지역 안보 구도는 연구 대상이 되었던 2010~2016년에도 지속되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평화정착 정책 동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지닌 아프가니스탄 문제 인식과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정책 행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소련 붕괴 이후 독립한 신생국으로, 과거 소련과 현재 러시아와 대동소이한 행정, 법령 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유사한 위상과 성격을 지닌 문서에 대한 분석과 비교를 진행해볼 수 있다. 다음 절에서 필자는 각국 외교, 안보 정책의 원칙이 되는 국가전략, 국가안보전략 혹은 국가안보법, 군사독트린, 외교정책개념들을 살펴보고, 각국의 평화정착 행위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

77) About Us, Heart of Asia - Instanbul Process. (https://www.hoa.gov.af/about-us/about-hoa-ip.html) (검색일: 2021.05.04.)

| 수준 \ 국가 | | 미국 | 러시아 | 중국 |
|---|---|---|---|---|
| 지역환경 | 안정요인(질서) | 미국 중심의 단극패권질서에 조응하는 지역질서<br>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기반의 역내 국가레짐 확산 | 세계적 다극질서에 조응하는 역내 세력균형 질서의 구축<br>유라시아 공간의 사회문화적 결속에 기초한 협력구조 | 세계적 다극질서에 조응하는 역내 세력균형<br>자유로운 경제교류 여건이 보장되는 지역구조 |
| | 도전요인(불안정성) | 비대칭위협의 근원세력 확산<br>대량살상무기 확산<br>지역 강국들의 미국견제정책 내지 반미동맹 형성노력<br>비민주·반인권 국가의 존속 |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역질서 재편 시도<br>지역 분열적인 지정학적 다원주의의 고조<br>극단적 분리주의 및 테러세력 부흥 | 미국의 중앙아시아 진출 및 세력확장<br>러시아의 지역적 패권을 회복하려는 시도<br>극단적 분리주의 및 테러세력의 부흥 |
| 행위자 | 자기역할인식 | 적극적: 유라시아질서 주도자<br>소극적: 유라시아질서 균형자 | 적극적: 유라시아 중심 강대국<br>소극적: 역내 다극질서의 한축 | 적극적: 유라시아 강대국<br>소극적: 역내 다극질서의 한축 |
| | 적개념 | 국제적 테러세력 및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하는 불량국가<br>잠재형) 러시아, 중국의 반미역동맹 | 테러 및 WMD 확산 세력<br>미국의 단극적 패권확산 노력<br>탈러시아 지향의 지역국가<br>잠재형) 세력확장 지향 중국 | 테러 및 분리주의 세력<br>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 내지 헤징(hedging) 노력<br>잠재형) 지역패권 추구 러시아 |
| 전략·수단 | 전략 | 역내 군사기지 및 작전통로 공여국 확보<br>친미국가군 형성<br>민주화·자유시장체제 확산 | 중층적 근외정책을 통한 유라시아 통제력 강화<br>중-러연대를 통한 균형화 | 중-러 연대를 통한 균형화<br>전략적 경계의 안정화<br>유라시아로의 중국 생활권의 확대 |
| | 주요수단 | 양자관계에 기초한 정치·외교·경제적 지원<br>NATO, PfP, GUAM | 경제협력 블록형성 및 군사적 지원 및 동맹체계 강화<br>EurAsEC(EEU), CSTO, SCO | 대유라시아 투자의 증대를 통한 양자 및 다자관계 강화<br>SCO, CICA, AIIB |

[표 3-1] 미국, 러시아, 중국의 유라시아/중앙아시아 지역정치에 대한 인식과 전략목표

출처: 신범식, 「강대국 영향력과 중앙아시아 지역정치 변동」, 신범식 외 저, 『중앙유라시아의 심장 다시 뛰다』, (서울: 진인진) 2018, 346쪽.

## 2. 아프가니스탄 내 평화정착의 진행

2001년 테러와의 전쟁으로 미국과 NATO 회원국이 ISAF를 조직하여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이후 ISAF는 테러와 종교적 극단주의를 근절하기 위하여 아프가니스탄 내 탈레반과 탈레반 협력 조직에 대한 소탕을 시작하였다. 본고의 연구 대상이 되는 2010~2016년 ISAF의 지원으로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내 영토의 50~70% 가량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아프가니스탄 내에서는 탈레반과 탈레반 협력 조직의 테러와 공격이 간헐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들이 활동하는 산악 지역과 주요 도시 외부의 부족 지역에는 정부의 통제가 닿지 않았다.

그럼에도 아프가니스탄 내에서는 2004년 10월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었으며, 하미드 카라자이(Hamid Karazai)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카라자이는 2009년에도 재선에 성공하여 2014년까지 대통령직을 이어갔다. 2014년에는 미국식 교육을 받은 아슈라프 가니(Ashraf Ghani)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며, 2019년에도 전통 세력을 대변하는 압둘라 압둘라(Abdullah Abdullah)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미국과 EU는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진행된 선거에서 민주주의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전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선거가 진행될 때에도 참관인을 파견하여 선거 절차를 확인하였다.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폭력이 완벽히 제거되지는 않았지만, 폭력이 감소하고 정부가 수립된 이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폭력의 관리와 제거, 국가 건설, 정치적 담화 진행, 사회경제적 지원을 통한 향후 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복합적으로 추진되었다. 2013년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과 탈레반 간의 평화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공적 지원과 에너지 공급, 식량 공급, 교육 제공 등을 위한 양자, 다자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 3. 지역 안보에서 아프가니스탄 문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정책을 살펴보기 전에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2010~2016년 아프가니스탄 내부의 상황과 지역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는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프가니스탄 내 장기화 된 무장 갈등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78]하였으며, 아프가니스탄은 장기적인 빈곤, 에너지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 Institute)가 발간한 아프가니스틴 지표(Afghanistan Index)에 따르면, 2010~2016년간 미군 및 동맹군 사망자는 총 1,957명(민간 계약자 제외), 아프가니스탄 내 민간 사망자는 2만 2,137명을 기록하였다. 2016년 기준 아프가니스탄 실질 GDP는 202억 달러, 1인당 GDP는 571달러를 기록하였다. 또한 2011~2012년 빈곤율은 38%를 기록하였다가 2016년 탈레반의 공격이 재개되자, 2016~2017년 빈곤율은 55%로 더욱 악화되었다. 또한 전력 사용량인 5,530GWh 중 1/3이 넘는 중 4,400GWh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79]

이외에도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탈레반 간의 무장 갈등으로 국내 치안이 악화되며,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으며, 치안 악화로 아프가니스탄 내 마약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면서 지역 내 불안정성을 증대하였다. 2010~2016년간 아프가니스탄 출신 망명 신청자(Asylum Seeker) 수(추정치)는 총 72만 200명, 아프가니스탄을 떠난 난민의 수(추정치)는 1,859만 명에 달한다.[80] 또한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행정력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는 마약이 생산된다. 2019년 기준 가장 많은

---

78) 2010~2016년 아프가니스탄 내 무장 갈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헌을 참고. Barneet Rubin, *Afghanistan from the Cold War through the War on Terror*, (Oxford: Oxford Press, 2013), pp.343-457: Johnathan Lee, *Afghanistan - A History from 1260 To The Present*, (Glassgow: Reaktion Books, 2018), pp.629-683.

79) Sam Gollob & Michael E. O'Hanlon, *Afghanistan Index - Tracking variables of reconstruction and security in post-9/11 Afghanistan*, Foreign Policy at Brookings, August 2020, pp.9-17.

80) Sam Gollob & Michael E. O'Hanlon (2020), pp.19.

아편이 재배되는 지역은 파키스탄과 접경한 남부 힐만드(Hilmand) 지역(2만 ha 이상)이지만, 중앙아시아와 접경하는 바다흐샨(Badakhshan), 발흐(Balkh), 자우즈잔(Jawjzan), 파리아브(Faryab), 바드기스(Badghis) 지역 내 최대 1만 ha에서 아편이 재배되고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아프가니스탄 국외로 유통된다.[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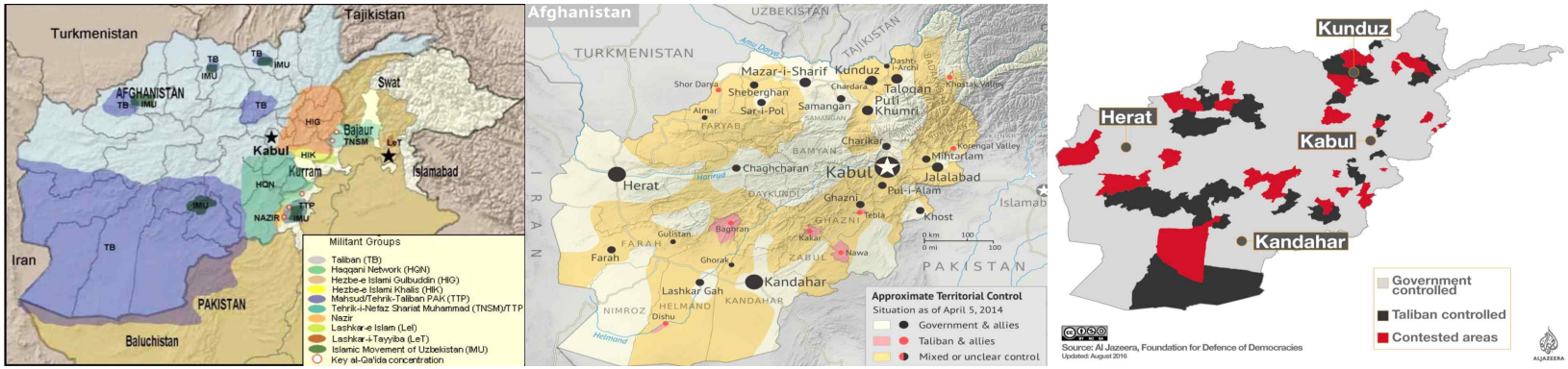
또한 종교적 극단주의에 기반한 무장 집단의 활동은 1990년대부터 지역 안보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탈레반을 비롯한 순니 근본주의 단체의 활동과 더불어 2010년대 본격적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한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이하 IS)가 중동, 남아시아, 중앙아시아에도 영향력을 미치면서 종교적 극단주의가 문제로 대두되면서[82] 안보적 불안정성이 고조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무장 갈등과 이로 인한 빈곤, 에너지 부족 문제, 마약, 난민, 종교적 극단주의 무장 집단의 활동은 아프가니스탄 내부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로부터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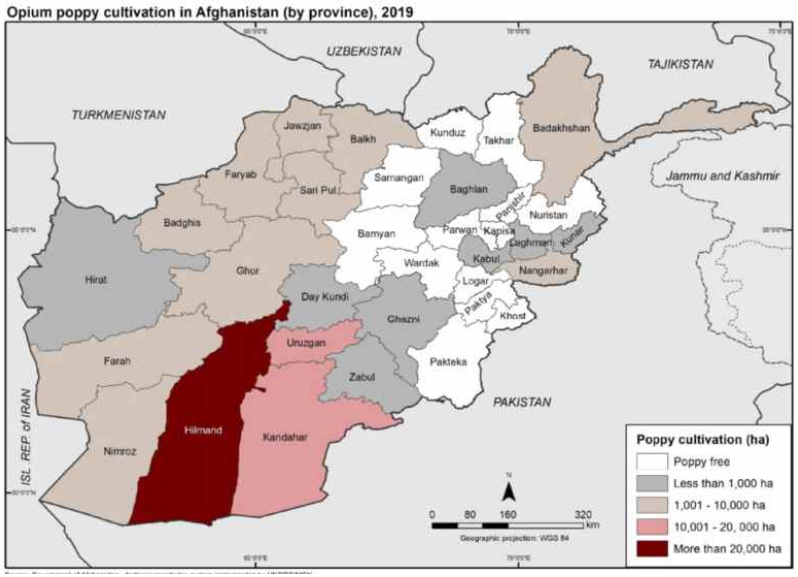
81)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Afghanistan opium survey 2019 - Socio-economic survey report: Drivers, causes and consequences of opium poppy cultivation*, February 2021, pp.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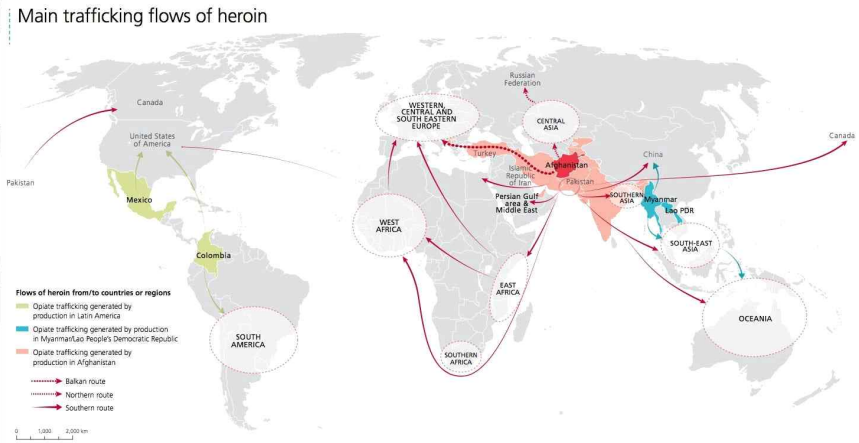
82) Deirdre Tynan, "Islamic State Threatens Central Asia," *International Crisis Group*, 2015.06.08. https://www.crisisgroup.org/europe-central-asia/central-asia/islamic-state-threatens-central-asia (검색일: 2021.04.30.): "Thousands from Central Asia joining 'Islamic State', Deutsche Welle, 2015.01.21. (https://www.dw.com/en/thousands-from-central-asia-joining-islamic-state-report/a-18203785) (검색일: 2021.04.30.):Anna Dyner, Arkadiusz Legieć, & Kacper Rękawek, *Ready to Go? ISIS and Its Presumed Expansion into Central Asia*, PISM Policy Paper 19(212), June 2015. (https://www.files.ethz.ch/isn/192428/PISM%20Policy%20Paper%20no%2019%20(121).pdf) (검색일: 2021.04.30.)




[그림 3-1] 2010년, 2014년, 2016년 아프가니스탄 내 정부군과 탈레반 및 이슬람 군사 단체가 장악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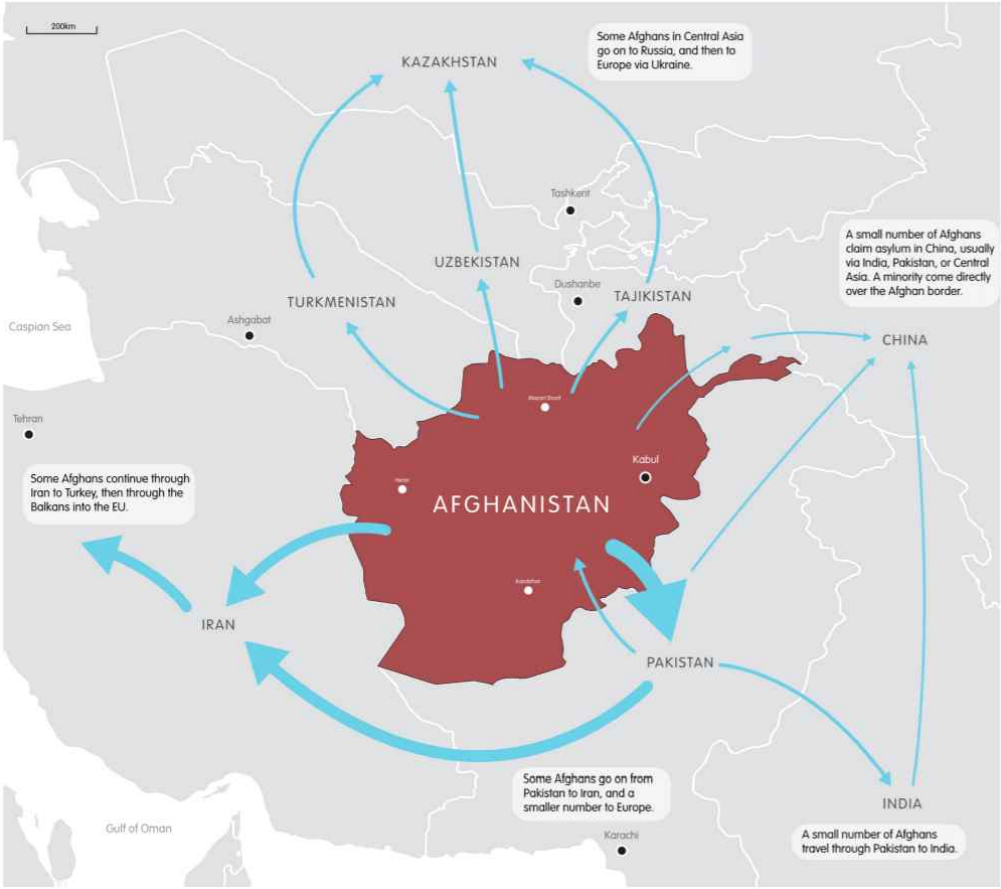
출처: United States Army, 2010; Political Geography Now; Al Jazzera




[그림 3-2] 2019년 아프가니스탄 내 아편 재배 지역(좌)과 2015년 세계 헤로인 생산 및 유통 경로(우)

출처: *Afghanistan opium survey 2019*, UNDOC Reaerch, 2019; UN 마약범죄사무소 사이트




[그림 3-3] 2015년 아프가니스탄 난민 이주 경로

출처: Angela Stanzel, 2016, p.3.

## 제 2 절 우즈베키스탄의 아프간 인식과 정책

### 1. 우즈베키스탄의 아프가니스탄 문제 인식

아프가니스탄과 144km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과거 순니파 종교적 극단주의 집단이었던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운동(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 이하 IMU)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경험이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명백한 위협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1995년 군사 독트린, 1997년 국가안보전략, 2012년 외교정책개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위 문서의 효력은 연구 대상으로 시기인 2010~2016년까지 유지되었다. 다만 이 문서들은 연구 대상 시기 기준 20년 정도 오래된 것으로, 당시 상황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인식을 살펴보려면 정치 엘리트들의 발언과 기타 정부 문헌을 확인하여야만 한다.

먼저 안보 관련 문서를 살펴보면, 1995년 발표된 군사 독트린을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은 당시 국제관계 구조의 변화로 긴장과 갈등이 등장하며, 극단주의와 테러가 발생하여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 세계 다양한 지역 내 고도화된 무장 집단, △ 힘의 우위에 인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별 국가, △ 이웃 국가 내 정치적 불안정, △ 타국 국경의 군 부대를 배치하고자 하는 행위, △ 극단주의, 불법 군사 조직 등의 테러 행위와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종교적인 관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군사적 위협의 잠재적인 원천이라고 규정하였다.[83] 1997년 승인된 국가안보전략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은 인접 지역의 문제들이 우즈베키스탄에 도전과 위협의 잠재적인 원천이 될 것으로 보았다. △ 민족-인종, 영토, 종교 등으로 인한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 내전, △ 핵무기를 지닌 인도-파키스탄 갈등, △ 중앙아시아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파키스탄, 이란, 터키의 경쟁, △ 이슬람 극단주의의 확산이 바로 그것이다.[84]

---

83) ВОЕННАЯ ДОКТРИН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군사 독트린) ( https://lex.uz/acts/134026) (검색일: 2021.05.03.)

84) 1997년에 하원에서 승인된 국가안보전략은 현재 비공개로 되어있어 부득이하게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외교문서인 외교정책개념과 외교정책이 설명된 외교부 사이트에서도 아프가니스탄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언급한 부분을 찾을 수 있다. 2010년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사이트 내 「우즈베키스탄 외교정책의 목적과 목표」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테러, 극단주의, 마약 밀매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우즈베키스탄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양자 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다자적 차원에서는 중앙아시아 협력기구(Central Asian. Cooperation Organization, 이하 CACO)에 아프가니스탄을 참관국으로 초대하며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중내륙국인 우즈베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운송로, 통신 연결을 통하여 인도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운송회랑을 건설할 계획을 언급하기도 하였다.[85]

우즈베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 문제를 접근할 때 다자적인 수단보다 양자적인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러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2010년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Astana, 현 누르술탄 Nur-Sultan)에서 개최된 OSCE 정상회담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노로브(Vladimir Norov) 당시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장관은 우즈베키스탄이 역사적인 경험에 비추어 아프가니스탄과 양자 관계를 기반으로 양국 간 이익을 추구할 것이며, 다자 혹은 특정 기구 기반의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86]

---

기존에 발표된 2차 문헌을 통해 간접적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Maria Pikulina, *Uzbekistan in the Mirror of Military Security: A Historical Preface to Current Events, Conlict Studies Research Centre*, November, 1999, pp.4-5.

85)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사이트, Цели и задач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курса Узбекистана(우즈베키스탄 외교정책의 목표와 목적), 2010.02.16. (https://web.archive.org/web/20100216214229/http://mfa.uz/rus/mej_sotr/vneshnyaya_politika/) (검색일: 2021.05.03.):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사이트, Цели и задач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курса Узбекистана(우즈베키스탄 외교정책의 목표와 목적), 2010.04.11. (https://web.archive.org/web/20110411045859/http://mfa.uz:80/rus/mej_sotr/vneshnyaya_politika/) (검색일: 2021.05.03.)

한편 2012년 우즈베키스탄은 위 노선을 다소 수정하여 자국이 추진하는 다자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2012년 발표된 외교정책 개념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군사적인 문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경제 지원과 재건도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미국, NATO, 중국, 러시아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2008년 제안하였던 6+3(아프가니스탄과 접경국인 파키스탄, 이란, 중국,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 러시아, 미국, NATO)의 형식을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다시 제안할 것을 천명하였다.[87] 이는 2012년에 수정된 외교부 사이트 내 「우즈베키스탄 외교정책의 목적과 목표」에서 재확인할 수 있다.[88]

2014년 ISAF가 철군하고, 중앙아시아 내에서 IS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카리모프 대통령은 강대국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2014년 미국과 ISAF의 철군 이후 지역 내 테러리스트와 극단주의자들의 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명하였다.[89] 또한 카리모프 대통령은 지역 내 안보 제공자였던 러시아가 역할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종교적 극단주의 대응을 위하여 러시아가 중앙아시

---

86) "HEAD OF UZBEKISTAN DELEGATION VLADIMIR NOROV SPEAKS AT OSCE SUMMIT," UzReport, 2010.12.02. ( http://www.cawater-info.net/news/12-2010/02_e.htm) (검색일: 2021.05.04.)

87) 2012년 발표된 우즈베키스탄의 외교정책 개념은 현재 비공개인 상황이다. 따라서 2012년 외교정책 개념의 내용도 2차 문헌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Бахтияр Эргашев, "Политика Узбекистана в отношени и Афганистана в контексте обеспече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Россия и мусульманский мир*, 2014 no.5, pp.90-94: Sergey Markedonov, "Uzbekistan: The End of a Multi-vector Foreign Policy?,"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2012.09.10. (url : https://www.csis.org/analysis/uzbekistan-end-multi-vector-foreign-policy) (검색일: 2021.05.04.)

88)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사이트, Цели и задач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курса Узбекистана(우즈베키스탄 외교정책의 목표와 목적) ( https://web.archive.org/web/20120112030511/http://mfa.uz:80/rus/mej_sotr/vneshnyaya_politika) (검색일: 2021.05.03.)

89) "Islam Karimov says, region becomes object of close attention," UzDaily, 2012.01.13. ( http://www.uzdaily.uz/en/post/17077) (검색일: 2021.05.04.)

아 국가들을 지원하여야 하며, 중앙아시아 내 러시아는 평화와 안보를 위한 중요 국가라고 카리모프 대통령은 언급하였다.[90] 2016년 카리모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탈레반과 평화 협상을 지속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91]

## 2. 우즈베키스탄의 아프간 정책 전개

### (1) 안보 부분

2010~2016년간 우즈베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 양자적인 측면에서 관계를 강화하였으며, 강대국 외교와 관련하여서는 자국의 자주성과 독립을 강조하며 균형 외교를 원칙으로 하되[92] 경우에 따라 실리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안보 분야에서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정착보다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비롯되는 위협이 자국에 파급의 방지를 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강대국과 균형을 모색하면서 일부 분야에서 실리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

90) "Uzbek president asks Putin to help fight radical Islam in Central Asia," Reuters, 2014.12.11. ( https://www.reuters.com/article/us-uzbekistan-russia-islamists-idUSKBN0JO1TW20141210) (검색일: 2021.05.05.)

91) "Karimov Calls For Russia's Role In Peace Process," TOLOnews, 2016.04.27. https://tolonews.com/afghanistan/karimov-calls-russias-role-peace-process (검색일: 2021.05.05.)

92) 카리모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독립이 모든 것들로부터 독립적인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곧 국제사회 내에서 자국의 입지와 위신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을 참고. "22nd Anniversary of the Uzbek Independence," Seoul City, 2013.09.04.( http://www.seoulcit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957) (검색일: 2021.05.04.): Vadim Romashov, "Uzbekistan's Balancing Act: A Game of Chance for Independent External Policies," Helena Rytovuori-Apunen ed., *The Regional Security Puzzle around Afghanistan*, (Opladen: Babara Budrich Pulishers, 2016), pp.164-165.

앞서 노로브 당시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2010~2016년 우즈베키스탄은 강대국이 이끄는 안보기구에 참여하는 것보다, 양자적인 차원에서 강대국과의 협력을 유지하였다. 먼저 우즈베키스탄은 2006년 재가입하였던 CSTO를 2012년 탈퇴하였으며, 과거 CSTO를 탈퇴하고 GUAM에 가입하였던 것과 달리 탈퇴 후 새로운 안보 기구에 가입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당시 우즈베키스탄은 CSTO 내에서 신속대응군을 창설하고, 키르기즈스탄 내 군사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극단주의자들을 자극하여 지역 내 긴장을 야기시킨다고 주장하였으며, CSTO의 전략이 자국의 전략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탈퇴의 이유를 설명하였다.[93] 우즈베키스탄이 안보 분야에서 균형을 시도하였던 것은 비단 러시아뿐만이 아니었다. 표면상으로 임대료 관련 의견 불일치로, 2015년 독일군은 아프가니스탄 보급을 위하여 사용하던 우즈베키스탄 내 테르메즈(Termez)의 공군 기지에서 철수하였으며, 이로써 우즈베키스탄 내 주둔하는 서구 군의 기지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94]

그럼에도 아프가니스탄과 나머지 중앙아시아 4개국과 접경하는 우즈베키스탄의 전략적 중요성은 높이 평가받았으며[95], 이로 인하여 서구와 러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이 지속되었다. 2012년 2월 미국

---

93) "CSTO Accepts Uzbekistan's Withdrawal," RadioFreeEurope/RadioLiberty, 2012.12.19. ( https://www.rferl.org/a/csto-russia-afghanistan/24802767.html) (검색일: 2021.05.03.): Richard Weitz, "Global Insights: Uzbekistan's CSTO Withdrawal Highlights Russia's Dilemma," *World Political Review,* 2012.07.10. ( https://www.worldpoliticsreview.com/articles/12145/global-insights-uzbekistans-csto-withdrawal-highlights-russias-dilemma) (검색일: 2021.05.04.)

94) "Germany Formally Closes Uzbekistan Air Base," eurasianet, 2015.12.16. https://eurasianet.org/germany-formally-closes-uzbekistan-air-base (검색일: 2021.05.04.)

95) 2013년 야부즈 퀼(Yavuz Kül) 터키 외교부 코카서스중앙아시아국 국장은 우즈베키스탄 없이 중앙아시아 내에서 어떠한 프로그램도 진행되기 어렵다고 언급하였으며, 티무르 오레자에프(Timur Orezaev) 카자흐스탄 외교부 관료도 중앙아시아 지역 통합에서 우즈베키스탄 없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을 참고. "Uzbekistan Setting Up Checkpoints On New Silk Road," eurasianet, 2013.06.19. ( https://eurasianet.org/uzbekistan-setting-up-checkpoints-on-new-silk-road) (검색일: 2021.05.04.)

국무부는 2003년 우즈베키스탄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며 중단하였던 군사적 지원을 재개하였으며[96], 2016년 3월 러시아도 우즈베키스탄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였다.[97]

## (2) 사회, 경제, 개발, 인도적 지원 부분

앞서 우즈베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과 양자 차원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것처럼, 우즈베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에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2002년부터 인프라 건설, 에너지, 교역 분야에서 아프가니스탄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왔다.

먼저 인프라 분야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내 11개 교량 복원을 지원하였다. 2010년 5월 28일 우즈베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인 테르메즈와 아프가니스탄 도시인 마자르-에-샤리프(Mazar-e-Sharif)를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와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위 철도 건설에 1억 6,500만 달러를 투입하였으며, 2011월 8월 24일부터 철도 운행을 시작하였다. 해당 구간은 과거 미국 국방부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진출을 위해 구축한 북부물류네트워크(Northern Distribution Network, NDN)의 가장 큰 병목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98]

---

96) "U.S. Suspends Ban On Military Assistance To Uzbekistan," RadioFreeEurope/RadioLiberty, 2012.02.01. (https://www.rferl.org/a/uzbekistan_united_states_military_assistance/24470588.html) (검색일: 2021.05.04.)

97) "The Implications of Tightening Russia-Uzbekistan Ties," The Diplomat, 2016.05.11. (https://thediplomat.com/2016/05/the-implications-of-tightening-russia-uzbekistan-ties/) (검색일: 2021.05.05.)

98) "Uzbekistan starts building railroad to Mazar-e-Sharif," *eurasianet*, 2010.05.29. (https://eurasianet.org/uzbekistan-starts-building-railroad-to-mazar-e-sharif) (검색일: 2021.05.06.): "Uzbekistan-Afghanistan Railway Starts Operations," *eurasianet*, 2011.08.24. (https://eurasianet.org/uzbekistan-afghanistan-railway-starts-operations) (검색일: 2021.05.06.)

우즈베키스탄은 에너지와 통신 분야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2009년 구자르(Guzar)-수르한(Surkhan) 변전선을 건설하여 2016년까지 아프가니스탄에 15억 kW/h의 전력을 공급하였다.[99] 우즈베키스탄의 아프가니스탄 전력 공급은 자국 내 에너지 공급 부족 상황에서도 이어졌으며, 이는 타지키스탄이 자국 내 에너지 부족으로 키르기즈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 전력 공급을 중단한 것과는 대조적인 부분이다.[100] 또한 우즈베키스탄 통신사인 우즈벡텔레콤(Uzbektelecom)은 아프간 텔레콤(Afghan Telecom)과 2.5Gb/s 속도의 광섬유를 건설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간 직접 통신이 가능하게 하였다.[101]

### (3) 정치 분야

우즈베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평화 프로세스가 자국이 제안한 6+3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2010년 선언한 것처럼 다른 국가, 동맹이 이끄는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우즈베키스탄이 제안한 6+3 형태의 평화 프로세스는 참가국과 주변국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며 제안 수준에 그쳤다. 2011년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정착과 신뢰 구축을 위해 터키와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주도하는 이스탄불 프로세스(Instanbul Process)에 가입하였으나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102]

---

99) Yuriy Sarukhanyan, “Afghan Traditions of the Uzbek Foreign Policy,” Central Asian Bureau for Analystical Reporting, 2019.07.01. ( https://cabar.asia/en/afghan-traditions-of-the-uzbek-foreign-policy) (검색일: 2021.05.06.)

100) “Узбекистан увеличил поставки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в Афганистан,” regnum, 2015.12.11. ( https://regnum.ru/news/economy/2033520.html) (검색일: 2021.05.06.)

101) Эргашев (2014), p.94.

102) Joakim Brattvoll, *Uzbekistan's Ambiguous polices on Afghanistan*, Prio Policy Brief 01, 2016, p.2.

## 제 3 절 카자흐스탄의 아프간 인식과 정책

### 1. 카자흐스탄의 아프간 문제 인식

우즈베키스탄과 달리 카자흐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공유하지 않지만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자국 안보와 이익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카자흐스탄의 인식은 카자흐스탄의 공문서인 군사 독트린(2011), 국가안보법(2012), 전략 2050(2012), 외교정책개념(2014)과 정치 엘리트들의 발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안보 관련 문헌인 군사 독트린과 국가안보법을 살펴보면 카자흐스탄이 지역 내 위협을 외부 위협으로 인식하였다. 카자흐스탄은 군사 독트린에서는 △ 지역 내 사회, 정치적 불안, △ 사이버 테러와 주변 국가에서 성장하는 종교적 극단주의를 포함한 국제테러리스트와 극단주의 집단의 활동, △ 대량살상무기의 생산과 유통을 국가의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 요인으로 명시하였다.[103] 2012년 국가안보법에는 통제되지 않은 이주가 위협 요인으로 꼽혔으며, 모든 형태의 테러, 극단주의, 분리주의도 위협이라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이외에도 국제 수준에서 카자흐스탄의 정치적인 신뢰와 경제 평가에 손상을 주는 것도 외부 위협으로 포함하였다.[104]

또한 국가전략과 외교정책개념에도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한 위협 인식과 그 해결을 위한 외교적인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 2012년 12월 15일 카자흐스탄의 독립기념일(12월 16일)을 앞두고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당시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국가 연설을 통해 새 국가전략인 전략 2050을 발표하였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연

---

103) 2011에 발표된 카자흐스탄의 군사 독트린은 현재 비공개로 되어있어 2차 문헌을 통해 그 일부를 확인하여야만 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Roger McDermott, *Kazkahstan's 2011 Military Decotrine: Reassessing Reg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The Foreign Military Studies Office, 2012, p.11를 참고.

104) On national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Law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dated January 6, 2012 No. 527-IV. *Adilet* https://adilet.zan.kz/eng/docs/Z1200000527 (검색일: 2021.05.06.)

설에서 외교정책 현대화의 우선순위로 지역,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꼽았으며,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하여 지구 안보에 기여할 것을 천명하였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문제와 관련하여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이 아프가니스탄의 정치적 안정화와 복원에 힘쓸 것을 공언하였다.[105] 2014년에 발표된 2014~2020년 외교정책개념에서도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아프가니스탄의 국내 화해와 정치 문제를 해결하며, 아프가니스탄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과 세계 안보에 위협을 제거할 것을 재확인하였다.[106]

위의 공문서들이 발표된 전후 정치 엘리트들의 공개적인 발언과 문헌에서도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지역 안보뿐만 아니라 자국 안보의 위협으로 여기는 점을 읽어낼 수 있다. 2010년 OSCE의 의장국을 수임한 카자흐스탄 측은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OSCE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2010년 1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테러와 기타 위협의 해소, 아프가니스탄 갈등 해결과 재건이 OSCE 의장국인 카자흐스탄이 제시하는 우선과제라고 밝혔으며[107], 2010년 12월 정상회담에서도 아프간 문제가 의제로 설정되어 논의되었다.[108] 또한 군 사령관 출신인 게오르기 두보브체프(Georgy Dubovtsev) 카자흐스탄 군사전략연구센터(Center for Military Strategic Studies, TsVSI) 센터장은 중앙아시아 지역 내 위협 요인으로 테러, 종교적 극단주의, 분리주의,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의 마약 유입을 꼽았으며, 당시 종교적 극단주의자들로 인하여 아

105) “2050 Strategy address,” Kazakhstan 2050 Strategy. https://kazakhstan2050.com/2050-address (검색일: 2021.05.05.):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Н.Назарбаева народу Казахстана. 14 декабря 2012 г. https://www.akorda.kz/ru/addresses/addresses_of_president/poslanie-prezidenta-respubliki-kazahstan-nnazarbaeva-narodu-kazahstana-14-dekabrya-2012-g (검색일: 2021.05.06.)

106)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на 2014 - 2020 годы, Adliet. https://adilet.zan.kz/rus/docs/U1400000741 (검색일: 2021.05.06.)

107) “Holding summit, protracted conflicts, transport and tolerance among priorities for Kazakh OSCE Chairmanship,” OSCE, 2010.01.15. https://www.osce.org/cio/51821 (검색일: 2021.05.06.)

108) “2010 OSCE Summit in Astana,” OSCE, 2010.12.02. https://www.osce.org/event/summit_2010 (검색일: 2021.05.06.)

프가니스탄 내 군사적, 정치적 상황의 악화와 사회경제 침체로 인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영향력 확대에 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109] 2013년 9월 UN 총회에서 에를란 이드리쏘프(Erlan Idrissov) 당시 카자흐스탄 외교부 장관도 카자흐스탄이 아프가니스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며 이스탄불 프로세스에 계속 참가하겠다고 밝혔다.[110]

## 2. 카자흐스탄의 아프간 정책 전개

### (1) 안보 분야

카자흐스탄은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양자적인 수단보다 다자적인 수단을 통해 접근하였다. OSCE 정상회담에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43개 OSCE 참여국들이 아프가니스탄을 지원하고 있으며, OSCE 회원국들이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과 경제, 국민들의 평화로운 삶을 복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마약 밀매, 불법 이주, 인신매매, 대량학살무기 유통이 유럽의 위협이 되고 있으며, 초국경범죄, 마약 밀매, 불법 이주에 대응할 수 있는 OSCE 회원국 장관 수준의 위원회 창설을 제안하였다.[111] 또한 카자흐스탄은 CSTO 회원국으로서 타지키스탄에 타직-아프간 국경 지원을 약속하였으며[112],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에서 개최된 합

---

109) Georgy Dubovtsev & Erlan Galymzhanuly, “Forecast on the Military - Political Situation Emerging in the World and the Central Asian Region,”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12-1, 2011, pp.42 - 43.

110) “Central Asian countries cite instability in Afghanistan as serious threat,” UN News, 2013.09.27. https://news.un.org/en/story/2013/09/451332 (검색일: 2021.05.06.)

111) STATEMENT BY HIS EXCELLENCY NURSULTAN NAZARBAYEV,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AT THE 2010 OSCE SUMMIT, OSCE, 2010.12.01. ( https://www.osce.org/files/f/documents/8/7/73866.pdf) (검색일: 2021.05.06.)

112) “CSTO Promises Support, But No Russian Troops, For Tajikistan's Border,” eurasiaent, 2013.09.24. ( https://eurasianet.org/csto-promises-support-but-no-russian-troops-for-tajikistans-border) (검색일: 2021.05.06.):

동군사훈련에 참가하였다.[113] 한편 양자적인 수준에서 카자흐스탄의 아프가니스탄 안보 분야 지원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2011년 카자흐스탄은 아프가니스탄에 장교 혹은 의무병 총 4명을 파견을 언급하였으나 이는 제안에 그쳤다.[114]

## (2) 사회, 경제, 개발, 인도적 지원 부분

카자흐스탄은 사회, 경제, 개발, 인도적 지원 부분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였다. 사회적인 부분에서 카자흐스탄은 아프가니스탄 학생, 의사, 교사들을 초청하여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카자흐스탄은 2010년 이후 카자흐스탄 고등 교육 기관에서 매년 200명의 아프가니스탄 학생을 초청하여, 2010~2018년간 5,000만 달러 규모의 의사,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115]

또한 카자흐스탄은 2009년부터 아프가니스탄의 교육, 도로, 농업 관련 인프라 건설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였다. 학교, 병원, 도로, 철도 건설과 농업 생산 지원, 댐의 복원과 신규 댐 건설, 발전소 현대화를 위하여 5,2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116] 이외에도 카자흐스탄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하는 전담 기관인 카즈에이드(KAZAID)를 설립하여 중앙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

113) "Russia And Allies Practice Fighting ISIS In Tajikistan," eurasiaent, 2016.04.25. (https://eurasianet.org/russia-and-allies-practice-fighting-isis-in-tajikistan) (검색일: 2016.05.06.)

114) "Kazakhstan Offers Token Troop Presence For Afghanistan," RadioFreeEurope/RadioLiberty, 2011.05.24. (https://www.rferl.org/a/kazakhstan_afghanistan_troops/24194820.html) (검색일: 2021.05.06.)

115) Kuralay Maksut, "Central Asia, Afghanistan and International Order: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Journal of Global Policy and Governance*, 1, 2013, pp.203-215.

116) Dmitry Malyshev and Elnara Bainazarova, "Russia and Kazakhstan: Mutually Different Interests for Regional Leadership," Helena Rytovuori-Apunen ed., *The Regional Security Puzzle around Afghanistan*, (Opladen: Babara Budrich Pulishers, 2016), p.262.

공언하였다. 2016년 카즈에이드는 UN 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일본 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공동 지원에 합의하였다.[117]

## (3) 정치 분야

카자흐스탄은 2011년 시작된 이스탄불 프로세스에 적극 참여하면서 다자 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정착에 참여하고자 하였다. 카자흐스탄은 2013년 4월 26일 제3차 이스탄불 프로세스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였으며, 해당 회담에 참가한 외교부 장관들은 아프가니스탄 지원과 교육, 대테러, 마약 대응, 재난 관리, 인프라, 상업 및 교역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약속하였다.[118]

---

117) "UNDP, Kazakhstan and JICA to Jointly Assist Afghanistan," 2016.08.20. (https://astanatimes.com/2016/08/undp-kazakhstan-and-jica-to-jointly-assist-afghanistan/) (검색일: 2021.05.06.): 카즈에이드, UNDP, JICA의 합의는 2016년에 이루어졌지만, 이들의 아프가니스탄 지원 사업은 2017년부터 실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을 참고. "About the establishment of the Kazakhst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KazAID," Embass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to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https://www.gov.kz/memleket/entities/mfa-islamabad/press/news/details/148436?lang=en) (검색일: 2021.05.06.)

118) Richard Weitz, "Almaty Hosts 'Heart of Asia' Conference," The Jamestown Foundation, 2013.05.03. https://jamestown.org/program/almaty-hosts-heart-of-asia-conference/ (검색일: 2021.05.06.)

## 제 4 절 키르기스스탄의 아프간 문제 인식과 정책

### 1. 키르기스스탄의 아프가니스탄 문제 인식

키르기스스탄의 안보 관련 공문서인 국가안보개념(2012)과 군사 독트린(2013), 그리고 정치 엘리트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하지 않은 키르기스스탄도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지역과 자국의 안보에 위협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두 번째 튤립혁명 이후 설립된 신정부가 2012년 발표한 국가안보개념에서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한 상황은 중앙아시아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주요 위협이라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중앙아시아와 아프가니스탄을 둘러싼 지정학적 각축, ISAF 철군으로 인한 안보 공백, 탈레반의 지원을 받는 극단주의자들의 활동도 키르기스스탄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키르기스스탄은 인식하고 있다. 특기할만한 점은 탈레반,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운동, 동튀르키스탄 이슬람운동 등 특정 테러리스트, 종교적 극단주의 단체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 문서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은 2014년 ISAF 철군 이후 이들이 중앙아시아로 침투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키르기스스탄은 테러와 극단주의 이외에도 지역 내 불법 이주, 마약 밀매 카르텔도 위협 요인으로 꼽혔다.[119] 2013년 발표된 군사 독트린에서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내 테러, 종교적 극단주의, 분리주의가 여전히 존재하며 마약 밀매, 불법 이주 등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군사적 위협 요인 중 첫 번째로 국제 테러의 확산을 명시하였다.[120]

키르기스스탄이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자국 안보의 위협으로 여긴다는 점은 외교부 장관들의 UN 총회 연설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

119) Концепц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VESTI.kg, 2012.06.12. https://vesti.kg/component/k2/item/13270-kontseptsiya-natsionalnoy-bezopasnosti-kyirgyizskoy-respubliki.html (검색일: 2021.05.06.)

120) ВОЕННАЯ ДОКТРИНА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2013.07.15.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900232 (검색일: 2021.05.06.)

2010년 루슬란 카자크바에프(Ruslan Kazakbaev) 당시 키르기스스탄 외교부 장관은 UN이 중앙아시아 지역 내 인도주의 지원과 대테러 대응에서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카자크바에프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내 기구들을 지원하는 것이 중앙아시아 지역 내 위협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121] 카자크바에프 장관의 후임인 에를란 압딜다예프(Erlan Abdyldayev) 키르기스스탄 외교부 장관도 2014년과 UN 총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비롯된 마약 밀매가 지역 내 주요 위협이라고 언급하였으며[122], 2016년에는 종교적 극단주의,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23]

## 2. 키르기스스탄의 아프간 정책 전개

### (1) 안보 분야

키르기스스탄은 2010년 이후 러시아와 CSTO, SCO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아프가니스탄발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였으나,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보다 자국 안보를 확립을 우선시하였다. 연구 대상인 되었던 2010~2016년 키르기스스탄은 미국보다 러시아와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였다. 2012년 12월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로부터 부채 삭감의 대가로 수도 비슈케크(Bishkek) 주변의 칸트(Kant) 공군 기지를 임대하였으며,

---

121) "Kyrgyzstan H.E. Mr. Ruslan Kazakbaev,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UN, 2010.09.27. https://www.un.org/en/ga/65/meetings/generaldebate/View/SpeechView/tabid/85/smid/411/ArticleID/237/reftab/233/t/Kyrgyzstan/Default.html (검색일: 2021.05.06.)

122) "Kyrgyz official warns UN Assembly of international dangers from unstable Afghanistan," UN News, 2014.09.29. https://news.un.org/en/story/2014/09/479752-kyrgyz-official-warns-un-assembly-international-dangers-unstable-afghanistan (검색일: 2021.05.06.)

123) In UN address, Kyrgyzstan pledges full commitment to combat terrorism," UN News, 2015.10.02. https://news.un.org/en/story/2015/10/511182-un-address-kyrgyzstan-pledges-full-commitment-combat-terrorism (검색일: 2021.05.06.)

2014년 6월 3일 미군은 아프가니스탄 운송을 위하여 활용하던 키르기스스탄 내 마나스(Manas) 공군기지에서 철군하였다.[124]

다자 차원에서 키르기스스탄은 CSTO 회원국으로서 타지키스탄에 타직-아프간 국경 지원을 약속하였으며[125],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의 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하였다.[126] 또한 SCO에서 키르기스스탄은 회원국과 아프가니스탄 안보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합동 테러 훈련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 (2) 사회, 경제, 개발, 인도적 지원 부분

연구 대상 시기인 2010~2016년 이전 키르기스스탄은 분쟁 지역인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하여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타지키스탄 내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기구 출범을 제안하거나, 아프가니스탄에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외채를 삭감하는 안을 제안하였으나, 이러한 안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127]

2010~2016년 키르기스스탄은 에너지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사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키르기스스탄은 미국이 주도하는 중앙아시아-남아시아 전력 프로젝트인 CASA-1000에 참가하였다. CASA-1000 프로젝트는 상류 지역인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서 수력으로 전력을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으로 송출하는 대규모 프

---

124) ""U.S. vacates base in Central Asia as Russia's clout rises," Reuters, 2014.06.03. https://www.reuters.com/article/us-kyrgyzstan-usa-manas-idUSKBN0EE1LH20140603 (검색일: 2021.05.06.)

125) "CSTO Promises Support, But No Russian Troops, For Tajikistan's Border," eurasiaent, 2013.09.24. https://eurasianet.org/csto-promises-support-but-no-russian-troops-for-tajikistans-border (검색일: 2021.05.06.):

126) "Russia And Allies Practice Fighting ISIS In Tajikistan," eurasiaent, 2016.04.25. https://eurasianet.org/russia-and-allies-practice-fighting-isis-in-tajikistan (검색일: 2016.05.06.)

127) Nargis Kassenova, *Relations Between Afghanistan and Central Asian States After 2014*,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14, pp.24-25.

로젝트로, 연결되는 전선의 길이는 1,222km, 송출되는 전력량은 1,300MW(아프가니스탄 300MW, 파키스탄 1000MW)에 달한다([그림 3-4] 참고). CASA-1000 프로젝트는 세계은행, 미국, 영국, 유럽투자은행, 이슬람개발은행이 지원하였으며, 투입액은 약 11억 6,000만 달러가 투입되었다.[128] 이외에도 2013년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내 있는 키르기즈인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129] 실질적인 지원은 2020년에야 이루어졌다.[130]

### (3) 정치 분야

키르기스스탄은 다자적인 측면에서 아프가니스탄 문제와 평화정착 안건을 논의하였다. 앞서 외교부 장관들이 UN에서 아프가니스탄 문제와 관련하여 발언하며 안건의 심각성을 강조하였으며, 키르기스스탄은 이스탄불 프로세스에 참가하였다.

---

128) About CASA-1000 https://www.casa-1000.org/about-casa-1000/ (검색일: 2021.05.06.): "Tajikistan, Kyrgyzstan, Afghanistan, Pakistan inaugurated CASA-1000 project," *The AsiaN*, 2016.05.13. http://www.theasian.asia/archives/94555) (검색일: 2021.05.06.)

129) "Kyrgyz government to dispatch humanitarian aid to ethnic Kyrgyz in Afghanistan," *AKIpress*, 2013.10.29. https://akipress.com/news:530122:Kyrgyz_government_to_dispatch_humanitarian_aid_to_ethnic_Kyrgyz_in_Afghanistan/ (검색일: 2021.05.08.)

130) "Kyrgyz government dispatches humanitarian aid to ethnic Kyrgyz living in Tajikistan, Afghanistan," *AKIpress*, 2020.06.22. https://akipress.com/news:643960:Kyrgyz_government_dispatches_humanitarian_aid_to_ethnic_Kyrgyz_living_in_Tajikistan,_Afghanistan/ (검색일: 2021.05.06.)

[그림 3-4] 2018년 11월 27일 기준 CASA-1000 프로젝트 진행 현황
출처: CASA-1000 사이트(https://www.casa-1000.org/)

## 제 5 절 타지키스탄의 아프간 문제 인식과 정책

### 1. 타지키스탄의 아프가니스탄 문제 인식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국경선은 1,357km에 달하여 타지키스탄 중앙아시아 국가 중 아프가니스탄과 가장 긴 국경을 공유하고 있고, 가장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파키스탄의 국경 지역인 파미르 고원은 산지와 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파미르 고원의 일부 지역은 극단주의자들의 기지와 훈련소가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31] 또한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 지대에서는 타지키스탄 국경수비대와 극단주의자들과의 무장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한다.[132] 또한 아프가니스탄 측 타직-아프간 접경 지역 내에서는 아편이 재배되며 마약이 생산, 유통된다.[133]

타지키스탄의 아프가니스탄 문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외교, 안보 관련 문서는 군사 독트린(2005), 외교정책개념(2015)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제한적이며, 정치인들의 발언을 통하여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타지키스탄에 공문서를 살펴보면, 2005년 군사 독트린에서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 내 사회, 정치, 영토, 지역, 인종 간 갈등이 증대하고 있으며, 국제 테러, 종교적 극단주의, 마약 확산, 불법 이주가 타지키스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 모두에게 위협이

---

131) "Al-Qaeda training camp uncovered in Tajikistan," *Telegraph*, 2010.10.19. https://www.telegraph.co.uk/news/worldnews/asia/afghanistan/8073451/Al-Qaeda-training-camp-uncovered-in-Tajikistan.html (검색일: 2021.05.07.):

132) Sébastien Peyrouse, *Battle on Top of the World: Rising Tensions in Tajikistan's Pamir Region*, German Marshall Fund of the United States, 2012. pp.1-4.

133) Sebastien Peyrouse, "Drug Trafficking in Tajikistan: A very deep but not incurable evil,"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2018.03.01. (https://www.georgetownjournalofinternationalaffairs.org/online-edition/2018/3/1/drug-trafficking-in-tajikistan-a-very-deep-but-not-incurable-evil) (검색일: 2021.05.07.)

된다고 여긴다.[134] 2015년 발표된 외교정책 개념에서 타지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정착 지원국이며,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정치적 안정성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타지키스탄은 국제사회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과 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아프가니스탄과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타지키스탄은 테러리스트 집단의 활동 확대, 국경을 넘나들며 이루어지는 마약 밀매와 극단주의 사상의 전파가 자국뿐만 국제체제 내에서도 안보의 도전과 위협요인으로 선정하였다.[135]

에모말리 라흐몬(Emomali Rahmon) 타지키스탄 대통령은 국제기구 내 연설에서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에 타지키스탄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라흐몬 대통령은 2010년 OSCE 정상회담에서 타지키스탄이 양자와 다자 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고압전류선 건설, 아프간 인력 훈련, 철도, 도로, 교량 건설 등에서 지원 중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라흐몬 대통령은 불법 마약의 생산과 유통이 OSCE 지역 내에서 안보와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언급하였다.[136] 이외에도 2015년 UN 총회에서 라흐몬 대통령은 세계 지도자들에게 아프가니스탄의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 및 국내 화합과 대화 절차의 지속, 지역 협력 참여를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137]

---

134) ПОСТАНОВЛЕНИЕ МАДЖЛИСИ НАМОЯНДАГОН МАДЖЛИСИ ОЛИ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 от 3 октября 2005 года №103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Военной доктрины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СТРАН СНГ http://base.spinform.ru/show_doc.fwx?rgn=12243 (검색일: 2021.05.08.)

135)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 2015.01.27. (https://mfa.tj/ru/main/view/988/kontseptsiya-vneshnei-politiki-respubliki-tadzhikistan) (검색일: 2021.05.08.)

136) STATEMENT BY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HIS EXCELLENCY EMOMALI RAHMON AT THE OSCE SUMMIT, OSCE, 2010.12.02.

137) “Fighting terrorism and drug trafficking are key priority’s for Tajikistan, President tells UN Assembly,” UN News, 2015.09.29. (https://news.un.org/en/story/2015/09/510572-fighting-terrorism-and-drug-traffic

## 2. 타지키스탄의 아프간 정책의 전개

### (1) 안보 분야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안보 분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타지키스탄은 지뢰 제거, 안보 부문 개혁, 소형 무기 제거 논의, 안보 안정화, 국방 외교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안보 분야에서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에 참여하거나 혹은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였다.

먼저 다자기구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지뢰 제거, 안보 부분 개혁을 살펴보면, 타지키스탄은 2003년부터 스위스지뢰행동재단(Swiss Foundation for Mine Action, FSD), OSCE와 함께 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을 포함한 타지키스탄 접경 지역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진행하였다.[138] 또한 OSCE와 UN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의 지원을 받아 타직-아프간 국경 관리, 순찰 교육이 이루어졌다.[139]

연구 대상 기간인 2010~2016년간 CSTO는 타지키스탄 측 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 지대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진행하였으며, 테러,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140] 또한 타지

---

king-are-key-prioritys-tajikistan-president) (검색일: 2021.05.08.)

138) *Strategic Planning in Mine Action Programmes Tajikistan*, Geneva International Centre for Humanitarian Demining, 2013, pp.6-13: "Visit of Afghan demining experts to Tajikistan," ITF, 2012.11.07. https://www.itf.si/news/visit-of-afghan-demining-experts-to-tajikistan (검색일: 2021.05.09.)

139) "Joint Tajik-Afghan Training on Humanitarian Border Management," IOM, 2013.09.27. https://weblog.iom.int/tajikistan/joint-tajik-afghan-training-humanitarian-border-management (검색일: 2021.05.08.): "Tajik border guards and Afghan border police complete OSCE Patrol Management and Analysis training course," OSCE, 2014.10.14. https://www.osce.org/tajikistan/126208 (검색일: 2021.05.08.)

140) "CSTO Promises Support, But No Russian Troops, For Tajikistan's Border," eurasianet, 2013.09.24. https://eurasianet.org/csto-promises-support-but-no-russian-troops-for-tajikist

키스탄은 중국,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과 대테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루무치(Urumqi)에서 실시된 군사 훈련에도 참가하였다.[141]

이외에도 지역 내 강대국인 러시아, 미국, 중국과 양자적인 수준에서 협력을 확대해온 타지키스탄은 2016년 탈레반이 활동을 재개하고 IS의 위협이 증대되자 지역 내 강대국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142]

## (2) 사회, 경제, 개발, 인도적 지원 부분

타지키스탄은 인프라 건설과 전력 제공을 통하여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2011년 타지키스탄은 민간개발기구인 아가 칸 개발 네트워크(Aga Khan Development Network, AKDN)와 협력하여 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 접경 지대에 반지(Vanj) 교량을 건설하였다.[143] 또한 2013년부터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연

---

ans-border (검색일: 2021.05.08.): "CSTO Troops Drill Against 700-Strong Taliban Invasion Of Tajikistan," eurasianet, https://eurasianet.org/csto-troops-drill-against-700-strong-taliban-invasion-of-tajikistan (검색일: 2021.05.08.): "Russia And Allies Practice Fighting ISIS In Tajikistan," eurasianet, 2016.04.25. https://eurasianet.org/russia-and-allies-practice-fighting-isis-in-tajikistan (검색일: 2021.05.08.)

141) "Afghanistan, China, Pakistan, Tajikistan Deepen "Anti-Terror" Ties," eurasiaent, 2016.08.04. https://eurasianet.org/afghanistan-china-pakistan-tajikistan-deepen-anti-terror-ties (검색일: 2021.05.08.)

142) "Russia and Tajikistan Stage Large Antiterrorism Drills," The Diplomat, 2016.03.12. https://thediplomat.com/2016/03/russia-and-tajikistan-stage-large-antiterrorism-drills/ (검색일: 2021.05.09.): "Russia, Tajikistan Hold Huge Military Drills Near Afghan Border," Military News, 2016.03.15. https://www.military.com/daily-news/2016/03/15/russia-tajikistan-hold-huge-military-drills-near-afghan-border.html (검색일: 2021.05.09.): "China Holds Anti-Terror Exercises on Afghanistan-Tajikistan Border," eurasianet, 2016.10.24. https://eurasianet.org/china-holds-anti-terror-exercises-afghanistan-tajikistan-border (검색일: 2021.05.09.)

143) "Tajik and Afghan officials inaugurate Vanj bridge built by AKDN as part

결하는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타지키스탄(TAT) 철도가 착공되었다. 해당 철도는 총 400km 길이로, 철도 건설에는 약 15~20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아시아개발은행은 아프가니스탄 구간 건설을 위하여 3억 5,0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144] TAT 철도는 2015년에도 건설이 지속되었으며, 2018년 완공이 예정되었으나 타지키스탄 구간은 아직까지도 건설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45]

타지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 양자, 다자 모든 차원에서 에너지 협력을 진행하였다. 2011년 타지키스탄의 상투다(Sangtuda) 수력 발전소와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북부에 위치한 풀-이-쿰리(Pul-i-Kumri)를 연결하는 송전선 발족식을 가졌다. 해당 행사에는 오킬 오킬로프(Oqil Oqilov) 타지키스탄 총리, 모함마드카심 파힘(President Mohammadqasim Fahim) 아프가니스탄 부통령이 참석하였다. 상투다-풀-이-쿰리 송전선은 281km 길이(타지키스탄 측 118km, 아프가니스탄 측 163km), 송전 용량 300MW 규모이다.[146] 2013년 타지키스탄 에너지 공사인 바르키 토지크(Barki Tojik)는 대아프간 전력 수출을 기존 대비 220%인 늘린 20억 KW/h를 수출할 계획이며, 이 중 16억 KW/h가 2011년 운영을 시작한 상투다-풀-이-쿰리 송전선을 통해 전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147] 이외에도 미국 대사관과 아가 칸 재단(Aga Khan

---

of Cross-border Initiatives," AKDN, 2011.08.16. https://www.akdn.org/press-release/tajik-and-afghan-officials-inaugurate-vanj-bridge-built-akdn-part-cross-border (검색일: 2021.05.08.)

144) "Afghan, Tajik, Turkmen Presidents Open New Railway Construction," RadioFreeEurope/RadioLiberty, 2013.06.05. https://www.rferl.org/a/afghanistan-turkmenistan-tajikistan-railqay-construction/25007658.html (검색일: 2021.05.09.): "Turkmenistan-Afghanistan-Tajikistan railway construction underway," Azernews, 2015.07.02. https://www.azernews.az/region/84846.html (검색일: 2021.05.09.)

145) 타지키스탄은 자국 내 TAT 철도 노선 건설을 위한 예산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을 참고. Business Turkmenistan, 2021.02.04. (https://business.com.tm/post/6631/tajikistan-negotiates-financing-of-its-section-of-tajikistanafghanistanturkmenistan-railway) (검색일: 2021.05.09.)

146) "Tajik Power Line To Afghanistan Inaugurated," RadioFreeEurope/RadioLiberty, 2011.10.27. https://www.rferl.org/a/afghanistan_tajikistan_power_line_inaugurated/24373587.html (검색일: 2021.05.09.)

Foundation)는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내 오지(奧地)인 파미르고원 마을에 송전선 건설을 지원하여 오지 마을 사람들이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였다.[148] 다자 차원에서도 타지키스탄은 CASA-1000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CASA-1000 프로젝트에서 계획된 송전소와 시설은 2023년 완공될 전망이다.[149]

### (3) 정치 분야

타지키스탄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UN, OSCE, CSTO, 이스탄불 프로세스에서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지역 안보에 끼치는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아프가니스탄 문제에서 타지키스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

147) "Tajikistan to triple electricity export to Afghanistan," Afghan Voice Agency, 2013.04.04. https://avapress.com/en/59133/Tajikistan-to-triple-electricity-export-to-Afghanistan (검색일: 2021.05.09.)

148) "Tajikistan, Afghanistan Pamiri Villages Joined by Power Line," eurasianet, 2016.05.31. https://eurasianet.org/tajikistan-afghanistan-pamiri-villages-joined-power-line (검색일: 2021.05.09.)

149) "CASA-1000 Power Project Inaugurated In Tajikistan," RadioFreeEurope/RadioLiberty, 2016.05.12. https://www.rferl.org/a/tajikistan-afghanistan-kygyzstan-pakistan-casa-power-project-inaugurated/27729921.html (검색일: 2021.05.09.): "Afghan Part of CASA-1000 Project 30% Completed," TOLOnews, 2021.03.28. https://tolonews.com/business-171036 (검색일: 2021.05.09.)

## 제 6 절 투르크메니스탄의 아프간 인식과 정책

### 1. 투르크메니스탄의 아프가니스탄 문제 인식

투르크메니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 804km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접경 지역에도 마약이 생산,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내밀한 국가로. 외교, 안보와 관련된 공문서 역시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일부 확인 가능한 투르크메니스탄의 공문서 중 외교정책개념(1995)과 외교정책노선 선언(1999), 그리고 군사 독트린(2015)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의 위협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투르크메니스탄의 외교정책 문서들을 살펴보면, 외교정책개념(1995)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영세 중립국으로서 어떠한 군사 동맹에도 가입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다. 그럼에도 투르크메니스탄은 전쟁, 갈등, 자연재해,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인도주의 단체인 적십자적월신사(Red Cross and Red Crescent)와 WHO, UNESCO, UNICEF와 활발히 협력할 것을 선언하였다.[150] 1999년 발표된 외교정책노선 선언에는 영세 중립국으로서 투르크메니스탄의 외교를 노정하는 원칙이 담겨 있다.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직접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프가니스탄 문제와 유사한 갈등, 초국경 범죄에 대한 투르크메니스탄의 인식과 대응의 기조를 외교정책노선 선언에서 읽어낼 수 있다. 위 문서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은 떠오르는 분쟁과 갈등의 해결에서 UN의 권위를 인정하며 UN이 제시한 평화와

---

150)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т декабря 1995 ( http://wiki-tm.com/index.php/%D0%9A%D0%BE%D0%BD%D1%86%D0%B5%D0%BF%D1%86%D0%B8%D1%8F_%D0%B2%D0%BD%D0%B5%D1%88%D0%BD%D0%B5%D0%B9_%D0%BF%D0%BE%D0%BB%D0%B8%D1%82%D0%B8%D0%BA%D0%B8_%D0%A2%D1%83%D1%80%D0%BA%D0%BC%D0%B5%D0%BD%D0%B8%D1%81%D1%82%D0%B0%D0%BD%D0%B0_%D0%BE%D1%82_%D0%B4%D0%B5%D0%BA%D0%B0%D0%B1%D1%80%D1%8F_1995) (검색일: 2021.05.10.)

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포괄적인 메커니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은 높은 발전 가능성을 지닌 아시아 국가의 영내에서 내부 갈등이 존재하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여야 번영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 갈등을 겪고 있는 아시아 각국이 외부 독자적인 합의와 화합의 과정을 찾을 것이며, 외부의 개입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역 내 갈등에 대한 투르크메니스탄의 입장이다.[151]

군사 독트린(2015)은 국가안보개념과 외교정책노선 선언(1999)에서 명시된 군사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군사 독트린에는 투르크메니스탄 내 군사 안보와 영토적 온전성을 지키고 평화로운 외교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원칙들이 담겨 있다. 군사 독트린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이 규정하고 있는 외부로부터의 위협 중 아프가니스탄 문제와 연관된 위협은 △ 투르크메니스탄 국경 부근에서 발생하는 무장 갈등, △ 국제 테러, 분리주의, 종교적 극단주의, △ 투르크메니스탄 국경 인근 지역에 군대를 확충하는 행위, △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의 물체와 건축물들에 대한 공격 및 무장 도발, △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침투하기 위해 다른 국가 내에서 무장, 훈련을 진행하는 군사 집단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조직범죄, 불법 무기와 마약의 유통, 이와 관련된 초국경범죄도 투르크메니스탄은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152]

공문서 이외에도 정치 엘리트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2010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Gurbanguly Berdimuhamedov) 투르크메니스

---

151) Декларация о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м курсе Туркменистана в XXI веке от 27.12.1999 ( http://wiki-tm.com/index.php/%D0%94%D0%B5%D0%BA%D0%BB%D0%B0%D1%80%D0%B0%D1%86%D0%B8%D1%8F_%D0%BE_%D0%B2%D0%BD%D0%B5%D1%88%D0%BD%D0%B5%D0%BF%D0%BE%D0%BB%D0%B8%D1%82%D0%B8%D1%87%D0%B5%D1%81%D0%BA%D0%BE%D0%BC_%D0%BA%D1%83%D1%80%D1%81%D0%B5_%D0%A2%D1%83%D1%80%D0%BA%D0%BC%D0%B5%D0%BD%D0%B8%D1%81%D1%82%D0%B0%D0%BD%D0%B0_%D0%B2_XXI_%D0%B2%D0%B5%D0%BA%D0%B5_%D0%BE%D1%82_27.12.1999) (검색일: 2021.05.10.)

152) ВОЕННАЯ ДОКТРИНА НЕЗАВИСИМОГО, ПОСТОЯННО НЕЙТРАЛЬНОГО ТУРКМЕНИСТАНА, Turkmen Business. ( http://www.turkmenbusiness.org/node/126) (검색일: 2021.05.10.)

탄 대통령은 UN 총회에서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투르크메니스탄이 정치, 사회, 경제, 에너지 부분에서 기여를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이 △아프가니스탄 내 평화 협상과 화해 및 협력, △ 아프간 유학생 초청 및 교육, △ 운송 인프라 건설, △ TAPI 천연가스관 건설, △ 전력 제공량 확대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UN의 지도 아래 신뢰 구축을 위한 국제 고위 회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153]

## 2. 투르크메니스탄의 아프간 정책 전개

### (1) 안보 분야

앞서 투르크메니스탄 공문서에서 확인해본 것처럼, 투르크메니스탄은 군사 동맹에 가입하지 않고 자조적으로 국경 강화를 추진하였으며[154], 미국, 러시아와의 양자 간 관계에서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였다.[155]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은 OSCE로부터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에 근무하는 투르크메니스탄 측 국경경비대에 국경 관리 및 위협 평가에 관한 교육 지원을 받았다.[156]

---

153) “Address by the President of Turkmenistan at the 65th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Turmenistan.ru, 2010.09.22. http://www.turkmenistan.ru/en/node/14143 (검색일: 2021.05.10.)

154) “Turkmenistan’s New Afghan Border Policy,” RadioFreeEurope/RadioLiberty, 2014.10.10. https://www.rferl.org/a/turkmenistan-afghanistan-border-policy/26631200.html (검색일: 2021.05.10.)

155) “Advantage United States In This Year's Meeting With Turkmen Officials,” RadioFreeEurope/RadioLiberty, 2015.10.14. https://www.rferl.org/a/qishloq-ovozi-turkmenisan-us-meeting-everything-different/27306656.html (검색일: 2021.05.10.): “Turkmenistan Seeks Military Aid From Russia,” eurasianet, 2016.06.09. https://eurasianet.org/turkmenistan-seeks-military-aid-russia (검색일: 2021.05.10.)

156) “OSCE trains Turkmenistan border guards in border management and threat assessment,” OSCE, 2015.04.29. https://www.osce.org/ashgabat/154276 (검색일: 2021.05.10.)

## (2) 사회, 경제, 개발, 인도적 지원 부분

투르크메니스탄은 에너지, 교통 인프라 건설을 통하여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양자 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사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다자 프로젝트에도 활발히 참여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미국이 주도하는 TAPI 천연가스관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TAPI 천연가스관은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를 연결하는 1,814km 규모, 연간 운송량 33bcm 규모의 가스관으로, 총 100억 달러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제 프로젝트이다. TAPI 천연가스관이 완공되어 운영이 시작되면, 총 33bcm의 운송량 중 아프가니스탄에는 5bcm이 공급된다. 2010년 천연가스관이 통과하는 4개국의 정부 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각국의 가스공사는 2014년 TAPI 천연가스관 공사와 운영을 전담하는 TAPI 천연가스관유한회사(TAPI Pipeline Company Limited, TPCL)를 설립하였다.[157] TAPI 천연가스유한회사는 투르크메니스탄 가스공사인 투르크멘가즈(TurkmenGaz)가 주도하게 되었으며, 2015년 12월 투르크메니스탄 측은 TAPI 천연가스관 건설에 착수하였다.[158] 2016년 12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TAPI 천연가스관 건설로 아프간 측에 1만 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159], 가스관이 운영되면 아프가니스탄은 운송료로 연 4억 달러를 받게 된다.[160] 이외에도 투르크메

---

157) “TAPI Pipeline Company established by member countries,” Business Standard, 2014.11.15. https://www.business-standard.com/content/b2b-manufacturing-industry/tapi-pipeline-company-established-by-member-countries-114111500634_1.html (검색일: 2021.05.10.)

158) “Turkmenistan has started work on a natural gas pipeline to Afghanistan, Pakistan and India,” Insider, 2015.12.16. https://www.businessinsider.com/turkmenistan-has-started-work-on-a-natural-gas-pipeline-to-afghanistan-pakistan-and-india-2015-12 (검색일: 2021.05.10.)

159) “Afghanistan to profit $1 billion annually for transit from TAPI pipeline,” The Khaama Press, 2016.12.07. https://www.khaama.com/afghanistan-to-profit-1-billion-annually-for-transit-from-tapi-pipeline-02436/ (검색일: 2021.05.10.)

니스탄은 아프가니스탄에 전력을 제공하였으며, 2015년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을 연결하는 TAP-500 프로젝트 참여에 서명하였다.[161]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은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타지키스탄 철도(TAT 철도) 건설에도 참가하였다. TAT 철도는 2013년부터 건설이 시작되었다. 타지키스탄 부분은 건설이 부진하게 진행되었으나, 2016년 11월 28일 투르크메니스탄의 아타미라트(Atamyrat)와 국경검문소인 이맘나자르(Ymamnazar) 85km 구간과 아프가니스탄 측 국경에서 3km 떨어진 아키나(Akina)를 연결하는 라피스 라줄리(Lapis Lazuli) 철도가 개통되었다.[162]

### (3) 정치 분야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UN 총회에서 중립국으로서 투르크메니스탄이 UN의 후원 아래 아프가니스탄 신뢰 구축을 위한 국제 고위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163] 이러한 제안은 제안 내용과 유사한 이스탄불 프로세스가 발족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이 이스탄불 프로세스에 참여하면서 아프가니스탄 내 신뢰 구축에 기여하게 되었다.

---

160) “Afghanistan earns $400M transit fee on TAPI gas pipeline,” The Khaama Press, 2012.04.18. https://www.khaama.com/afghanistan-earns-400m-transit-fee-on-tapi-gas-pipeline-747/ (검색일: 2021.05.10.)

161) “TAP500 Transmits Electricity from Turkmenistan to Pakistan through Afghanistan,” The Embassy of Afghanistan in Ashgabat, 2016.04.01. http://afghanembassyturkmenistan.com/tap500-transmits-electricity-from-turkmenistan-to-pakistan-through-afghanistan/ (검색일: 2021.05.09.)

162) “Afghanistan and Turkmenistan open Lapis Lazuli railway,” Railway Gazette, 2016.11.28. https://www.railwaygazette.com/infrastructure/afghanistan-and-turkmenistan-open-lapis-lazuli-railway/43586.article (검색일: 2021.05.10.)

163) “Address by the President of Turkmenistan at the 65th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Turmenistan.ru, 2010.09.22. http://www.turkmenistan.ru/en/node/14143 (검색일: 2021.05.10.)

| | 안보 문서 | 외교 문서 | 정치 엘리트들의 발언 |
|---|---|---|---|
| 우즈베키스탄 | - 군사 독트린(1995)<br>• 국제관계 구조의 변화로 인한 긴장과 갈등<br>• 극단주의, 테러<br>• 고도화된 무장 집단<br>• 이웃 국가 내 정치적 불안정<br>• 테러, 민족주의, 극단주의를 자극하는 활동<br><br>- 국가안보전략(1997)<br>• 민족-인종, 영토, 종교 등으로 인한 아프가니스탄 고 타지키스탄의 내전<br>• 이슬람 극단주의 확산 | - 2010년 외교부 사이트 외교정책의 목적과 목표<br>• 양자 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과의 관계 발전 → 특히 운송로, 통신 분야 협력 강조<br>• 중앙아시아 협력기구에 아프가니스탄을 참관국 자격으로 초청<br>• UN 등 국제기구에서 아프간 문제 해결 촉구<br><br>- 2012년 외교정책개념<br>• 아프가니스탄 문제는 군사뿐만 아닌 경제 지원과 재건 작업 병행 필요성 강조 → 이를 위해 미국, NATO, 중국, 러시아와 협력<br>• 6+3 포맷 제안(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중국,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 러시아, 미국, NATO) | - 2010년 12월 OSCE 정상회담<br>• 노로프 외교부 장관, “양자 관계를 기반으로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에 기여... 다자 혹은 특정 기구가 주관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을 것”<br><br>- 2012년 카리모프 대통령의 발언<br>• 카리모프 대통령, “2014년 ISAF군 철군으로 지역 내 테러와 극단주의자들의 활동이 늘어날 것이라 우려”<br><br>- 2016년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서 카리모프 대통령의 발언<br>• 카리모프 대통령, “지역 안보와 아프간-탈레반 평화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확대 요구” |
| 카자흐스탄 | - 군사 독트린(2011)<br>• 지역 내 사회, 정치적 불안<br>• 주변 국가의 테러리스트와 종교적 극단주의 집단의 활동<br><br>- 국가안보법(2012)<br>• 통제되지 않는 불법 이주<br>• 테러, 극단주의, 분리주의<br>• 정치적 신뢰와 경제 평가를 저해하는 요인 | - 국가전략 2050(2012) & 외교정책개념(2014)<br>•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지구적 안보에 기여<br>• 아프가니스탄의 정치적 안정화와 복원에 지원<br>• 아프간 국내 화해 및 정치 문제 해결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여 지역과 세계 안보 요인 제거 | - 2010년 OSCE 회의<br>• 1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테러와 위협 해소, 아프가니스탄 갈등 해결이 OSCE 의장국으로서 카자흐스탄의 우선과제”<br><br>- 2013년 UN 총회<br>• 이드리쏘프 외교부 장관, “아프가니스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이 기여... 이스탄불 프로세스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 |
| 키르기스스탄 | - 국가안보개념(2012)<br>• 아프가니스탄의 상황<br>• 중앙아시아와 아프가니스탄을 둘러싼 지정학적 각축<br>• ISAF 철군으로 인한 안보 공백<br>• 탈레반의 지원을 받는 극단주의 단체<br><br>- 군사 독트린(2013)<br>• 테러, 종교적 극단주의, 분리주의<br>• 마약 밀매, 불법 이주<br>• 국내 테러의 확산 | - | - UN 총회<br>• 2010년 카자크바예프 외교부 장관,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활동하는 기구들을 지원하는 것이 중앙아 지역 내 위협 해소 방법”<br>• 2014년 압딜다예프 장관, “아프가니스탄에서 비롯되는 마약 밀매가 지역 내 주요 위협”<br>• 2016년 압딜다예프 장관, “종교적 극단주의,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가 필요” |

| | 안보 문서 | 외교 문서 | 정치 엘리트들의 발언 |
|---|---|---|---|
| 타지키스탄 | - 군사 독트린(2005)<br>• 중앙이사이 지역 내 사회, 정치, 영토, 지역, 인종 간 갈등 증대<br>• 국제 테러, 종교적 극단주의, 마약 확산, 불법 이주 | - 외교정책개념(2015)<br>•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지원국으로서 타지키스탄<br>• 국제사회와 함께 아프간 문제의 포괄적 해결과 경제 회복을 지원<br>• 테러리스트 집단의 활동 확대, 초국경 마약 밀매, 극단주의 사상의 전파 | - 2010년 OSCE 정상회담<br>• 라흐몬 대통령, "양자와 다자 차원에서 아프간 지원... 고압전류선 건설, 아프간 인력 훈련, 철도, 도로, 교량 건설 지원... 불법 마약의 생산과 유통이 OSCE 지역 내 안보 저해 요인"<br><br>- 2015년 UN 총회<br>• 라흐몬 대통령, "아프가니스탄의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 및 국내 화합과 대화의 절차 지속... 아프가니스탄에 지역 협력 참여를 위한 지원 필요" |
| 투르크메니스탄 | - 군사 독트린(2015)<br>• 국경 부근에서 발생하는 무장 갈등<br>• 국제 테러, 분리주의, 종교적 극단주의<br>• 국경 인근에서 군대를 확충하는 행위<br>• 자국 내로 침투하기 위해 무장 및 훈련 중인 군사 집단<br>• 조직 범죄, 불법 무기와 마약의 유통 등 초국경범죄 | - 외교정책개념(1995)<br>• 전쟁, 갈등, 자연재해,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에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br><br>- 외교정책노선 선언(1999)<br>• 갈등 해결에서 UN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계 갈등 해결에서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력<br>• 아시아 국가들의 내부 갈등을 해결하여 발전 잠재력을 이끌어내야 → 하지만 외부의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아야 | - 2010년 UN 총회<br>•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UN 후원 아래 아프간 신뢰 구축을 위한 국제 고위 회담 개최 제안 |

[표 3-2] 중앙아시아 5개국의 주요 안보 문서와 엘리트들의 발언에서 나타난 아프간 인식

| |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 키르기스스탄 | 타지키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
|---|---|---|---|---|---|
| **안보 분야** | | | | | |
| 지뢰 제거 | X | X | X | O | X |
| 전투 병력의 무장해제 및 사회적응 | X | X | X | X | X |
| 안보 부문 개혁 | X | X | X | O | △ |
| 소형 무기 제거 | X | △ | △ | O | X |
| 안보 안정화 | O | △ | △ | O | △ |
| 갈등 평가 및 조기 경고 | X | △ | △ | X | X |
| 국방 외교 | O | O | O | O | △ |
| **사회, 경제, 개발, 인도주의** | | | | | |
| 재건 | X | O | X | X | X |
| 인프라 | O | O | O | △ | O |
| 경제 회복 | O | O | X | △ | O |
| 재정 지원 | X | X | X | X | X |
| 정책 및 기술 지원 | X | X | X | X | X |
| 보건 및 교육 | X | O | X | X | X |
| 식품 및 농업 지원 | X | X | X | X | X |
| 미디어 지원 | X | X | X | X | X |
| 난민의 본국 송환 지원 | X | X | X | X | X |
| NGO 역량 강화 지원 | X | X | X | X | X |
| 트라우마 상담 | X | X | X | X | X |
| **정치 분야** | | | | | |
| 정치, 외교적 평화 합의 및 중재 | △ | O | △ | △ | △ |
| 민주화 | X | X | X | X | X |
| 탈중앙집권화 | X | X | X | X | X |
| 선정(Good Governance) | X | X | X | X | X |
| 법치 | X | X | X | X | X |
| 제도 확립 | X | X | X | X | X |
| 인권 | X | X | X | X | X |
| 선거 지원 | X | X | X | X | X |
| 지도자 대화 | X | X | X | X | X |
| 지역사회 대화 | X | X | X | X | X |
| 가교 놓기 | X | X | X | X | X |
| 진실 규명 및 화해 | X | X | X | X | X |

[표 3-3] 중앙아시아 5개국의 분야별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정책

주: O - 적극 주도, △ - 제안 및 합의, 다자 이니셔티브에 참여, X - 없음

# 제 4 장 위협 인식과 위신, 그리고 아프간 정책

## 제 1 절 위협 인식의 비교와 아프간 정책

### 1. 위협 인식 비교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중앙아시아 국가들 모두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자국과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펼치는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정책은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 문제에서 느끼는 위협 인식의 정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필자는 △ 지리적 요인, △ 역사적 경험, △ 공문서들과 엘리트들의 발언을 기준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관한 위협 인식의 높고 낮음을 구분해보고자 한다.

먼저 지리적 요인은 전통적으로 위협을 평가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코헨은 지리적 요인을 위협 인식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으며[164], 왈트(Walt)도 위협의 요인 중 하나로 지리적 인접성(Geographic Proximity)을 언급하였다.[165] 이들은 공격 의도를 지닌 인접한 국가로부터 오는 위협이 공격 의도를 지닌 인접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오는 위협 크다고 평가하며, 왈트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같은 동맹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냉전이 해소된 이후 지구화가 진행되면서 위협은 단순히 공격 의도를 지닌 국가뿐만 아니라, 공격 의도를 지닌 비국가 행위자들로부터도 초래된다. 9.11 테러 이후 부상한 테러리스트들과 종교적 극단주의자 집단, 마약, 무기, 인신매매를 저지르는 범죄집단은 새로운 위협을 야기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국가는 이들이 활동하는 지역과 인접한 경우 위협을 크게 인식하며, 위협이 초래되는 지

164) Cohen (1968). p.95

165) Stephan Walt, "Alliance Formation and the Balance of World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9-4, (Spring, 1985), p.36.

역과 거리가 있는 국가는 인접한 국가보다 위협을 낮게 인식한다.

두 번째 지도자 혹은 국가의 역사적 경험도 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과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구성주의와 정치심리학에서 기억과 트라우마(Trauma)는 외교정책과 그 행위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166] 트라우마는 개인이 충격적인 경험을 한 이후 겪는 감정적인 충격으로, 이를 국가 수준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치 엘리트들의 발언과 행동, 국내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집단의 기억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167] 하지만 중앙아시아의 국민들의 여론과 인식을 확인하는 방법이 제한되어 불가피하게 역사적인 맥락에서 정치 엘리트들의 발언과 행동, 그들이 남긴 안보, 외교에 관한 공문서를 이해하여 위험 인식의 차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만약 사회적 트라우마에 대한 선별적인 기억이 정치 엘리트들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계승되고, 선별적 기억 내지 트라우마에 대한 내용이 공문서에도 나타나는 경우 위협 인식이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사회적 트라우마를 경험하지 않거나, 경험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치 엘리트들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이 이와 관련된 기억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기억이 공문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위협 인식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 (1) 우즈베키스탄의 위협 인식

우즈베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한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좁은 거리(144km)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인 발흐(Balkh)와 발흐 옆 지방인 쿤두즈(Kunduz)는 전통적으로 탈레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지역이며, 탈레반과 연관을 맺고 있

166) Kathrin Bachleitner, “Diplomacy with Memory: How the Past Is Employed for Future Foreign Policy,” Foreign Policy Analysis 15-4, 2019, pp.494-496.

167) Bachleitner, (2019), p.496.; Alexandria J. Innes and Brent J. Steele, “Memory, trauma and ontological security,” in Erica Resende & Dovile Budryte, *Memory and Trauma in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Routledge, 2014), p.16.

는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운동(IMU)의 거점 지역으로 활용되었던 곳이다. 또한 발흐 지역은 아편이 재배되고 있어 마약이 생산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내에서 가장 많은 병력을 보유함에도 우즈베키스탄은 종교적 극단주의 단체인 IMU부터 대통령 암살 시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다. 1999년 16일 2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Tashkent) 내 다수의 정부 청사에서 6대의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카리모프 대통령을 노린 것도 있었다. 이 테러로 인하여 16명이 사망하였으며, 총 120명이 부상당했다. 또한 2003년 4월에도 유사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47명이 사망하기도 하였다.[168] 이후 우즈베키스탄은 테러와 극단주의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국내 단속을 강화하였다.[169] 2014년 카리모프 대통령은 테러 집단에 대한 선제 공격을 실시할 것이며,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가입하거나, 테러 단체의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귀국한 사람, 이를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처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170]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극단주의자들을 구속하기 위한 교정 시설을 따로 설치하였으며, 해당 시설은 인권 침해의 현장으로 악명이 높았다.[171]

우즈베키스탄의 외교, 안보 문서를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은 아

---

168) Richard Weitz, "TERRORISM IN UZBEKISTAN: THE IMU REMAINS ALIVE BUT NOT WELL," *The Central Asia-Caucasus ANALYST*, 2021.05.05.
https://www.cacianalyst.org/publications/analytical-articles/item/8975-analytical-articles-caci-analyst-2004-5-5-art-8975.html (검색일: 2021.05.10.); "Uzbekistan: Effect Of Tashkent Explosions Still Felt Two Years Later," *RadioFeeEurope/RadioLiberty*, 2006.03.27. https://www.rferl.org/a/1067140.html (검색일: 2021.05.10.)

169) Adeeb Khalid, *Islam after Commun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4), pp.168-191.

170) "Karimov Prepares For Terrorists," *RadioFeeEurope/RadioLiberty*, 2014.01.24. https://www.rferl.org/a/uzbekistan-imu-terrorism/25241539.html (검색일: 2021.05.10.)

171) "Uzbekistan's new president closes Jaslyk prison camp," *The Economist*, 2019.08.08.
https://www.economist.com/asia/2019/08/08/uzbekistans-new-president-closes-jaslyk-prison-camp (검색일: 2021.08.01.)

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족, 인종, 종교로 인한 갈등을 위협으로 인식하였으며(1997년 국가안보전략), 주요 외교문서에서도 아프가니스탄 문제, 국제, 테러, 극단주의, 마약 밀매를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1885년 군사독트린,「2010년 우즈베키스탄 외교정책의 목적고 목표」).

우즈베키스탄이 처한 지리적 위치, 역사적 경험, 정치 엘리트들과 외교, 안보 관련 문서들을 살펴보았을 때 우즈베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내 불안정으로 야기된 테러, 종교적 극단주의를 비롯한 여러 문제들을 자국에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카자흐스탄의 위협 인식

직접적으로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하지 않은 카자흐스탄의 경우 최근 젊은층들이 종교적 극단주의, 테러 단체와 관련된 인터넷 콘텐츠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일부 젊은층들은 사회적 불만, 폭력적인 성향을 종교적 극단주의, 테러 집단 가입을 통해 분출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172] 따라서 카자흐스탄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부터 전혀 공격을 받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 피해 규모는 우즈베키스탄, 내전이 발생하였던 타지키스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유입되는 마약과 불법 이주자들도 접경 국가들로 우선 유입이 된 이후 카자흐스탄을 거쳐 러시아와 유럽으로 이동하는 이동로 중 하나로 알려졌다.

두보브체프 군사전략연구센터장을 비롯하여 카자흐스탄의 엘리트들은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테러, 종교

---

172) “Kazakh Bomber 'Identified,' As Islamist Group Claims Responsibility,” *RadioFreeEurope/RadioLiberty*, 2011.11.01.
https://www.rferl.org/a/kazakh_bomber_claimed_by_foreign_group/24378425.html (검색일: 2021.05.10.):
“Islamist militant kills seven in attack in Kazakh city,” *Reuters*, 2011.11.12. https://www.reuters.com/article/cnews-us-kazakhstan-blast-idCATRE7AB08220111112 (검색일: 2021.05.10.)

적 극단주의, 분리주의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아프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이드리쏘프 외교부 장관은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를 위하여 카자흐스탄이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카자흐스탄에서 발행된 외교, 안보 문서에도 지역 내 사회, 정치적 불안, 사이버 테러, 종교적 극단주의, 국제 테러집단의 활동을 위협으로 명시되어 있으며(2011 군사 독트린, 2012년 국가안보법), 카자흐스탄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프가니스탄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2012 전략 2050, 2014년 외교정책개념).

접경 여부, 역사적 경험과 기억, 엘리트들의 인식과 공문서 등을 함께 고려해보면 카자흐스탄의 입장에서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은 지역 내에서 해결되지 않은 불안 요인으로 여겨지며,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종교적 극단주의 및 테러 단체는 역사적 경험이라기보다 새롭게 등장하는 위협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카자흐스탄이 지닌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관한 위협 인식은 우즈베키스탄보다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3) 키르기스스탄의 위협 인식

키르기즈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 직접적인 접경은 하고 있지 않지만,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활동하던 종교적 극단주의 테러 단체와 초국경 마약 밀매가 성행하면서 안보를 위협하였다.[173] 특히 위에서 언급한 IMU는 우즈베키스탄, 키르시스스탄, 타지키스탄의 국경이 접경하는 페르가나(Ferghana) 계속을 중심으로 활동을 지속해오면서 키르기스스탄도 종교적 극단주의 테러 단체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했다. 위에서

173) “Gunshots And Uncertainty In Kyrgyzstan's Capital,” *npr*, 2010.04.08. https://www.npr.org/templates/story/story.php?storyId=125733032 (검색일: 2021.05.10.): “Kyrgyzstan Is the Latest Victim of the Global Heroin Trade,” *VICE*, 2013.10.29. https://www.vice.com/en/article/dpw8yy/kyrgyzstan-is-the-latest-victim-of-the-global-heroin-trade (검색일: 2021.05.10.)

살펴본 카자흐스탄의 경우와 같이 2010년대 키르기스스탄 내에서도 종교적 극단주의·테러 집단이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IS가 발흥하였을 시기 키르기스스탄 내에서도 일부 국민들이 IS에 투신하기도 하였다.[174]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키르기스스탄의 외교부 장관들은 UN 아프가니스탄에서 비롯된 종교적 극단주의와 테러, 마약 밀매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을 국제사회에 촉구하였다. 또한 키르기스스탄의 안보 문서에서도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한 상황이 중앙아시아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종교적 극단주의 단체의 자국 진출을 우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012년 국가안보개념). 2013년 발표된 군사 독트린에서도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내 테러, 종교적 극단주의, 분리주의, 마약 밀매, 불법 이주를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지닌 우즈베키스탄과 달리 카자흐스탄과 같이 지역 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키르기스스탄이 지닌 아프간 위협 인식은 우즈베키스탄보다 비교적 낮고, 카자흐스탄과 유사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4) 타지키스탄의 위협 인식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긴 1,357km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 국경은 대부분 파미르 고원의 산지이다. 또한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한 쿤두즈 지역은 탈레반의 주요 거점이며, 앞의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에 위협을 끼친 IMU가 활동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산악 접경 지역인 바닥샨 지역에서는 마약이 생산, 유통되며, 국경 통제가 적절히 되지 않아 마약과 불법 난민

174) “Concerns Mount Over Kyrgyzstan Being Breeding Ground for Terrorists,” *Voice of America*, 2017.04.04.
https://www.voanews.com/extremism-watch/concerns-mount-over-kyrgyzstan-being-breeding-ground-terrorists (검색일: 2021.05.10.)

과 가장 많이 유입되고 있다.[175]

타지키스탄은 지난 1992년 5월부터 1997년 6월 간 내전을 세속주의자와 이슬람주의자 간 내전을 겪으면서 적게는 20만 명, 많게는 1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176] 내전이 마무리된 이후 타지키스탄 내부에서는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이슬람주의가 엄격히 금지되었다.[177] 그럼에도 타지키스탄 내에서 이슬람주의의 영향력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슬람주의 정당이 재개를 도모하고 있으며, IS가 발흥할 때 미군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경찰특공대 지휘관이 IS에 가세하여 무장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178] 이에 라흐몬 대통령은 군인들에게 턱수염을 깎고 극단주의자와의 전투에 임할 것을 명령할 정도였다.[179]

타지키스탄의 2005년 군사 독트린에는 국제 테러, 종교적 극단주의, 마약 확산, 불법 이주가 자국과 중앙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을 모두

---

175) 마약 유입과 관련하여 주변국들은 타지키스탄이 국경 통제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비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을 참고. Roger McDermoot, Border Security in Tajikistan: Countering the Narcotics Trade?, *Conflict Studies Research Centre*, October 2002, p.12.: Turat Akimov, "Batken Conflict Returns - For the second year in succession guerrillas break into the Batken region in southern Kyrgyzstan," *Institute for War & Peace Reporting*, 2005.03.21. https://iwpr.net/global-voices/batken-conflict-returns (검색일: 2021.05.10.)

176) "UNHCR publication for CIS Conference (Displacement in the CIS) - Central Asia on the move," *UNHCR*, 1996.05.01. https://www.unhcr.org/cgibin/texis/vtx/search?page=search&docid=3b5580864&query=civil%20war%20in%20tajikistan (검색일: 2021.05.10.); Bakhtiyor Sobiri, "The long echo of Tajikistan's civil war," *openDemocracy*, 2017.06.23. https://www.opendemocracy.net/en/odr/long-echo-of-tajikistan-s-civil-war/ (검색일: 2021.05.10.)

177) 정세진, "타지키스탄 이슬람 부흥당 (IRPT)의 형성, 활동, 그리고 소멸," 『슬라브학보』 제35권 (4)호, (1994), pp.247-279.

178) "Commander of elite Tajik police force defects to Islamic State," *Reuters*, 2021.05.28.
https://www.reuters.com/article/us-mideast-crisis-tajikistan-idUSKBN0OD1AP20150528 (검색일: 2021.05.10.)

179) "Tajikistan forces 13,000 to shave off beards, shuts shops selling hijab," *DAWN*, 2016.01.23.
https://www.dawn.com/news/1234918/tajikistan-forces-13000-to-shave-off-beards-shuts-shops-selling-hijab (검색일: 2021.05.10.)

위협하는 요인으로 명시되어있다. 또한 타지키스탄은 공문서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정치적 안정이 자국에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2015년 외교정책개념). 또한 외교정책개념에서 타지키스탄은 테러 집단의 활동, 초국경 마약 밀매, 종교적 극단주의 사상의 전파가 곧 안보의 도전 요인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아프가니스탄과 가장 긴 국경을 공유하고 종교적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내전을 치룬 타지키스탄은 정치 엘리트들의 발언과 공문서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문제와 이에 따른 종교적 극단주의 등 여타 문제들에도 직접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타지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위협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크고, 우즈베키스탄과도 유사하거나 더욱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 (5) 투르크메니스탄의 위협 인식

투르크메니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 804km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아프간 측 접경 지역은 탈레반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다. 또한 투르크멘-아프간 접경 지역 중 아프간 측에서는중 헤라트(Herat)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마약을 재배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하는 중앙아시아 내 국가인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과 달리 종교적 극단주의, 테러에 대해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과는 달리 투르크메니스탄이 종교적 극단주의·테러 단체와 교전한 경험은 국경에서의 전투에 그친다.[180]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은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지역과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과

---

180) “Afghan Taliban Militants Reportedly Kill Three Turkmen Border Guards,” *RadioFreeEurope/RadioLiberty*, 2014.02.28. https://www.rferl.org/a/turkmenistan-afghanistan-taliban-attack/25280134.html (검색일: 2021.05.10.)

달리 깊은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투르크메니스탄의 정치 엘리트들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181]

앞에서 살펴본 1999년 외교정책 노선 선언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아프가니스타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으며, 2015년 군사 독트린에서야 아프가니스탄 문제와 연관된 국경 부근에서의 부장 갈등, 국제 테러, 분리주의, 종교적 극단주의가 위협으로 거론되었다.

이러한 점을 살펴보면, 투르크메니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공유하는 중앙아시아 국가인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보다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한 위협 인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2. 위협 인식과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정책

### (1) 위협 인식이 높은 국가의 아프간 정책

위협 인식이 높은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문제로부터 초래되는 위협이 자국으로 파급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성 안보적인 수단을 활용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자주적인 외교 노선을 표방하며 안보 분야에서 지역 내 강대국에 균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한편, 양자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독자적으로 자국군의 발전을 모색하였다. 2012년 우즈베키스탄은 CSTO가 극단주의자들을 자극한다며 탈퇴하는 하였으며, 2015년에는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한 지역에서 공군기지를 사용하던 독일군을 철수시켰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내 최대 병력(2016

181) “Quiet Desperation: Turkmen Villagers Fear Afghan Conflict, But Won't Say It Out Loud,” *RadioFreeEuorpe/RadioLiberty*, 2016.11.22. https://www.rferl.org/a/qishloq-pannier-turkmenistan-village-marchak-afghan-conflict/28133538.html (검색일: 2021.05.10.)

년 기준 4만 8,000명, 국경수비대를 포함한 육군의 병력은 2만 4,500명)[182]을 보유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하여 나머지 중앙아시아 4개국과 모두 접경하여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 내 강대국들과 안보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협력을 이끌어나갈 수 있었다. 2012년 미국은 우즈베키스탄에 무기를 제공하고, 과거 인권 문제로 중단하였던 군사적 협력을 재개하였으며, 미군의 철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4년 이후 러시아도 우즈베키스탄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였다.

아프가니스탄 문제로부터 가장 취약한 타지키스탄은 다방면으로 안보 협력을 강화하였다. 타지키스탄은 스위스지뢰행동재단, OSCE와 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 인근에 지뢰 제거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OSCE와 UN은 타직-아프간 국경수비대에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또한 타지키스탄은 지역 안보 제공자인 러시아와 지역 내 안보기구인 CSTO, SCO와 자국 내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개최함으로써, 위협에 대비하였다.

### (2) 위협 인식이 낮은 국가들의 아프간 정책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한 위협 인식이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은 자국 안전 보장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 사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연성 안보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카자흐스탄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같이 지역 내 안보기구인 CSTO, SCO에 회원국으로 참여하며 아프가니스탄 문제에서 비롯되는 위협을 경성 안보적 수단을 활용하여 대비하였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은 사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아프가니스탄 내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카자흐스탄은 2010년부터 아프가니스탄 학생을 초청하여

182) The Military Balance, The Institute of Internatinoal Strategic Studies, 2017, pp.232.

고등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의사, 교사 등 전문 인력 교육 사업도 진행하였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학교, 병원,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건설을 제공함으로써 아프가니스탄 내 평화정착에 기여하였으며, 중앙아시아 국가 최초로 공적 원조 기관인 카즈에이드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아프가니스탄발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였으며, 제한적으로나마 아프가니스탄에 사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려 하였다. 키르기스스탄은 상류의 수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으로 전송하는 미국 주도의 CASA-1000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내에 있는 키르기즈인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아프가니스탄과 직접 접경하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은 OSCE와 국경 관리 및 위협 평가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아프가니스탄에 사회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지원을 제공하며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에 자국의 기여도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은 아프가니스탄 내 에너지, 교통 인프라 지원을 위한 다자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였는데, TAPI 천연가스관과 TAT 철도가 그것이었다. 이외에도 투르크메니스탄은 전력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과 같이 아프가니스탄 내 평화 협상과 화해, 아프간 유학생 초청 등의 정치, 사회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 제 2 절 위신 추구와 아프간 정책

### 1. 위신 형성의 구조와 위신 추구 행위

#### (1) 평화정착을 둘러싼 위신 형성의 구조

위신은 계층화된 사회에서 행위자가 사회적인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행위로써 위신 추구 행위와 사회 구성원들의 인정을 통한 위신의 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계층화된 사회와 사회 구조를 먼저 설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비롯한 중앙유라시아의 안보 구도는 강대국이 형성한 질서 속에서 지역 내 국가들이 균형과 협력, 편승을 통해 다양한 동학을 만들어내는 계층적인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앞서 베게너가 정리한 위신 이론의 유형을 다시 살펴보면, 중앙유라시아의 안보 구도를 계층화된 사회로 상정해보면 계층화의 기원은 폐쇄된 사회에서의 갈등보다 계급과 질서에 기반한 계층화가 이루어진 사회로 규정된다.

| | 사회적 행위의 지향 | |
|---|---|---|
| 계층화의 기원 | 규범적(주관적) | 이성적(객관적) |
| 질서(계급) | 위신의 기반: 카리스마 | 위신의 기반: 성취 |
| 갈등(사회적 폐쇄) | 위신의 기반: 영광 | 위신의 기반: 존경(Esteem) |

[표 4-1] 베게너가 정리한 위신 이론의 유형
출처: Wegener, 1992, p.256.

또한 위신의 형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위신 획득을 위한 행위가 어떠한 사회적 행위의 지향으로 이루어지는지도 고려되어야만 한다. 2장에서 밝힌 것처럼, 필자는 위신을 획득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적 행위 지향이 이성적인 판단에 의거한 것이라는 길라디의 전제를 수용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필자는 위신의 형성이 계급화된 사회 내에서 사회적 행위의 지향이 이성에 기반하는 모델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정책을 평가할 것이다. 계층화가 질서에 기반하고 사회적 행동의 지향이 이성적인 경우 행위자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성적인 동기를 지니고 있으며, 사회는 의무를 이행하였을 때 행위자에게 보상으로 위신을 인정한다. 이러한 모델이 다른 모델에 비해 갖는 강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질서에 기반한 계층화는 중앙유라시아의 안보 구도와 합치한다는 점이다. 반면 계층화가 폐쇄적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갈등 구조는 현실주의에서 전제하는 홉스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과도 유사한 점을 보이며, 이러한 투쟁적 사회는 중앙유라시아의 안보 구도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일례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정책을 전개함으로써 지역 안보 내에서 위신을 얻고자 투쟁하지만,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 사이에서의 투쟁이며, 위계적으로 높은 지역 내 강대국인 미국, 러시아와의 위신 투쟁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갈등-이성 모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두 번째, 개인이 사회의 핵심과 가까울수록 위신이 큰 것으로 여겨지는 질서-규범 모델의 경우 사회학에서는 직업 등으로 대표되는 지표를 활용하여 파악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접근을 국제정치학에서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중앙유라시아의 안보 구도와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현안에서 '사회적인 핵심'을 규정하고 이와 원근을 규정하는 작업은 모호한 작업이 될 것이다. 또한 이 모델은 중앙아시아의 현실에서도 강대국에 균형적인 정책을 취하는 우즈베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문제에서 위신을 인정받는 현상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질서-이성의 모델을 활용하여 과시적 소비가 위신 획득을 위한 합리적 판단이라는 길라디의 주장을 수용하여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현안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위신 추구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또한 위신의 형성 과정에서 사회적 행위로서의 인정이 수사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인정의 이면에 있는 맥락을 파악하여야만 할 것이다. 필자는 위신 추구 행위뿐만 아니라 인정도 이성적인 판단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전제하고자 한다. 따라서 안보 사안에서 국가가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특정 행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인정을 받는 국가가 인정의 주체인 국가와 인식을 공유하고 이들의 행동이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였다는 것이며, 위신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인식을 공유하지 않고 전략적 목표에 그 행위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정의 주체인 국가들(위신 추구 행위의 관찰자들)의 아프가니스탄 문제 인식과 전략적 목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 [표 4-2]와 같다.

| | 미국과 EU | 러시아 | 중국 | 아프가니스탄 | 탈레반 |
|---|---|---|---|---|---|
| 아프간 문제 인식 | 지역, 지구 안보의 위협 | 지역 안보의 위협 | 지역 안보의 위협 | - | - |
| 전략 목표 | 역내 군사 거점 확보<br>친미 국가 형성 | 유라시아 내 통제력 강화 | 전략적 경계 안정화 | 아프간 내 유일 완전 주권국가로 발전<br>국내 안정화 및 발전 | 칼리파트의 건설<br>국제사회 내 자격을 획득 |
| 수단 | 정치, 외교, 경제적 지원 | 군사적 지원, 동맹 체제 강화 | 투자 증대를 통한 양자 관계 강화 | 지역 강대국과의 협력 확대 | 무장 투쟁<br>미국과의 평화협상 |

**[표 4-2]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구도 내 행위자들의 인식과 전략**

출처: 신범식, 2018, p.346을 중심으로 필자가 작성

### (2) 과시적 소비로서의 위신 추구 행위

위신을 추구하는 행위는 곧 과시적인 행위이며, 사회적 구성원들에게 이러한 과시적인 행위가 인정받아야만 위신이 형성된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에서 위신을 추구하는 국가들은 과시적으로 자국의 자원을 투입하거나, 지역 내 다자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지원과 국내 문제가 상충되는 경우 위신을 추구하는 국가는 국내 문제보다 아프가니스탄 지원을 우선시하게 된다.

반대로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현안에서 위신을 추구하지 않는 국가들은 지역 내로 확산되는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자국에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기여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국가들의 행위를 구분하고, 이러한 행위가 지역 내 강대국과 현안의 당사자인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지지를 받는지 살펴본다면, 위신 추구와 인정을 통한 위신의 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2. 위신과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정책

### (1) 주도적 국가들의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정책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과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꼽을 수 있다. 이들 국가는 아프가니스탄에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거나, 다자간 이니셔티브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우즈베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의 접경국으로 전력, 교통 및

통신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였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이 건설한 테르메즈-마자르-에-샤리프 간 철도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진출에 활용할 북부 물류네트워크의 주요 노선으로, 미 국방부는 위 노선의 건설이 까다로워 물류의 병목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위 노선을 건설하여 군용 물자와 국가 재건에 필요한 물자의 유통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전력 공급과 관련하여서도 우즈베키스탄은 타지키스탄과 달리 본국 내 전력이 부족함에도 아프가니스탄에 합의한 물량을 공급하였으며, 아프가니스탄 측은 이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사회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위신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카자흐스탄은 2010년 OSCE 의장국으로 선출되기 위하여 "유럽 국가"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선거법과 미디어법을 개정하고 정당 등록을 자유화하였다.[183] 또한 OSCE 의장국이 된 이후에도 카자흐스탄은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지역 안보 문제로 CSTO에서 논의되기를 원했던 러시아의 의사에 반하여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OSCE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를 관철하여 12월 정상회담 의제로 추가하고 정상회담이 끝난 후 회원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내 성명을 발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184] 이외에도 카자흐스탄은 아프가니스탄에 교육 지원, 인프라 건설 자금을 지원하고, 공적지원기구인 카즈에이드를 설립하여 UNDP, 일본과 합의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에 공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다. 카자흐스탄은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OSCE에 정상회담에 상정함으로써 러시아를 제외한 미국과 서구, 그리고 OSCE 회원국들로부터 위신을 인정받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아스타나 선언을 통해 인정받았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평화정착의 대상인 아프가니스탄과

---

183) Anna Wołowska, *The OSCE chairmanship - Kazakhstan's self-promotion campaign?*, Center for Eastern Studeis, OSW Commentary 33, 2010.01.11. https://www.files.ethz.ch/isn/112246/Commentary_33.pdf (검색일: 2021.05.10.)

184) "Astana declaration adopted at OSCE Summit charts way forward," OSCE, 2010.12.02. https://www.osce.org/cio/74236 (검색일: 2021.05.10.)

중앙아시아 지역 외 국가인 일본으로부터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투르크메니스탄도 국제사회 내에서 자국이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양자적인 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사회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였을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참여하는 다자 이니셔티브인 TAPI 천연가스관 건설과 TAT 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TAPI 천연가스관을 건설을 주도한 미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행위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카자흐스탄도 이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지원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미국이 주도하는 TAPI 천연가스관 건설에 적극 참여하여 미국으로부터 당사자인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위신을 인정 받았다.

### (2) 협력 중심 국가들의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정책

아프가니스탄 문제에서 과시적으로 위신을 추구하지 않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한 다자 협력에 동참하여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키르기스스탄은 미국이 주도하는 CASA-1000에 참여하여 미국, 세계은행의 지원을 통하여 자국의 송전 체계를 현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타지키스탄은 미국, UN, OSCE, 아가 칸 개발 네트워크 등 민간 재단의 지원을 받아 자국과 아프가니스탄 인프라를 건설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 타직-아프간 국경 지역의 교량, CASA-1000 프로젝트, TAT 철도 건설 과정에서 타지키스탄은 서구 국가들과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재정 지원이 끊기는 경우 건설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이들 국가는 자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이익을 함께 증진하기 위하여 위신의 추구와 인정을 받기 위한 과시적인 행위보다는 협력을 이끌어내는 실리적인 방법을 택했다.

# 제 5 장 결론

## 제 1 절 요약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정책의 동인을 탐구함으로써 지역 안보를 둘러싼 국가들의 행위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지역 정치의 면모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역 안보를 저해하는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관된 공통의 정책을 펼친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정책을 펼치는 모습을 보였다. 필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시행한 평화정착 정책의 차이를 위협 인식과 위신 추구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위협 인식의 높고 낮음과 위신 추구-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정책 유행을 다음과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위협 인식이 높고, 위신을 추구할 경우, 폭력을 없애기 위한 경성 안보 분야의 평화정착 정책을 우선시하며, 동시에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에 과시적으로 자국의 자원을 투입하는 평화정착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하여 아프가니스탄에서 초래되는 위협에 직접 노출되어 있으며, 동시에 과거 종교적 극단주의 집단으로부터 대규모 공격을 받아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위협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아프가니스탄의 에너지 공급, 인프라 건설 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우즈베키스탄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두 번째로 위협 인식이 높고, 위신을 추구하는 정도가 낮은 경우이다. 이 경우 폭력을 없애기 위한 경성 안보 분야의 평화정착 정책을 우선시하며, 다른 행위자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실리적인 평화정착 정책을 추진한다.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하고, 러시아, 중국, CSTO, OSCE 등 안보와 사회경제 분야에서 다양한 행위자와의 협력을 통해 아프가니스탄발 문제를 해결하고 자국의 안보를 확립하려는 타지키스탄을 이 유형으로 꼽을 수 있다.

세 번째로 위협 인식이 낮고 위신 추구 정도가 높은 경우, 사회

경제적 안정을 위한 연성 안보 분야 중심의 평화정착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에 과시적인 형태로 자국의 자원을 투입한다. 카자흐스탄은 OSCE 의장국으로서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로 선정하기 위하여 EU의 요구를 수용하고, CSTO에서 아프간 문제를 처리하고자 하는 러시아와의 의견 충돌이 일어났음에도 이를 관철시켰다. 또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카자흐스탄은 교육, 인프라 등 사회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공적지원기구를 창설하기도 하였다. 직접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한 투르크메니스탄은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 달리 종교적 극단주의, 테러가 사회적인 트라우마를 형성하지 못하여 비교적 위협 인식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안보적인 부분보다 사회경제적인 부분에서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에 기여하였으며, 다자 이니셔티브가 진행될 때에도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위협 인식이 낮고 위신도 추구하지 않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한 연성 안보 분야 중심의 평화정착 정책을 추진하며, 다른 행위자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실리적인 접근을 선호한다.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하지 않아 아프가니스탄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키르기스스탄은 CSTO, OSCE, 이스탄불 프로세스 등 다자기구 참여를 통해 간접적으로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에 참여하고자 하였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5-1]과 같다.

| | | 위신 추구 | |
|---|---|---|---|
| | | 높음 | 낮음 |
| 위협 인식 | 높음 | 우즈베키스탄 | 타지키스탄 |
| | 낮음 | 카자흐스탄,<br>투르크메니스탄 | 키르기즈스탄 |

[표 5-1] 위협 인식-위신 추구와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정책

이번 연구를 통해 필자는 중앙아시아 지역 정치에 다음과 같은 일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기존 국제정치이론에서 살펴보면 중앙아시아는 현실주의의 강대국 간의 지정학적인 경쟁을 통해 강대국 중심의 지역 질서가 형성된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 내 안보 현안인 아프가니스탄 문제와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에 관하여 강대국들은 지역 국가에 안보를 제공하고, 서구의 경우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아젠다를 이끌며 지역 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자유주의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코헤인 등이 지적한 것처럼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는 내 안보제도는 유로-대서양 지역의 안보제도보다 불완정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자주적인 행보, 영세 중립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의 존재,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 간 견제와 불신 등은 통합적인 지역안보체제를 구축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곤 한다. 또한 지역 내 안보제공자이며 안보제도의 설계자인 러시아 입장에서도 과거 NATO가 거대한 적으로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결성된 것과 달리 유라시아 내 공동의 대응으로 상대하여야 하는 적을 찾기 어려워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동인이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내에서 국제 규범과 국제제도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정치이론을 통해 중앙아시아를 설명하려는 국제사회학파의 시도는 납득할만 하다.

또한 구성주의적인 입장에서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지역 내 국가들이 모두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인식의 공유를 통해 안보 공동체로의 메타 정체성을 구성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신범식이 언급한 것처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강대국과의 협력과 대응, 지역 내 국가 간 관계 설정, 국내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3가지 수준에서의 과제를 안고 있다. 안보 현안을 중심으로 하는 메타 정체성의 구성은 국민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 이후에야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국가의 차원을 넘어서는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계기가 필요할 것이다.

지역 갈등이 지역적 맥락에서 형성되고 평화정착도 지역적 맥락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아프가니스탄의 내 갈등은 국민국가와 사회, 종교와의 갈등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중앙유라시아의 역사와 문화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탈레반이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국가의 형성, 국가와 사회, 종교와의 관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하여 아프간 내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의 영향에 노출된 우즈베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 유사한 갈등을 경험한 바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유난이 종교적 극단주의와 테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세속주의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나 신생국으로서 국가와 사회, 종교 간 관계를 규정하는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리적 인접성과 역사적·문화적 전통을 공유하는 "지역(地域)" 내 국가들에게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은 커다란 위협이며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또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는 만큼 지역 내 다른 국가로의 파급도 다른 지역의 국가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정착은 지역적인 맥락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그 해결도 지역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적 맥락과 지역 안보 구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잔과 웨버는 국제정치학자의 입장에서 강대국 정치와 지정학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따라서 지역안보복합체 개념도 강대국과 지역 내 국가 간 상호작용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안보복합체적 접근은 아프가니스탄을 러시아가 안보를 제공하는 유라시아와 남아시아를 분절하는 국가로 규정하며 아프가니스탄이 지닌 지역적인 맥락과 성격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필자는 아프가니스탄의 문제는 중앙아시아의 안보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며, 향후 아프가니스탄을 둘러싼 지역안보복합체를 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별 국가의 행태를 통해 지역정치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응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행동을 통해 강대국의 각축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는 점이다. 아프가니스탄의 위협을 비

교적 크게 인식하는 국가들은 지역 내 안보 제공자인 러시아, 대테러 분야 협력을 위해 새롭게 손을 내민 중국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였다. 한편 위협 인식이 비교적 낮고, 위신을 추구하는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을 지원 중인 서구와 서구 주도의 국제기구인 UN과 OSCE에서 자국의 기여를 과시하고 이를 인정받았다. 이는 강대국의 기조와 부합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을 완충지대로 만들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안보 제공자 역할을 유지하려는 러시아와 위협 인식이 높은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협력을 강화하려 하였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한편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사회경제적 지원은 아프가니스탄에 정치, 경제, 사회 분야 지원을 통하여 평화정착을 도모하였던 서구의 전략과 맞닿아있다.

둘째 중앙아시아 국가 간 위신 추구와 인정 행위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현안에서 위신을 추구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웃 국가가 아닌 지역 내 강대국 내지는 역외 행위자들로부터 자국의 행위를 인정받고자 하였다. 특히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 UN과 OSCE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자국의 기여를 강조할 수 있는 무대였다.

셋째 강대국을 제외한 지역 국가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앙아시아 5개국은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모두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일관적이고 통일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도모하기보다 지역 내 강대국과의 양자, 다자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였다. 안보 문제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협력하지 못하는 상황은 강대국들이 중앙아시아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유지 혹은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1990년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집단안보조약

체결, 2000년대 테러와의 전쟁 속에서 미국의 진출, 2010년대 중국의 부상과 SCO를 통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이러한 상황을 드러내는 사례이다. 과거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핵 무기와 핵 폐기물 문제에 대한 경각심과 피해 의식을 공유하며 협력을 추진한 중앙아시아 비핵지대가 중앙아시아 국가 간 협력의 성공 사례라면,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문제는 중앙아시아 국가 간 위협 인식을 공유함에도 협력에 실패한 사례인 셈이다.

## 제 2 절 의의와 한계

본고는 외교정책, 평화정착 연구와 국제정치학의 연구 단위로서의 지역에 대한 기여를 제공하는 데에서 그 의의가 있다. 먼저 행위자 수준 연구 중 평화정착이 다루어지는 경우 평화정착의 행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대테러 작전 참여, 규범 외교로만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평화정착은 안보, 사회, 경제, 정치 분야에서 폭넓고 다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며, 대테러 작전 참여, 동맹에 대한 기여, 규범 외교는 이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평화정착 전반을 살피기 위해서는 갈등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위해 어떠한 평화정착 정책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전 탐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갈등과 갈등에서 비롯된 문제를 제시하고 이 문제에서 파생된 위협을 방지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를 연구함으로써 외교정책의 행위로서 평화정착 연구에 기여한다.

두 번째 평화정착 연구의 관점에서 평화정착 정책을 추진하는 동인으로 위협 인식을 선정함으로써 위협 인식과 평화정착에 관한 연구의 범위를 넓혔다는 점이다. 평화정착의 동인으로서 위협 인식은 충분히 연구되지 못하였으며, 전쟁의 시작과 동맹의 형성, 그리고 갈등과 관련된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이는 변화하는 현재의

상황을 온전히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지구화 이후 대두된 비국가 행위자들에 대한 위협도 정책의 결정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이러한 위협이 초래되는 곳은 평화가 정착되지 않은 약한 국가라는 점을 상기해보면, 위협 인식과 평화정착에 대한 연구는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본 사회학의 진행된 위신 연구를 반영하여 국제정치학에서의 위신 연구를 보다 구체화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위신의 측정 혹은 형성 과정은 모호하게 서술되어 왔으며, 특히 평화정착과 관련하여서는 평화정착 행위와 특정 국가의 선언적 관념을 연결한 것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필자는 위신이 형성되는 사회 구조를 지역과 현안을 중심으로 상정하고, 행위자들의 행동과 사회 구성원들의 반응을 기술함으로써 위신의 형성 과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네 번째 지역 정치 연구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지역 질서와 지역 안보 구도와 특정 현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내 국가들의 행위와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역 정치의 일면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제정치의 분석 단위로 지역을 상정하는 것은 지역 내 구도와 현안, 행위자들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을 깊게 이해하는 강점을 지닌다. 아직 지역과 지역 정치에 대한 폭넓은 학술적 동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접근이 갖는 긴요함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한다.

한편 본고의 설명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평화정착 정책과 관련하여 정치 분야의 평화정착 행위를 충분하게 담아내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본래 평화정착에 대한 연구는 자유주의 계열의 민주평화론에 기반하며, 평화정착의 최종 목표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와와 개방된 시장경제 체제를 갖춘 국가의 건설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체제 전환의 과정에 있으며, 따라서 정치 분야와 관련하여 제한적인 기여만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의 접근 방식은 특정 지역과 현안을 상정하여야 설명력을 지닌다는 점이다. 위신의 경우 위신 형성의 전제인 사회 구조가

명확히 상정된다면, 어느 정도 다른 연구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협 인식의 경우 위협의 종류와 위협 인식을 결정 짓는 요인들이 지역과 현안에 따라 다양함으로 일률적인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 제 3 절 정책적 시사점

지역 내 위협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평화정착을 추진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행위에 관한 연구는 동북아시아 지역 정치와 한국의 외교정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첫 번째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과 평화정착에 관하여 일관적이고 합의된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개별 국가는 자국으로 파급되는 위협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강대국 간 각축, 지역 내 국가들의 불신과 협조적이지 못한 문화, 특정 국가에서 초래되는 불안정성 등 중앙유라시아에서 아프가니스탄 문제는 동북아시아에서 북한 문제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다만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북한과의 갈등 당사자이며, 이러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지역 내 국가들과의 협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북한과의 협력, 더 나아가 지역 내 다자 프로젝트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 본 연구는 위신 추구를 위해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정책결정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위신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역과 현안을 둘러싼 구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위신은 자기 만족을 위한 선언적 행위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현안 내 행위자들의 인정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저서


신범식 등. 『유라시아의 심장 다시 뛰다! : 중앙아시아 지역의 형성과 역동성』 서울: 진인진, 2017.

신범식 등. 『중국의 부상과 중앙아시아』 서울: 진인진, 2015.

소스타인 베블런 저. 박홍규 역. 『유한계급론』 서울: 문예출판사, 2019.

Allan, Pierre & Keller, Alexis. *What is a Just Pea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Baylis, J. and Smith, S.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Benjamin S. Day & Valerie M. Hudson. *Foreign Policy Analysis - Classic and Contemporary Theory*, Lanham: Rowman&Littlefield. 2020.

Buzan, Berry & Waever. Ole. *Regions and Powers -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Security*, New York, N. Y.: Cambridge. 2003.

Chandler, David. *Peacebuilding - The Twenty Years' Crisis, 1997-2017.* Springer, 2017.

Galtung, Johan, Fischer, Dietrich. *Pioneer of Peace Research.* Springer. 2013.

Gilady, Lilach. *The Price of Presti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8

Ginty, Roger M. ed. *Routledge Handbook of Peacebuilding.* Routledge, 2013.

Ginty, Roger M. ed., *International Peacebuilding and Local Resistance - Hybrid Forms of Peace.* Palgrave Macmillan, 2011.

Hobbes, Thomas., Leviathan, ed. A. R. Waller Cambridge; Cmabrdige University Press, 1904.

Huddy, Leonie. Sears, David O. & Levy, Jack S. ed.,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Oxford, 2013.

Jean-Frédéric Morin & Janathan Paquin. *Foreign Policy Analysis - A Toolbox*, Palgrave Macmillan. 2018.

Jeong, Ho-Won. ed., *Approches to Peacebuilding.* Palgrave Macmillan, 2002.

Kaarbo, Juliet. Lantis, Jeffrey S. & Beasley, Ryan K. *Foreign Policy*

*in Comparative Perspective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fluences on State Behavior*, SAGE. 2013.
Kassenova, Nargis. "Kazakhstan's Policy toward Afghanistan - Context, Drivers, and Outcomes," in Amin Saikal & Kirill Nourzhanov(ed.), *Afghanistan and Its Neighbors After The Nato Withrawal*, London; Lexington Books. 2016, pp.97-110.
Keohane, Robert & Nye, Joseph. Power and Interdependence, Longman, 2011, 4th ed.
Khalid, Adeeb. Islam after Commun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4.
Lee, Johnathan. *Afghanistan - A History from 1260 To The Present.* Glassgow; Reaktion Books, 2018.
Morgenthau, Hans & Thompson, Kenneth. "The Struggle for Power: Policy of Prestige," *Politics Among Nations.* Beijing: Peking University Press, 1997.
Resende, Erica. & Budryte, Dovile. Memory and Trauma in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Routledge, 2014.
Rousseau, David. Identifying Threats and Threatening Identities -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sm and Liberalism.* Standford; Standford University Press, 2006.
Rubin, Barneet. *Afghanistan from the Cold War through the War on Terror.* Oxford; Oxford Press, 2013.
Rytovuori-Apunen, Helena ed., *The Regional Security Puzzle around Afghanistan.* Opladen: Babara Budrich Publishers, 2016.
Oliver, Richmond. ed. *The Palgrave Handbook of Disciplinary and Regional Approaches to Peace.* Palgrave Macmillan, 2016.
Weber, Max. Tribe, Keith trans. *Economy and Socie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9.
Wendt, Alexander.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 논문

김석수, 「일본 정부개발원조 (ODA) 와 국익의 연계」, 『문화와 정치』 제3권 제1호, 2016, 83-108쪽.
Adler, Emanuel. "Imagined (Security) Communities: Cognitive Regions in Interna- tional Relations."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26-2, (1997), pp.249 - 277.
Allison, Lincoln. & & Monnington, Terry. "Sport, Prestig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Government and Opposition* 37-1, Winter 2002, pp.106-134.
Aris, Stephen.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Tackling the Three Evils'. A Regional Response to Non-Traditional Security Challenges or an Anti-Western Bloc?." *Europe-Asia Studies*, 61-3, May 2009, pp.457-482
Bachleitner, Kathrin. "Diplomacy with Memory: How the Past Is Employed for Future Foreign Policy." *Foreign Policy Analysis* 15-4, (2019), pp.492-508.
Baizakova, Kuralai.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s Role in Countering Threats and Challenges to Central Asian Regional Security," *Russian Politics & Law*, 51-1, 2013, pp.59-79.
Baldiwn, David. "Thinking about threat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15, (1971), pp.71-78.
Barnett, Michael, Kim, Hunjoon, O'Donnell, Madalene & Sitea Laura. "Peacebuilding: What is in a Name?," *Global Governance* 13-1 (January - March 2007), pp. 35-58.
Bartelson, Jens. "Three concepts of recognition." *International Theory*, 5-1, (2013), pp.107-129.
Billon, Philippe L. "Corrupting Peace? Peacebuilding and Post-conflict Corruption." *International Peacekeeping*, 15-3, 2008, pp.344-361
Claire Q. Smith, Lars Waldorf, Rajesh Venugopal & Gerard McCarthy. "Illiberal peace-building in Asia: a comparative overview." *Conflict, Security & Development*, 20-1, (2020), pp.1-14
Doyle, Michael. & Sambanis, Nicholas. "International Peacebuilding: A Theoretcial and Quantitive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4-4, (December, 2000), pp.779-801.
Doyle, Michael. "Kant, Liberal Legacies, and Foreign Affairs." *Philosophy & Public Affairs*, 12-3, (Summer, 1983), pp.205-235.
Dubovtsev, Georgy. & Galymzhanuly Erlan. "Forecast on the Military - Political Situation Emerging in the World and the Central Asian Region,"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12-1, 2011, pp.42 - 43.
Duque, Marina. "Recognizing International Status: A Relational Approach."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62, (2018), pp.577-592.
Fatic, Aleksandar. "Conventional and unconventional - 'hard' and 'soft' security: the distinction," *Journal for Labour and Social*

*Affairs in Eastern Europe*, 5(3), (October, 2002), pp.93-94.
Jakobsen, Peter. Jakobsen, Viggo. Ringsmose, Jens. & Saxi, Hakon Lunde. "Prestinge-seeking small states: Danish and Norwegian military contributions to US-led operation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ecurity* 3-2, pp.256-277.
John H. Herz, "Idealist Internationalism and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2-2 (Jan, 1950), pp.157-180
Jonathan Mercer. 2018. "The Illusion of International Prestige," *International Security* 41(4), pp.133-168.
Karlsrud, John. "From Liberal Peacebuilding to Stabilization and Counterterrorism." I*nternational Peacekeeping*, 26-1, 2019. pp.1-21.
Keohane, Robert. "Twenty Years of Institutional Liberalism." *International Relations* 26-2, 2012, pp.125-138.
Kristian Stokke, "Peace-building as Small State Foreign Policy: Norway's Peace Engagement in a Changing International Context," *International Studies*, 49-3&4, 2012, pp.207-301.
Lee, Ji-Eun. "Foreign Policy Formation of Authoritarian States in Central Asia Since 1991 Non-Institutional Domestic Factors in Kazakhstan and Uzbekistan," 『국제정치논총』 제50집 (3)호, 2010, pp.33-71
Lewis. David, Heathershaw, John. and Megoran, Nick. "Illiberal peace? Authoritarian modes of conflict management," *Cooperation and Conflict*, 53-4, (2018), pp.486-506.
Maksut, Kuralay. "Central Asia, Afghanistan and International Order: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Journal of Global Policy and Governance*, 1, 2013, pp.203-215.
Musioł, Marek. "Post-Soviet Central Asia as a Unique Regional Security Complex." The Polish Quarterly of International Affairs 4, 2015, pp.59-78.
Newman, Edward. "Peacebuilding as Security in 'Failing' and Conflict-Prone States." *Journal of Intervention and Statebuilding*, 4-3, pp.305-322.
Dafoe, Allan. Renshon, Jonathan. and Huth, Paul. "Reputation and Status as Motives for War."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7, (2014), p.371-393.
Roy, Sing. "Role of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in Afghanistan: Scope and Limitations," *Strategic Analysis*, 34-4,

pp.545-561
Walt, Stephan. “Alliance Formation and the Balance of World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9-4, (Spring, 1985), pp.3-43.
Wegener, Bernd. “Concepts and Measurement of Prestige.” *Annual Review of Sociology*, 18, 1992, pp.253-280.
Wendt, Alexander.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2 (Spring, 1992), pp.391-425.
Young, Michael D. & Schafer, Mark, “Is There Method in Our Madness? Ways of Assessing Cogni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Mersho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42-1, (May 1998), pp. 63-96
Эргашев, Бахтияр. “Политика Узбекистана в отношении Афгани стана в контексте обеспече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Россия и мусульманский мир*, 2014 no.5, pp.90-96.

## - 인터넷 자료

“Tajik and Afghan officials inaugurate Vanj bridge built by AKDN as part of Cross-border Initiatives,” AKDN, 2011.08.16. ( https://www.akdn.org/press-release/tajik-and-afghan-officials-inaugurate-vanj-bridge-built-akdn-part-cross-border) (검색일: 2021.05.08.)
The White House President Barrak Obama, *National Security Strategy*, May 2010.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sites/default/files/rss_viewer/national_security_strategy.pdf (검색일: 2021.05.04.)
카자흐스탄 정부 사이트. “2014-2020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외교정책 개념(Foreign Policy Concept for 2014 - 2020 Republic of Kazakhstan)”
““U.S. vacates base in Central Asia as Russia's clout rises,” Reuters, 2014.06.03. https://www.reuters.com/article/us-kyrgyzstan-usa-manas-idUSKBN0EE1LH20140603 (검색일: 2021.05.06.)
“2010 OSCE Summit in Astana,” OSCE, 2010.12.02. https://www.osce.org/event/summit_2010 (검색일: 2021.05.06.)
“2050 Strategy address,” Kazakhstan 2050 Strategy.

https://kazakhstan2050.com/2050-address (검색일: 2021.05.05.)
"22nd Anniversary of the Uzbek Independence," Seoul City, 2013.09.04. http://www.seoulcit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957 (검색일: 2021.05.04.)
"About the establishment of the Kazakhst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KazAID," Embass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to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 https://www.gov.kz/memleket/entities/mfa-islamabad/press/news/details/148436?lang=en) (검색일: 2021.05.06.)
"Address by the President of Turkmenistan at the 65th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Turmenistan.ru, 2010.09.22. http://www.turkmenistan.ru/en/node/14143 (검색일: 2021.05.10.)
"Advantage United States In This Year's Meeting With Turkmen Officials," RadioFreeEurope/RadioLiberty, 2015.10.14. https://www.rferl.org/a/qishloq-ovozi-turkmenisan-us-meeting-everything-different/27306656.html (검색일: 2021.05.10.)
"Afghan Part of CASA-1000 Project 30% Completed," TOLOnews, 2021.03.28. https://tolonews.com/business-171036 (검색일: 2021.05.09.)
"Afghan, Tajik, Turkmen Presidents Open New Railway Construction," RadioFreeEurope/RadioLiberty, 2013.06.05. https://www.rferl.org/a/afghanistan-turkmenistan-tajikistan-railqay-construction/25007658.html (검색일: 2021.05.09.)
"Afghanistan and Turkmenistan open Lapis Lazuli railway," Railway Gazette, 2016.11.28. https://www.railwaygazette.com/infrastructure/afghanistan-and-turkmenistan-open-lapis-lazuli-railway/43586.article (검색일: 2021.05.10.)
"Afghanistan earns $400M transit fee on TAPI gas pipeline," The Khaama Press, 2012.04.18. https://www.khaama.com/afghanistan-earns-400m-transit-fee-on-tapi-gas-pipeline-747/ (검색일: 2021.05.10.)
"Afghanistan to profit $1 billion annually for transit from TAPI pipeline," The Khaama Press, 2016.12.07. https://www.khaama.com/afghanistan-to-profit-1-billion-annually-for-transit-from-tapi-pipeline-02436/ (검색일: 2021.05.10.)
"Afghanistan, China, Pakistan, Tajikistan Deepen "Anti-Terror" Ties," eurasiaent, 2016.08.04. https://eurasianet.org/afghanistan-china-pakistan-tajikistan-deepen-a

nti-terror-ties (검색일: 2021.05.08.)
"Al-Qaeda training camp uncovered in Tajikistan," *Telegraph*, 2010.10.19. https://www.telegraph.co.uk/news/worldnews/asia/afghanistan/8073451/Al-Qaeda-training-camp-uncovered-in-Tajikistan.html (검색일: 2021.05.07.)
"CASA-1000 Power Project Inaugurated In Tajikistan," RadioFreeEurope/RadioLiberty, 2016.05.12. https://www.rferl.org/a/tajikistan-afghanistan-kygyzstan-pakistan-casa-power-project-inaugurated/27729921.html (검색일: 2021.05.09.)
"Central Asian countries cite instability in Afghanistan as serious threat," UN News, 2013.09.27. https://news.un.org/en/story/2013/09/451332 (검색일: 2021.05.06.)
"China Holds Anti-Terror Exercises on Afghanistan-Tajikistan Border," eurasianet, 2016.10.24. https://eurasianet.org/china-holds-anti-terror-exercises-afghanistan-tajikistan-border (검색일: 2021.05.09.)
"China joins Afghanistan, Pakistan, Tajikistan in security alliance," Reuters, 2016.08.04. https://www.reuters.com/article/us-china-security-idUSKCN10F1A6 (검색일: 2021.05.04.)
"China To Form SCO Contact Group For Afghan Peace," Tolo News, 2019.02.22.. (검색일: 2019.10.15.) ( https://tolonews.com/afghanistan/china%C2%A0-form%C2%A0sco-contact-group%C2%A0-afghan-peace)
"CSTO Accepts Uzbekistan's Withdrawal," RadioFreeEurope/RadioLiberty, 2012.12.19. https://www.rferl.org/a/csto-russia-afghanistan/24802767.html (검색일: 2021.05.03.)
"CSTO Promises Support, But No Russian Troops, For Tajikistan's Border," eurasiaent, 2013.09.24. https://eurasianet.org/csto-promises-support-but-no-russian-troops-for-tajikistans-border (검색일: 2021.05.06.):
"CSTO Promises Support, But No Russian Troops, For Tajikistan's Border," eurasiaent, 2013.09.24. https://eurasianet.org/csto-promises-support-but-no-russian-troops-for-tajikistans-border (검색일: 2021.05.06.):
"CSTO Promises Support, But No Russian Troops, For Tajikistan's

Border," eurasianet, 2013.09.24. https://eurasianet.org/csto-promises-support-but-no-russian-troops-for-tajikistans-border (검색일: 2021.05.08.)
"CSTO Troops Drill Against 700-Strong Taliban Invasion Of Tajikistan," eurasianet, https://eurasianet.org/csto-troops-drill-against-700-strong-taliban-invasion-of-tajikistan (검색일: 2021.05.08.)
"Fighting terrorism and drug trafficking are key priority's for Tajikistan, President tells UN Assembly," UN News, 2015.09.29. https://news.un.org/en/story/2015/09/510572-fighting-terrorism-and-drug-trafficking-are-key-prioritys-tajikistan-president (검색일: 2021.05.08.)
"Germany Formally Closes Uzbekistan Air Base," eurasianet, 2015.12.16. https://eurasianet.org/germany-formally-closes-uzbekistan-air-base (검색일: 2021.05.04.)
"Holding summit, protracted conflicts, transport and tolerance among priorities for Kazakh OSCE Chairmanship," OSCE, 2010.01.15. https://www.osce.org/cio/51821 (검색일: 2021.05.06.)
"Joint Tajik-Afghan Training on Humanitarian Border Management," IOM, 2013.09.27. https://weblog.iom.int/tajikistan/joint-tajik-afghan-training-humanitarian-border-management) (검색일: 2021.05.08.
"Karimov Calls For Russia's Role In Peace Process," TOLOnews, 2016.04.27. https://tolonews.com/afghanistan/karimov-calls-russias-role-peace-process (검색일: 2021.05.05.)
"Kazakhstan Offers Token Troop Presence For Afghanistan," RadioFreeEurope/RadioLiberty, 2011.05.24. https://www.rferl.org/a/kazakhstan_afghanistan_troops/24194820.html (검색일: 2021.05.06.)
"Kyrgyz government dispatches humanitarian aid to ethnic Kyrgyz living in Tajikistan, Afghanistan," *AKIpress*, 2020.06.22. https://akipress.com/news:643960:Kyrgyz_government_dispatches_humanitarian_aid_to_ethnic_Kyrgyz_living_in_Tajikistan,_Afghanistan/ (검색일: 2021.05.06.)
"Kyrgyz government to dispatch humanitarian aid to ethnic Kyrgyz in Afghanistan," *AKIpress*, 2013.10.29. (

https://akipress.com/news:530122:Kyrgyz_government_to_dispatch_humanitarian_aid_to_ethnic_Kyrgyz_in_Afghanistan/) (검색일: 2021.05.08.)
"Kyrgyz official warns UN Assembly of international dangers from unstable Afghanistan," UN News, 2014.09.29. https://news.un.org/en/story/2014/09/479752-kyrgyz-official-warns-un-assembly-international-dangers-unstable-afghanistan (검색일: 2021.05.06.)
"OSCE trains Turkmenistan border guards in border management and threat assessment," OSCE, 2015.04.29. https://www.osce.org/ashgabat/154276 (검색일: 2021.05.10.)
"Russia And Allies Practice Fighting ISIS In Tajikistan," eurasiaent, 2016.04.25. https://eurasianet.org/russia-and-allies-practice-fighting-isis-in-tajikistan (검색일: 2016.05.06.)
"Russia And Allies Practice Fighting ISIS In Tajikistan," eurasiaent, 2016.04.25. https://eurasianet.org/russia-and-allies-practice-fighting-isis-in-tajikistan (검색일: 2016.05.06.)
"Russia And Allies Practice Fighting ISIS In Tajikistan," eurasianet, 2016.04.25. https://eurasianet.org/russia-and-allies-practice-fighting-isis-in-tajikistan (검색일: 2021.05.08.)
"Russia and Tajikistan Stage Large Antiterrorism Drills," The Diplomat, 2016.03.12. https://thediplomat.com/2016/03/russia-and-tajikistan-stage-large-antiterrorism-drills/ (검색일: 2021.05.09.)
"Russia, Tajikistan Hold Huge Military Drills Near Afghan Border," Military News, 2016.03.15. https://www.military.com/daily-news/2016/03/15/russia-tajikistan-hold-huge-military-drills-near-afghan-border.html (검색일: 2021.05.09.)
"Security Council: European security block details priorities for collaboration with UN," *UN News*, 2013.05.07. https://news.un.org/en/story/2013/05/439082-security-council-european-security-block-details-priorities-collaboration-un (검색일: 2021.05.03.)
"Tajik border guards and Afghan border police complete OSCE Patrol Management and Analysis training course," OSCE, 2014.10.14.

https://www.osce.org/tajikistan/126208 (검색일: 2021.05.08.)
"Tajik Power Line To Afghanistan Inaugurated," RadioFreeEurope/RadioLiberty, 2011.10.27. https://www.rferl.org/a/afghanistan_tajikistan_power_line_inaugurated/24373587.html (검색일: 2021.05.09.)
"Tajikistan, Kyrgyzstan, Afghanistan, Pakistan inaugurated CASA-1000 project," *The AsiaN*, 2016.05.13. http://www.theasian.asia/archives/94555 (검색일: 2021.05.06.)
"TAP500 Transmits Electricity from Turkmenistan to Pakistan through Afghanistan," The Embassy of Afghanistan in Ashgabat, 2016.04.01. http://afghanembassyturkmenistan.com/tap500-transmits-electricity-from-turkmenistan-to-pakistan-through-afghanistan/ (검색일: 2021.05.09.)
"TAPI Pipeline Company established by member countries," Business Standard, 2014.11.15. (https://www.business-standard.com/content/b2b-manufacturing-industry/tapi-pipeline-company-established-by-member-countries-114111500634_1.html) (검색일: 2021.05.10.)
"The Implications of Tightening Russia-Uzbekistan Ties," The Diplomat, 2016.05.11. https://thediplomat.com/2016/05/the-implications-of-tightening-russia-uzbekistan-ties/ (검색일: 2021.05.05.)
"Thousands from Central Asia joining 'Islamic State." Deutsche Welle, 2015.01.21. https://www.dw.com/en/thousands-from-central-asia-joining-islamic-state-report/a-18203785 (검색일: 2021.04.30.):
"Turkmenistan Seeks Military Aid From Russia," eurasianet, 2016.06.09. https://eurasianet.org/turkmenistan-seeks-military-aid-russia (검색일: 2021.05.10.)
"Turkmenistan's New Afghan Border Policy," RadioFreeEurope/RadioLiberty, 2014.10.10. https://www.rferl.org/a/turkmenistan-afghanistan-border-policy/26631200.html (검색일: 2021.05.10.)
"Turkmenistan-Afghanistan-Tajikistan railway construction underway," Azernews, 2015.07.02. https://www.azernews.az/region/84846.html (검색일: 2021.05.09.)

"U.S. Suspends Ban On Military Assistance To Uzbekistan," RadioFreeEurope/RadioLiberty, 2012.02.01. https://www.rferl.org/a/uzbekistan_united_states_military_assistance/24470588.html (검색일: 2021.05.04.)
"UNDP, Kazakhstan and JICA to Jointly Assist Afghanistan," 2016.08.20. https://astanatimes.com/2016/08/undp-kazakhstan-and-jica-to-jointly-assist-afghanistan/ (검색일: 2021.05.06.)
"Uzbek president asks Putin to help fight radical Islam in Central Asia," Reuters, 2014.12.11. https://www.reuters.com/article/us-uzbekistan-russia-islamists-idUSKBN0JO1TW20141210 (검색일: 2021.05.05.)
"Uzbekistan Setting Up Checkpoints On New Silk Road," eurasianet, 2013.06.19. https://eurasianet.org/uzbekistan-setting-up-checkpoints-on-new-silk-road (검색일: 2021.05.04.)
"Uzbekistan starts building railroad to Mazar-e-Sharif," eurasianet, 2010.05.29. https://eurasianet.org/uzbekistan-starts-building-railroad-to-mazar-e-sharif (검색일: 2021.05.06.)
"Uzbekistan's new president closes Jaslyk prison camp," The Economist, 2019.08.08. https://www.economist.com/asia/2019/08/08/uzbekistans-new-president-closes-jaslyk-prison-camp (검색일: 2021.08.01.)
"Uzbekistan-Afghanistan Railway Starts Operations," eurasianet, 2011.08.24. https://eurasianet.org/uzbekistan-afghanistan-railway-starts-operations (검색일: 2021.05.06.)
"Узбекистан увеличил поставки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в Афганистан," regnum, 2015.12.11. https://regnum.ru/news/economy/2033520.html (검색일: 2021.05.06.)
About CASA-1000 https://www.casa-1000.org/about-casa-1000/ (검색일: 2021.05.06.)
About Us, Heart of Asia - Instanbul Process. https://www.hoa.gov.af/about-us/about-hoa-ip.html (검색일: 2021.05.04.)
Almohamad, Selman. Kirchschlager, Markus. & Kurtenbach, Sabine. *Peacebuilding after War and Violence - Neighbourhood Matters*,

GiGa Working Papers, December 2020.
"Kyrgyzstan H.E. Mr. Ruslan Kazakbaev,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UN, 2010.09.27. https://www.un.org/en/ga/65/meetings/generaldebate/View/SpeechView/tabid/85/smid/411/ArticleID/237/reftab/233/t/Kyrgyzstan/Default.html (검색일: 2021.05.06.)
Andisha, Nasir. *Neutrality in Afghanistan's Foreign Policy*, Special Report 360,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March 2015.
Barry O'Neil, "Nuclear Weapons and National Prestige," *Cowles Foundation Discussion Paper* No. 1560, 2006.
Brattvoll, Joakim. *Uzbekistan's Ambiguous polices on Afghanistan*, Prio Policy Brief 01, 2016.
Dyner, Anna, Legieć, Arkadiusz. & Rękawek, Kacper. *Ready to Go? ISIS and Its Presumed Expansion into Central Asia*, PISM Policy Paper 19(212), June 2015. https://www.files.ethz.ch/isn/192428/PISM%20Policy%20Paper%20no%2019%20(121).pdf (검색일: 2021.04.30.)
Farooq, Umar & Khawaja, Asma S.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Geo-political Implications, Regional Constraints and Benefits of CPEC." *South Asian Studies*, 34-2, July-December, 2019, pp.599-610.
Gollob , Sam. & O'Hanlon, Michael E. *Afghanistan Index - Tracking variables of reconstruction and security in post-9/11 Afghanistan.* Foreign Policy at Brookings, August 2020.
https://web.archive.org/web/20131019045817/http://mfa.uz/rus/mej_sotr/vneshnyaya_politika/ (검색일: 2021.03.30.);
https://www.gov.kz/memleket/entities/mfa/documents/details/397?lang=en (검색일: 2021.03.30.)
Indeo, Fabio. *Central Asia Beyond 2014: Building Regional Security Architecture*, ISPI, 2014.
Kassenova, Nargis. *Relations Between Afghanistan and Central Asian States After 2014*,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14.
Marat, Erica. "Kyrgyzstan: A Parliamentary System Based on Inter-Elite Consensus," Demokratizatsiya 20-4, (Fall 2012), pp.325-344.
Markedonov, Sergey. "Uzbekistan: The End of a Multi-vector Foreign Policy?."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2012.09.10.

https://www.csis.org/analysis/uzbekistan-end-multi-vector-foreign-policy (검색일: 2021.05.04.)

McDermott, Roger. *Kazkahstan's 2011 Military Decotrine: Reassessing Reg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The Foreign Military Studies Office, 2012

n UN address, Kyrgyzstan pledges full commitment to combat terrorism," UN News, 2015.10.02. https://news.un.org/en/story/2015/10/511182-un-address-kyrgyzstan-pledges-full-commitment-combat-terrorism (검색일: 2021.05.06.)

On national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Law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dated January 6, 2012 No. 527-IV. *Adilet* ( https://adilet.zan.kz/eng/docs/Z1200000527) (검색일: 2021.05.06.)

OSCE 사이트, *EU Strategy on Afghanistan*, 2018.04.16. https://eeas.europa.eu/sites/default/files/eu_final_booklet_revised_4.pdf (검색일: 2021.05.03.)

Osman, Borhan. & Gopal, Anand. *Taliban Views On A Future State*, Center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2016.

Panda, Ankit. "Afghanistan: The Next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Member?," *The Diplomat*, 2015.10.10.(검색일: 2019.10.15.) ( https://thediplomat.com/2015/10/afghanistan-the-next-shanghai-cooperation-organization-member/)

Peyrouse, Sebastien, "Drug Trafficking in Tajikistan: A very deep but not incurable evil."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2018.03.01. ( https://www.georgetownjournalofinternationalaffairs.org/online-edition/2018/3/1/drug-trafficking-in-tajikistan-a-very-deep-but-not-incurable-evil)

Peyrouse, Sébastien, *Battle on Top of the World: Rising Tensions in Tajikistan's Pamir Region*, German Marshall Fund of the United States, 2012.

Pikulina, Maria. *Uzbekistan in the Mirror of Military Security: A Historical Preface to Current Events, Conlict Studies Research Centre*, November, 1999.

Sarukhanyan, Yuriy. "Afghan Traditions of the Uzbek Foreign Policy," Central Asian Bureau for Analystical Reporting, 2019.07.01. https://cabar.asia/en/afghan-traditions-of-the-uzbek-foreign-policy (검색일: 2021.05.06.)

Shinn, James & Dobbins, James. *Afghan Peace Talks - A Primer,* Rand Cooperation, 2011.

Starr, Frederick. *A 'Greater Cetnral Asia Partnership' for Afghanistan and Its Neighbors*, Silk Road Paper, March 2005,

STATEMENT BY HIS EXCELLENCY NURSULTAN NAZARBAYEV,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AT THE 2010 OSCE SUMMIT, OSCE, 2010.12.01. https://www.osce.org/files/f/documents/8/7/73866.pdf (검색일: 2021.05.06.)

STATEMENT BY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HIS EXCELLENCY EMOMALI RAHMON AT THE OSCE SUMMIT, OSCE, 2010.12.02.

*Strategic Planning in Mine Action Programmes Tajikistan*, Geneva International Centre for Humanitarian Demining, 2013, pp.6-13: "Visit of Afghan demining experts to Tajikistan," ITF, 2012.11.07. https://www.itf.si/news/visit-of-afghan-demining-experts-to-tajikistan (검색일: 2021.05.09.)

Tajikistan to triple electricity export to Afghanistan," Afghan Voice Agency, 2013.04.04. https://avapress.com/en/59133/Tajikistan-to-triple-electricity-export-to-Afghanistan) (검색일: 2021.05.09.)

Tajikistan, Afghanistan Pamiri Villages Joined by Power Line," eurasianet, 2016.05.31. https://eurasianet.org/tajikistan-afghanistan-pamiri-villages-joined-power-line (검색일: 2021.05.09.)

The Institute of Internatinoal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2017.

The White House, "Joint Statement by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Karzai," 2013.01.11.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13/01/11/joint-statement-president-obama-and-president-karzai (검색일: 2021.05.03.)

Tolipov, Farkhod, "Pluses and minuses of the C5+1 format," *The Central Asia-Caucasus Analyst*, 2015.11.13. https://www.cacianalyst.org/publications/analytical-articles/item/13300-pluses-and-minuses-of-the-c5%201-format.html (검색일: 2021.05.03.)

Turkmenbusiness, 「영구 중립국 투르크메니스탄의 군사 독트린(BOEH

НАЯ ДОКТРИНА НЕЗАВИСИМОГО, ПОСТОЯННО НЕЙТРАЛЬНОГО ТУРКМЕНИСТАНА)」(2009년 1월 21일 승인) http://www.turkmenbusiness.org/node/126 (검색일: 2021.03.30.)

Turkmenistan has started work on a natural gas pipeline to Afghanistan, Pakistan and India," Insider, 2015.12.16. https://www.businessinsider.com/turkmenistan-has-started-work-on-a-natural-gas-pipeline-to-afghanistan-pakistan-and-india-2015-12 (검색일: 2021.05.10.)

Tynan, Deirdre. "Islamic State Threatens Central Asia." *International Crisis Group*, 2015.06.08. https://www.crisisgroup.org/europe-central-asia/central-asia/islamic-state-threatens-central-asia (검색일: 2021.04.30.)

UNDOC Reaerch, *Afghanistan opium survey 2019*, 2019.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Afghanistan opium survey 2019 - Socio-economic survey report: Drivers, causes and consequences of opium poppy cultivation*, February 2021.

Weitz, Richard "Global Insights: Uzbekistan's CSTO Withdrawal Highlights Russia's Dilemma," *World Political Review,* 2012.07.10. https://www.worldpoliticsreview.com/articles/12145/global-insights-uzbekistans-csto-withdrawal-highlights-russias-dilemma (검색일: 2021.05.04.)

Weitz, Richard. "Almaty Hosts 'Heart of Asia' Conference," The Jamestown Foundation, 2013.05.03. ( https://jamestown.org/program/almaty-hosts-heart-of-asia-conference/) (검색일: 2021.05.06.)

Weitz, Richard. "TERRORISM IN UZBEKISTAN: THE IMU REMAINS ALIVE BUT NOT WELL," The Central Asia-Caucasus ANALYST, 2024.05.05. https://www.cacianalyst.org/publications/analytical-articles/item/8975-analytical-articles-caci-analyst-2004-5-5-art-8975.html (검색일: 2021.05.10.): "Uzbekistan: Effect Of Tashkent Explosions Still Felt Two Years Later," RadioFeeEurope/RadioLiberty, 2006.03.27. https://www.rferl.org/a/1067140.html (검색일: 2021.05.10.)

Zhao Huasheng, *China and Afghanistan - China's Interests, Stance, and Perpective*,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itonal Studies, March, 2012.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объяснил, зачем России перевалочный пункт НАТО в Ульяновске,"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012.08.03. (

https://rg.ru/2012/08/02/putin.html) (검색일: 2021.04.30.)
ВОЕННАЯ ДОКТРИНА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2013.07.15.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900232 (검색일: 2021.05.06.)
ВОЕННАЯ ДОКТРИН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군사 독트린) ( https://lex.uz/acts/134026) (검색일: 2021.05.03.)
Декларация о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м курсе Туркменистана в XXI веке от 27.12.1999 ( http://wiki-tm.com/index.php/%D0%94%D0%B5%D0%BA%D0%BB%D0%B0%D1%80%D0%B0%D1%86%D0%B8%D1%8F_%D0%BE_%D0%B2%D0%BD%D0%B5%D1%88%D0%BD%D0%B5%D0%BF%D0%BE%D0%BB%D0%B8%D1%82%D0%B8%D1%87%D0%B5%D1%81%D0%BA%D0%BE%D0%BC_%D0%BA%D1%83%D1%80%D1%81%D0%B5_%D0%A2%D1%83%D1%80%D0%BA%D0%BC%D0%B5%D0%BD%D0%B8%D1%81%D1%82%D0%B0%D0%BD%D0%B0_%D0%B2_XXI_%D0%B2%D0%B5%D0%BA%D0%B5_%D0%BE%D1%82_27.12.1999) (검색일: 2021.05.10.)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на 2014 - 2020 годы, Adliet. https://adilet.zan.kz/rus/docs/U1400000741 (검색일: 2021.05.06.)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 Мин 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 2015.01.27. ( https://mfa.tj/ru/main/view/988/kontseptsiya-vneshnei-politiki-respubliki-tadzhikistan) (검색일: 2021.05.08.)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т декабря 1995 ( http://wiki-tm.com/index.php/%D0%9A%D0%BE%D0%BD%D1%86%D0%B5%D0%BF%D1%86%D0%B8%D1%8F_%D0%B2%D0%BD%D0%B5%D1%88%D0%BD%D0%B5%D0%B9_%D0%BF%D0%BE%D0%BB%D0%B8%D1%82%D0%B8%D0%BA%D0%B8_%D0%A2%D1%83%D1%80%D0%BA%D0%BC%D0%B5%D0%BD%D0%B8%D1%81%D1%82%D0%B0%D0%BD%D0%B0_%D0%BE%D1%82_%D0%B4%D0%B5%D0%BA%D0%B0%D0%B1%D1%80%D1%8F_1995) (검색일: 2021.05.10.)
Концепц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VESTI.kg, 2012.06.12. (https://vesti.kg/component/k2/item/13270-kontseptsiya-natsionalnoy

-bezopasnosti-kyirgyizskoy-respubliki.html) (검색일: 2021.05.06.)
О Стратег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5, Russia Matters, https://russiamatters.org/node/21421 (검색일: 2021.04.30.)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Н.Назарбаева народу Казахстана. 14 декабря 2012 г. ( https://www.akorda.kz/ru/addresses/addresses_of_president/poslanie-prezidenta-respubliki-kazahstan-nnazarbaeva-narodu-kazahstana-14-dekabrya-2012-g (검색일: 2021.05.06.)
ПОСТАНОВЛЕНИЕ МАДЖЛИСИ НАМОЯНДАГОН МАДЖЛИСИ ОЛИ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 от 3 октября 2005 года №. 103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Военной доктрины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СТРАН СНГ http://base.spinform.ru/show_doc.fwx?rgn=12243 (검색일: 2021.05.08.)
러시아 외교부,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тверждена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В.Путиным 30 ноября 2016 г.) https://www.mid.ru/foreign_policy/official_documents/-/asset_publisher/CptICkB6BZ29/content/id/2542248 (검색일: 2021.04.30.)
러시아 외교부,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утверждена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В. Путиным 12 февраля 2013 г.) https://www.mid.ru/foreign_policy/official_documents/-/asset_publisher/CptICkB6BZ29/content/id/122186 (검색일: 2021.04.30.)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사이트, Цели и задач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курса Узбекистана(우즈베키스탄 외교정책의 목표와 목적) ( https://web.archive.org/web/20120112030511/http://mfa.uz:80/rus/mej_sotr/vneshnyaya_politika) (검색일: 2021.05.03.)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사이트, Цели и задач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курса Узбекистана(우즈베키스탄 외교정책의 목표와 목적), 2010.02.16. https://web.archive.org/web/20100216214229/http://mfa.uz/rus/mej_sotr/vneshnyaya_politika/ (검색일: 2021.05.03.):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사이트, Цели и задач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курса Узбекистана(우즈베키스탄 외교정책의 목표와 목적), 2010.04.11. https://web.archive.org/web/20110411045859/http://mfa.uz:80/rus/mej_sotr/vneshnyaya_politika/ (검색일: 2021.05.03.)

키르기스스탄 정부 사이트, “키르기즈 공화국 외교정책 개념(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2007년 1월 10일 승인)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4569 (검색일: 2020.03.30.)
키르기스스탄 정부 사이트, “키르기즈 공화국 외교정책 개념(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2019년 3월 11일 승인) http://cbd.minjust.gov.kg/act/view/ru-ru/430045 (검색일: 2021.03.30.)
타지키스탄 외교부,「타지키스탄 공화국의 외교정책 개념(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2015년 1월 27일 승인) https://mfa.tj/ru/main/view/988/kontseptsiya-vneshnei-politiki-respubliki-tadzhikistan (검색일: 2021.03.30.)

카자흐스탄 통계청
세계은행
Pew Research Center
Pax et Bellum
표준국어대사전
Political Geography Now
UN 마약범죄사무소 사이트

# Abstract

The aim of this dissertation is to examine the driving factors of Central Asian countries' on Afghanistan peacebuilding policy and consider the aspects of regional politics of Central Asia/Central Eurasia.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instability arising from the long-term civil war in Afghanistan was perceived as a regional problem that threatens the security of not only Afghanistan but also the countries adjacent to Afghanistan. Central Asian countries have sought to ensure their security by preventing the spill over effects from Afghanistan, and further countirbute to the peacebuilding in Afghanistan in various ways.

Focusing on the perception of threat and the pursuit of prestige, I would like to explain the differences between Central Asian countries' Afghanistan peacebuilding policies. Geographically adjacent to Afghanistan, Uzbekistan and Tajikistan, which had historical trauma due to religious extremism in the past, recognized the instability of Afghanistan as a great threat, and used hard security measures to respond. On the other hand, Kazakhstan, Kyrgyzstan, which do not share border with Afghanistan, and Turkmenistan, which shares border with afghanistan, do not have a historical trauma so that their approaches to Afghanistan peacebuilding were focused on soft security like socioeconomic support..

Seeking prestige is also another driving factor to distinguish Central Asian countries' Afhganistan peacebuilding policies. Uzbekistan, Kazakhstan, and Turkmenistan, which sought to be recognized for their prestige by the regional powers and Afghanistan

government, took conspicuous measures, including socio-economic support, building infrastructure, and establishing ODA appaturus. Meanwhile, Kyrgystan and Tajikistan that did not leading peacebuilding agenda of Afghanistan tried to respond to Afghanistan issues through cooperation with regional powers or region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significance by assuming the peacebuilding policy as a foreign policy and the region as a unit of analysis in international relations. So far the studies of peacebuilding policy mainly focused on counter-terrorism policy and normative diplomacy. However, problems arising from conflict and various methods for solving it have not been sufficiently considered.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driving factors and certain act of peacebuilding by choosing specific issue and actos, Afhganistan and Central Asian countries.

Second, in the field of peacebuilding study, threat perception has not been sufficiently treated as a driving force. After globalization, the problems from weak state like religious extremism, terrorism, illegal trafficking are considered as a threat. For states supporting weak state is the way of ensuring their security so that it is plausbile to consider threat perception as the motive of peacebuilding. By doing so, we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research on threat perception and peacebuilding.

Third, studies that have assumed prestige as a driving force for peacebuilding have often ended up self-proclamation of certain countries' ideas and actions. In order to avoid, I accpeted the sociological approach of prestige formed by recognition. From this we can understand more clearly prestige formation than self-proclamation.

Finally, by choosing certain regions and issues for research,

this study can show more specific the relations between foreign policy and driving force. Presuming a region as an analysis unit of international relations has the strength to understand the phenomena to be explained by setting the regional composition, current issues, and actors more clearly.

**Key words:** Central Asia, Afghanistan, peacebuilding, prestige, threat perception, regional politics

**Student Number:** 2018-23472